중편소설

포성

정 창 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

중편소설 《포성》은 주체55(1966)년에 창작된 작품이다.

소설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답게 적후의 간고한 형편에서도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간직하고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족친 인민군용사들의 투쟁모습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소설에서는 지나온 생활경위와 미래의 꿈은 서로 달라도 조국이 시련을 겪던 어려운 시기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희망도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성격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강의하고 결단성이 있으며 대원들에 대한 요구성이 높은 지휘관인 주인공 장기로, 적개심이 강하고 대담하며 혁명적의리심이 두터운 배석이, 성급한 성미이나 용감하고 락천적인 달서, 행동은 굼떠도 전우들을 위해 헌신적인 소박하고 성실한 농민출신의 준보, 침착하고 책임성 높은 군의 윤례영 등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적인 형상을 통하여 소설은 인민군전사들이 지닌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들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한편 미군장교와 경찰서장 강길서의 형상을 통하여 제국주의군대와 계급적원쑤들의 저렬하고 추악한 성격적면모들을 예리하게 발가놓고있다.

중편소설 《포성》은 오늘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싸워나가도록 고무하는데서 의의있는 작품으로 될것이다.

편집부

주 요 인 물

장기로　조선인민군 소대장

김달서　조선인민군 병사(상등병)

리배석　조선인민군 전사

윤례영　사단병원 군의

리두찬　남조선 의학박사, 교수

강길서　남조선 경찰서장

1

병사들은 산길을 걷고있었다. 짧은 대렬이였다. 앞에 선 지휘관을 뒤따라 세 병사가 일렬을 이룬 종대였다.

북으로 가는 대렬이다.

지나온 로정이 몇백리나 되였던지 그리고 이제 갈 길 또한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며 걷는 그들이였다. 전 전선이 북으로 옮겨간 지금 그들이 걷는 땅은 적후였다. 그들을 감싸버린 수림을 아득히 펼쳐진 바다에 비한다면 이들은 그 바다의 한복판에 뜬 작은 배에 비길수 있었다.

그 작은 배가 일망무제 허허바다에 뜨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면서 어데론가 목적한바를 찾아가듯이 이들 네 병사도 산에서 산으로, 나무숲에서 또 다른 나무숲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면서 쉬임없이 가고있다.

얼마전까지도 그들은 이처럼 단출한 일행이 아니였다. 적후에서였을망정 질서정연한 중대가 움직이고있었다. 미제침략군 대대쯤은 충돌하면 그 순간에 없애버릴수 있는 인원과 힘을 가지고있던 중대였다. 특무장은 중대성원들의 복장정돈을 보살피면서 자주 잔소리를 했다. 중대장은 병사들과 롱담을 걸기도 했으며 웃기도 했고 떠들기도 했다.

중대 리발사가 면도용도구를 잊은것이 서운해서 모양내기를 즐기던 3소대장은 리발사를 두고두고 책망했었다.

이 모든것은 중대가 가지고있던 정신적여유가 어느 정도였던가를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이다.

했으나 그들은 어느 캄캄한 밤에 놀랄만큼 많은 적들과 부딪쳤다. 중대장은 이 충돌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리라는걸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달리는 할수 없는

정황이였다. 사실 전투는 가렬했다.

본래의 자기 졸개들을 태반이나 잃어버리고 새로 도착한 신병들을 보충받은 미제침략군련대장이란놈은 이 우방린접도 하나 없이 단독으로 포위된 인민군 중대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신병들의 사기를 돋구어주고 인민군대에 대한 그들의 공포를 덜어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자기 련대가 보유했던 모든 화력기재들을 동원하여 인민군 중대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포위된 중대는 이 가혹한 전투를 피하여 물러설 땅도 없었다. 기관총수도 보총수도 마지막 탄환이 떨어질 때까지 사격했다. 그 다음은 수류탄을 던졌고 그마저 떨어지자 총창을 비껴들고 육박전에 나섰다.

전투는 동틀무렵에야 끝났다. 밤새 전투를 지휘하면서 분주히 서둘렀던 미제침략군 대좌놈은 사단에 보내는 전투보고서에서 자기네 두개 대대의 성원을 잃어버린 슬픈 전투이긴 했으나 이 용감한 인민군 중대를 《완전히 없애버릴수 있었던것은 다행한 일》이였다고 썼다. 겸하여 그놈은 이 인민군 중대의 소속을 알렸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이였다.

《…짐작컨대 이 중대는 오래동안 락동강계선에서 우리의 사단을 뒤쫓던 ××사단의 일부로서 전연에서 단독임무를 수행하던중 사단과 련락이 끊어져 함께 행동하지 못한것 같다. …》

그런데 이 미제침략군 대좌놈은 그 인민군 한개 중대가 결코 없어진것이 아님을 몰랐다. 비록 중대장을 포함한 희생자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중대전투원들 대다수는 급변하는 정황으로 하여 분산되였을뿐이였다.

여기 네 병사도 그밤에 분산된 어느 한 소조로서 지금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기 위하여 북으로 가고있다.

그들은 중대가 걷던 그 행로를 따라 토성, 금천, 신막을

지나왔다. 이제도 먼먼 길이 앞에 있으니 어려운 행군은 계속될것이다.

걸음마다 원쑤와 부딪쳐야 되는 길, 원쑤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길, 네 병사의 북행길은 이런 길이였다.

2

앞에 한사람, 뒤따라 세사람… 병사들은 깊은 산속의 정적을 깨칠가 저어하는듯 말없이 걷고있다.

앞에 한사람— 그는 소대장 장기로다. 날씬한 몸매의 청년지휘관이다. 그는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가볍게 몸을 빼며 길을 내고있다. 그의 침착한 시선은 항상 앞을 살피면서 대렬을 인솔하고있다.

그의 권총집은 나무와 바위에 부딪쳐서 여러갈래로 금이 갔지만 아직은 만져보고싶으리만치 윤이 흐른다.

얼굴엔 적후생활의 긴장을 말해주는 엄숙성과 함께 건강한 생기가 흐르고있다.

입대전에 공업대학 졸업반에서 금속가공을 공부하고 있던 그는 훌륭한 군사지휘관들만이 가질수 있는 강한 통솔력과 적군 장교놈들의 생각을 잘 알아맞히는 귀중한 솜씨를 지니고있었다.

언젠가 사단장은 장기로소대장의 이런 솜씨를 보고 그가 기사가 되려고 한것은 자신의 천분을 잘 몰랐기때문이라고 말했었다.

그다음 사람은 상등병 김달서다. 이 상등병의 입대전직업은 전문체육단의 축구팀 문지기다. 나이는 스물다섯살, 살색은 검은 편이다.

포위속에서 중대의 분산이 불가피하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을 때 특무장이 없애버린 중대명단의 비고란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까다롭다. 성급하며 우쭐댄다. 전투에서는 용감하나 규률위반이 간혹 있다.》

그는 지금 기관단총이 늘이워진 널직하고 단단하게 펴진 앞가슴을 벌리고 약간 비꼬는듯한 시선으로 앞을 쏘아보며 걷는다. 자기 기분의 억제라든가 조심성이라든가 하는것을 싫어하는 그는 종종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앞길을 가로막는 나무가지들을 꺾어버리다가는 전우들의 나무람소리를 들었다.

그를 뒤따라오는 병사는 보기에도 농사군 그대로인 서른아홉살의 박준보다. 중키의 뚱뚱한 병사로서 그들중 배낭을 메고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동무들은 그가 무엇이나 그 배낭속에 건사해두기를 좋아한다고 《구두쇠》니, 《촌령감》이니 하고 놀려대려들지만 지금의 경우에 처해 그 배낭은 이들 일행에게 더없이 고마운것으로 되여있다. 그에 대해서는 《규률을 위반한 일이 한번도 없다. 굼뜨고 절도가 없는것이 약점이다.》라고 그 중대명단의 비고란에 기록되였었다.

마지막 사람— 그는 서른일곱살의 병사 리배석이다.

그는 사단에서 키도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센 거인이다. 역시 기관단총을 메고있다. 보통사람의 얼굴면적 전부를 덮어버릴수 있는 넓은 손바닥과 드센 주먹이 그에게 있다. 긴다리를 큼직큼직하게 옮겨짚으면서 우울해서인지, 심각한 생각에 잠겼기때문인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종일 가도 말이 없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주름살이 발고랑처럼 패이였고 쇠몽둥이를 건너놓은듯 든든한 가슴팍에서는 기관단총이 늘이워져서 걸을 때마다 장난감처럼 흔드적거렸다.

《비겁하지 않으며 대담하다. 문경지구 정찰시에 미제침략군 소위와 괴뢰군 소령을 한꺼번에 생포하여온것이 보고되였다. …》

어째서인지 특무장은 그에 대해서만은 공훈까지를 기록했었다.
해가 지자 산속은 인차 어두워졌다. 바람도 한결 더 세차져서 락엽들을 흩날렸다.
소대장은 숯구이막을 만날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고 커다란 바위가 바람을 막아주는 고목밑에서 대렬을 멈춰세웠다.
《오늘밤은 여기서 자기오.》
소대장은 명령조로 말했다. 그러자 일행은 바위를 등지고 원을 지어앉았다.
박준보가 배낭끈을 풀려다 말고 소대장에게 물었다.
《요기를 해볼가요?》
순간 병사들의 시선은 준보의 굼뜨게 움직이는 손에 집중되였다. 이 농사군출신의 뚱뚱한 병사는 빈자루와 같이 홀쭉한 배낭의 목을 어찌나 든든하게 비끄러맸던지 한참이나 풀어야 했다.
《제길,오래기도 하군.》
달서가 참지 못하고 핀잔조로 말했다. 그는 손놀림을 굼뜨게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그것은 그 자신이 놀랄만큼 손을 빨리 놀리는 축구팀 문지기로서의 원만한 훈련을 받았기때문이다.
《조금만 참게.》
준보는 그로부터도 한참이나 끙끙거리면서 애쓰다가야 배낭속으로 손을 들여밀었다.
배낭속에서 그는 네개의 떡을 꺼냈다.
침묵속에서 그들의 빈약한 저녁식사는 시작되였고 인차 끝났다. 차라리 준보의 말대로 《요기》라 해야 할것이다. 준보는 다시 그 배낭끈을 아까와 같이 여러겹 둘러서 매기 시작했다.
소대장 장기로가 준보의 배낭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가 정중하게 물었다.

《아침에 분배할 떡은 있소?》

《있습니다. 신통히도 네개가 남았습니다.》

《…》

기로의 얼굴은 흐려졌다. 병사들은 자기네 소대장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리유를 알았다. 보통때 같으면 그건 준보의 대답이 군인답지 못한때문이였다고 생각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당장 래일이면 먹을것이 없기때문이라는 걸 힘들이지 않고 알수 있었다.

병사들은 바람을 막아주는 커다란 바위밑에 누워서 잠들어보려고 했다.

달이 밝았다. 달은 나무가지들 짬으로 차고 쌀쌀한 빛을 뿌렸다.

10월이다. 밤은 춥다. 그들에겐 모포깔린 침상이 생각나고 바람을 막아주는 두툼한 외투가 생각났다. 대대의 가마마차가 굴러오는 소란한 바퀴소리가 생각나고 그우에 국자를 들고 앉아서 휘파람을 불어대던 취사병의 모습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들중 누구도 마음속에 간절한 이 그리움을 입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먹는것,입는것,신는것 그리고 작별한 벗들에 대한 말은 소대장의 명령으로 입밖에 내는것이 금지되여있었다.

기로 역시 병사들로부터 간격이 얼마 뜨지 않은곳에 누워서 달빛을 바라보며 이 모든 그리운것들을 생각했다.

지금에 있어 그들에게 가장 큰 목적은 앞서간 사단이 그러하듯이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곳으로 찾아가는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를 찾아뵙고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을것을 열망하는 그들이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단을 따라잡아야 했다.

하지만 아직 사단은 그들앞에 나타나지 않고있다. 겨우 사단이 통과한 흔적을 발견했을뿐이였다. 수많은 부대들이 통과하며 남긴 이러저러한 흔적물들중에 사단참모장

이 자기 동무들에게 항상 자랑하던 해초뿌리로 만든 담배물부리가 있었다. 그 담배물부리는 어김없이 사단이 이리로 지나갔다는것을 알도록 했다.

종종 그들은 다른 산발을 타고 후퇴중인 인민군부대들이 미제침략군놈들을 벼락치듯 때려부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마다 기로는 그 아군부대들을 만나보려고 찾아갔으나 그 장소엔 녹아난 미제침략군놈들의 땅크나 자동차들이 산을 이루었을뿐 인민군부대들은 벌써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간후여서 볼수 없었다. 이처럼 도처에서 후퇴중인 인민군부대들이 미제침략군놈들의 뒤통수를 통쾌하게 두들겨패고있었으므로 기로와 그의 전우들은 비록 뒤떨어져있기는 했으나 마음은 항상 든든한것이였다. 언제한번 위축돼본적 없는 그들이였다. 그들도 신작로를 횡단할 때나 불가피하게 들판을 지나야 될 경우 적들을 만나군했는데 한놈을 만나면 한놈을, 열놈을 만나면 열놈을 총탁으로 까죽이거나 련발사격으로 모조리 쓸어눕히며 예까지 왔다.

오늘 그들은 신작로가 굽어보이는 산우에서 한참이나 휴식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산밑의 신작로 역시 남으로 가던 때 사단이 휴식했던 장소였다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사단을 그리는 정이 새삼스러워 그들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바로 이 신작로를 따라 사단은 원쑤들을 무찌르며 남으로 갔었다. 대구경포들이 견인차에 매달려 끝없이 남으로 흘러갔고 그 좌우로는 보병들이 또한 물밀듯이 흘러갔다.

그날의 중대는 선창가수의 갈린듯한 목청에 따라 노래를 부르며 물통과 탄띠를 절그렁거리며 앞으로 앞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했건만 지금은 그 신작로를 따라 미제침략군땅크대가 끝없이 북으로 갈뿐이였다.

그 깨끗하던 신작로는 미제침략군놈들의 험상궂은 무한궤도로 하여 파헤쳐지고 길옆의 잎 무성하던 나무들은 태반이나 허리를 꺾이였다.

이것을 굽어보는 그들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로 하여 심장이 불타는듯했다. 이런 증오, 이런 심장을 안은채 이땅에 기여든 원쑤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소멸해버릴것을 몇번이고 곱씹어 결의한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3

밤은 깊어갔다. 락엽들이 우수수 바람에 밀려와서 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병사들은 눈을 떠보군했다. 추위와 복잡한 회상과 굶주림으로 하여 그들은 쉽게 잠들수 없었다.

어딘지 산아래 멀리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선명치 않아서 바람소리를 그렇게 착각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두번, 세번 그 개짖는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왔다.

병사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귀를 기울였다.

기쁜 일이였다. 그것은 자기들의 몸가까이에 집들이 있다는것을 알리는것이였기때문이다.

오랜 기간 산에서 산으로 깊은 수림속을 걸으며 고독에 시달린 그들에게 그 개짖는 소리는 짜릿한 자극을 주었다.

그곳엔 사람들이 살고있고, 추위와 굶주림을 단 한번이라도 면하게 해줄수 있는 먹을것과 따스한 방이 있다는것을 생각했을 때 그들 매개인에겐 그렇게도 참고 참았던 그리움들이 강렬하게 머리를 쳐들었다.

달서가 갑자기 몸을 후닥닥 일으켜세우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는 눈을 번뜩이며 주위에 누운 전우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런 눈과 그런 몸가짐은 7월의 타는듯한 해볕아래서 헤매던 목마른 길손이 우물을 만났을 때만이 할수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전우들은 그의 이런 거동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에 모자를 얹으며 눈을 감았다.

《후유—》

달서가 길게 여운을 남기며 한숨을 내쉬였다. 그 한숨은 고독에 대한 호소며 굶주림에 대한 호소였다. 했을 때 커다란 배석의 손이 달서의 뒤덜미를 잡더니 천천히 끌어다가 눕히려 했다.

《이걸 놓소, 난 참지 못하겠소.》

《거기는 적후야.》

우렁우렁 울리는 배석의 굵은 음성엔 젊은 전우의 걷잡지 못하는 심정을 진정시켜주려는 마음이 섞여있었다.

《그럼 여긴 뭐요? 여긴 적후가 아니란말이요?》

달서는 금시라도 달음쳐갈 기세였다.

《물론 여기도 적후지. 하지만 그 마을과 군소재지는 5리도 못된다네.》

배석은 이곳에 고향을 둔 사람이였다. 그는 개짖는 마을이 여기서 얼마나 멀며 그 마을에 집들은 몇호나 되고 어떤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도 알고있었다. 다만 이 모든것을 말하지 않을뿐이였다.

《내가 가서 먹을걸 구해가지고 오겠소. 난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을테요.》

달서는 벗어놓았던 모자를 집어쓴 다음 기관단총을 바로 메면서 일어섰다. 그리고 산을 내리려고 걸음을 옮겼다.

순간 그때까지도 못보고 못들은척 하고 누워있던 소대

장 기로가 몸을 반쯤 일으켜세우더니 차겁게 달서를 쏘아보며 명령조로 말했다.

《돌아섯!》

달서는 돌아서긴 했으나 선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소대장을 마주 바라보았다. 그는 소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태연하게 얼굴에 받았다.

《돌아오시오.》

예상외로 소대장은 이 한마디를 부드럽게 했을뿐이였다.

《허가해주십시오, 소대장동무!》

달서는 소대장이 뜻밖에도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걸 듣자 아까처럼 태연하게 서있지 못하고 얼굴을 떨구었다.

《나는 허가하지 않을테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실수없이 다녀오겠습니다.》

달서는 끝내 떠나려는것이였다. 그의 결의가 확고하다는것을 알게 되자 기로는 몸을 벌떡 일으켜세우더니 그에게로 다가갔다.

《마지막으로 말하오. 돌아가 눕소!》

소대장의 이 말 한마디로 하여 달서의 숙였던 머리는 다시금 쳐들려졌다.

그리하여 두사람의 시선은 부딪쳤다.

누워있던 두 병사도 일어나서 다가왔으나 불안에 싸여 말 한마디 못하고 서있었다.

소대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던 달서의 눈엔 점차 태연함과 야속스러워하던 빛이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그대신 추위와 고독에 지친 시선이 달빛을 받고 기로를 쳐다보았다.

그의 이런 변화를 알아보자 소대장 기로의 눈엔 물기가 어렸다. 그리하여 두사람 다 마주 쳐다보기를 그만두었다. 달서는 뚜벅뚜벅 걸어서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병사들은 다시 잠자코 누워서 눈을 감았다.

개짖는 소리는 또다시 이 병사들중 그 누구를 시험해보려는듯 들려왔다.

기로는 누워서 성긴 나무가지사이로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 반짝이는 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무겁고 침통한 기분에 잠겨버린 그는 어제를 생각했으며 또 래일을 생각했다.

방금전에 그는 벌써 여러 차례 겪었던 일을 다시 한번 겪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몇번이나 겪게 될는지 모를 일이였다. 그때마다 그는 이처럼 하늘을 쳐다보며 조국과 불타는 산야와 헤여진 전우들 그리고 함께 가는 전우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침통한 기분에 잠겨지는것이였다.

중대가 최후의 결사전에로 나간 그밤에 그는 이 세 병사를 인솔하여 산속깊이 들어왔다.

그들중 자기가 유일한 지휘관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이 크지는 않으나 매우 귀중한 대렬을 책임지고 어버이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로 찾아가야 된다는 무거운 임무를 스스로 감당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번개치는 밤, 우뢰가 울고 굵은 비를 실은 떼장구름이 머리우에 내려앉는듯한 때도 그는 대렬을 북으로, 북으로 이끌어왔다.

그것은 고된 날들의 련속이였다. 해지는 석양녘의 시장기와 동틀무렵의 긴장, 횡단로상에서 부딪친 미제침략군놈들과의 격투를 몇차례씩 겪어야 되는 간고한 날들이였다.

전선이 어데서 어디로 옮겨갔는지, 자기들이 지금 넘고있는 산 다음엔 어떤 길이 있고 거기서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있는지도 모르며 걸어온 그들이였다.

때로는 절망이 그들에게 남은 최후의 무기인 용감성을 앗아가려고 위협했다.

그때마다 기로는 자신과 병사들의 용감성을 삼켜버리려는 절망을 쫓기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휘관이란 고상한 칭호는 슬픔, 고통, 필요하다면 기쁨까지를 묵새겨버릴수 있는 사람에게만 차례진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만일 가고가고 또 가다가 길이 막혀버리면 어디서건 독자적으로 원쑤들과 생명이 붙어있는 마지막순간까지 싸우도록 그는 자신과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때문에 그는 자신과 병사들을 무한히 귀중하게 여겼다. 또한 그것으로 하여 병사들과 자신에게 엄격했고 철저한 규률을 요구했다. 방금전의 경우도 그런것이였다.

개짖는 소리를 듣자 달서가 긴 한숨을 내쉬였다. 달서의 그 한숨은 준보의 한숨일수도 있었고 배석이와 그 자신의 한숨일수도 있었다. 그 한숨은 이렇듯 그들모두의 굶주림에 대한 호소며 고독에 대한 항거이기도 했다.

했으나 기로는 이 모든것이 자기들에게 더없이 해롭다는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경우에 대렬을 나약성과 무규률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랭정성만이 필요하다는것을 알았다.

병사들은 잠들었다. 개짖는 소리만은 여전히 들려왔다. 인제 와서는 그 개짖는 소리를 기로와 아직껏 잠을 이루지 못한 달서만이 들었다.

《달서동무는 무엇을 생각하오?》

기로가 묻자 달서는 대답하기 위하여 몸을 일으켰다.

《누운대로 대답해도 좋소.》

달서는 다시 눕더니 하늘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우리의 목숨은 파리나 하루살이의 생명이 아니라 조국의 생명이라는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규률을 위

반했던 락동강의 밤을 회상했습니다.》
달서의 대답엔 정중성이 느껴졌다.
《어떤 규률위반이였소?》
《남대안근거지점령 전투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명령없는 사격을 하여 중대행동의 은밀성보장에 지장을 주었더랬습니다. 자칫하면 적들에게 중대진지를 폭로할번했습니다.》
달서는 그 포성이 밤새 울리던 불타는 락동강에서의 일을 하나도 잊지 않고있었다.
기로 역시 그날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머리우에 번갈아 매달리는 조명탄들이 그늘진곳 하나없이 밝히고 적들의 포탄과 기관총탄은 병사들의 눈앞과 귀밑으로 쉬임없이 날았다.
부서진 쪽배들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포탄이 말아올리는 물기둥에 감기여 대안에 던져지고 아군포병대에 얻어맞은 적들의 장갑차가 산산이 헤쳐졌다.
근거지점령도하대의 병사들은 물우에 머리를 내밀기조차 어려웠건만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미제침략군 비행편대들이 쏟아붓는 폭탄속을 헤치고 첫 상륙대가 발가벗은 남쪽대안에 올랐을 때 증파된 미제침략군 보병들이 발광하듯 그리로 덮쳐들었다. 첫 상륙대의 영웅들은 뒤따라 오른 상륙대들이 발붙일 진지를 굴설하기까지 적들을 단독으로 맞서 힘겨운 전투를 했다.
두번째로 대안에 오른 기로네 중대는 진지굴설에 착수했다. 멀지 않은 지점에서는 그때까지도 첫 상륙대의 영웅들이 적들의 시선을 자기들한테서 떼내지 않으려고 죽음을 각오한 결사전을 진행하고있었다.
그때 달서가 그 린접지점의 영웅들을 돕기 위하여 련발로 사격하기 시작했다. 순간 그는 보다 큰 목적이 중대앞에 있다는것을 잊었었다.
사단전체가 강을 건너오기전에 중대진지를 적들에게

드러내보일번한것은 이때의 일이였다. …

《생각나오, 달서동무.》

조국의 생명, 정말 그 전투끝에 진행된 모임에서 누군가가 달서의 규률위반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 혁명하는 길에 나선 병사의 생명은 파리나 하루살이 목숨처럼 무의미하게 내놓을수 없다.

아직껏 달서가 그밤의 락동강과 전투와 모임들을 기억하고있는데 대하여 기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했다.

《그런 일은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동무들이 정당하게 비판해준것처럼 저에겐 혁명하는 전투원으로서의 수양이 부족합니다. 오늘밤도 지휘관과 전우들을 괴롭힌것으로 하여 가슴이 답답합니다.》

달서의 음성은 약간 떨렸다.

《인젠 잠드오. 래일 우리는 퍽 많이 걸어야 될것 같소.》

잠시후엔 달서마저 잠들었다. 기로만이 잠들지 못하고 누워있었다.

갑자기 준보의 높은 잠꼬대가 들렸다.

《이걸 큰놈께 입혀보오.》

무엇을 입혀보라는걸가? 누가 누구에게? 준보는 분명 꿈속에 있었다. 그 꿈은 머나먼 성천강변의 한 마을로 준보를 실어갔다.

준보는 항상 그 마을과 안해와 애들을 전우들에게 자랑했다. 어떤 전우가 그에게 안해와 애들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건 열적은 일이라고 일깨워준바도 있건만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랑하기를 즐겼다.

그래서 중대성원들은 누구나 준보네 그 인심좋은 마을과 남편보다 못지않게 힘이 셀뿐만아니라 동리에서 제일 맛좋게 김장을 담글줄 아는 그의 안해를 알고있었다. 그리고 감자를 구워먹기 좋아하는 큰애와 아직은 밤을 구워먹는 방법을 잘 몰라서 화로에 밤알들을 그냥 넣었다가 튀는바람에 큰일을 저지를번했던 작은아이도 잘 알고

있었다.
《좋은 고장이라네. 전쟁이 끝나면 한번씩 놀려들오게.》
그가 이렇게 말하면 동무들은 읍으로부터 십여리쯤 떨어진 마을인 그의 고향에 진정으로 가보고싶은 충동을 받군했다.
중대병사들중 개를 기중 많이 키워본 사람도 준보였다.
장날이면 읍으로 가서 볼일을 본 다음 친구들과 술잔이나 얼근해지도록 마시고 달빛이 깔린 길로 흐뭇한 기분에 잠겨 돌아오던 그였다.
그 길가엔 광복이 되여 분여받은 준보네 논 3천평이 있었다. 그 논을 지나면 마을앞을 막은 고개가 나졌다.
마을앞 고개턱에 올라서면 자기 집이 면바로 내려다보이고 그 수수깡울바자안에서는 마당을 지키고있던 개가 반갑게 짖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을 반기는 개를 얼쓸어주면서 안해와 어린것들이 얼굴을 내밀어주는 문턱을 넘어서며
《자, 이걸 큰놈께 입혀보오.》
하고 여기저기 상점을 돌아다니며 고르고 골라서 사들고 온 아들의 옷을 꺼내며 기뻐하는 안해와 애들을 바라보던 그였다.
지금 준보에겐 그때의 추억이 산아래마을에서 들려오는 개짖는 소리와 련결되여 꿈으로 되살아나고있다.
철따라 각색 꽃들이 마을을 장식하고 사변이란 별로 큰것이 없어서 밤나무집이라고 부르는 집의 둘째아들 일수가 배나무집이라고 부르는 집의 맏딸 순이를 데리고 도시로 《달아난 일》을 큰일처럼 떠들어대는 마을이였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마실군들은 화로언저리에 둘러앉아 옛이야기를 한마디씩 했다. 아버지를 잡아간 범을 복수하고저 효성 지극한 세 형제가 범의 소굴을 찾아

간 이야기도 했고 광복전 최지주네 머슴군이였던 마당쇠가 군대의원이 된것을 제일처럼 자랑하는 이야기도 했다.
화평스럽던 마을이였다.
준보는 난생처음으로 집을 떠나본 사람이였다.
《이걸 큰놈께 입혀보오.》
준보의 잠꼬대는 계속되였다. 기로는 이 순진한 병사가 지금 누구와 말하는것인지 알고 소리없이 웃었다.

4

아침에 리배석이가 없어졌다. 잠에서 깬 일행은 배석이가 없어진것을 알자 예정대로 떠날수가 없었다.
배석은 대렬을 떠나면서 글쪽지 하나를 남겼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있었다.
《집에 들렸다가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기로는 그 글쪽지를 묵묵히 들여다보다가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오래동안 그들은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들중 몸집이 기중 우람차던 배석의 모습이 없어지자 대렬의 어느 한 구석이 휑하니 빈듯한 느낌을 주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해는 높이 떠서 설핀 수림속으로 가을날의 밝은 빛발이 비쳐졌다.
세 병사는 이제나저제나 하는 초조한 마음으로 제각기 목을 빼들고 앞을 살폈다.
그들의 이런 기다림은 한낮이 될 때까지 계속되였지만 허사였다.
배석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놈들에게 발견되지나 않았을가요？》

달서가 침울하게 이런 말을 하면서 소대장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달서의 이 말은 그 누구의 응대도 받지 못한채 허공에 떠서 어색한 분위기만을 환기시켰다.

이런 분위기는 기로가 입을 열 때까지 계속되였다.

《참을성있게 기다려봅시다.》

그러자 이번엔 준보가 차마 입밖에 내기 어렵다는듯 주저하다가 자기 의견을 내놓았다.

《인젠 늦은것 같습니다. 올 사람 같으면 벌써 왔을 겝니다.》

준보는 이 말끝에 나직이 긴숨을 내쉬였다. 그의 이 긴 숨소리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것이였다. 누구보다도 조심스러운 준보는 오랜기간 함께 싸워온 전우의 신변에 불행한 일이 생긴것 같다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나타낸것이다.

그렇다고하여 그의 이런 생각을 탓할수도 없는것이였다. 옮겨놓는 걸음마다에서 원쑤들과 맞서야 되는 그들이였다.

원쑤를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죽는 그런 준엄한 적후길에서 걷고 자고 깨는 지금 홀로 떠나간 배석이가 제시간에 돌아오지 못했다는것은 그 어떤 불길한 징조를 예감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는것이였다.

더구나 배석은 이 고장 사람이였다. 때문에 그의 얼굴을 모를 사람이 이 근방엔 거의 없을것이니 그만큼 식량공작은 조심스러울것이였다.

비록 과거생활이 기구하여 오늘은 여기, 래일은 저기로 품팔이판을 찾아 떠돌아치지 않으면 안되였던 배석이였으나 이 고장 사람치고 그 누가 배석이를 모르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세사람은 더욱더 엄숙한 기분에 잠겨졌고 초조해졌다.

기로 역시 병사들에겐 참을성있게 기다려보자고 했으나 불안한 기색만은 숨기지 못하고있었다.

지휘관인 그에겐 돌아오지 못하는 병사의 신변에 닥칠 수 있는 온갖 불행한 경우들이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졌다가는 사라지군했다.

적군 한개 중대나 그이상의 놈들에게 포위된 처지에서 최후의 탄환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배석이가 그려지는가 하면 놈들의 발악적인 고문으로 하여 피투성이가 된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배석이가 그려지기도 했다.

기로는 이런 경우들을 그려보다가 문득 자신의 신경이 약해지는데 화가 나서 채찍질이나 하듯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섰다.

《배석동무는 결코 잘못될수가 없다.》

기로는 혼자소리로 이 말을 했으나 그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울려서 곁에 앉았던 달서나 준보도 들을수 있었다.

기로는 진심으로 배석이가 잘못될수 있으리라고는 믿고싶지 않았다. 배석은 기로와 함께 멀고먼 남진의 포연속을 뚫으며 백번 넘어졌다가도 백번 일어서며 눈앞에 나타나는 원쑤들을 소멸한 전우였다.

배석이가 군인선서를 하고 한사람의 병사로 된 날부터 기로는 그의 소대장이였다.

기로는 소대장으로서 다른 모든 병사들에게 그러했듯이 항상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대하였다.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아서 심장을 뛰게 하는 한 수령과 조국을 위하여 원쑤들에겐 무자비하게 싸울줄 아는 병사가 되도록 그를 교양했다.

또한 인민들에겐 더 없이 공순한 충복이 되도록, 전우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그를 교양하였다.

비단 정신적으로만 일당백이 되도록 그를 교양했을뿐 아니라 판가리결전에 나선 일당백의 병사가 지녀야 될 육체적인 능력과 전투기술을 소유하도록 그를 훈련

시켰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모든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들이 망각의 강물속에 잠겨진다손치더라도 그가 자기 소대의 병사들을 수령의 충실한 전사로 키우기 위해 애썼던 일들만은 결코 그 강물속에 들어갈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의 땀과 지성으로 키웠을뿐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유기체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는 병사의 불행을 믿을수 없는 기로였다.

(기다려보자. 배석동무는 돌아올것이다. 죽음이 비록 걸음마다에 휘감겨드는 어려운 처지에 들게 되더라도 배석동무는 원쑤들을 무찔러버리고 돌아올것이다. 아무리 준엄한 혈전의 길이라 하더라도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간 병사의 청을 어길수는 없다.

내가 만일 이대로 떠난다면 지휘관으로서의 나는 혁명적의리를 저버리는것으로 된다. 모든 곤난, 모든 위험속을 뚫고 배석동무는 돌아올것이다.)

그다음은 기로도, 달서도, 준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전우를 두고 생각에 잠겨 앞만을 바라보고있는 그들의 침묵은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병사들은 이 오랜 침묵속에서 자기들이 처한 지금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다시금 깨닫는듯 심중한곳으로 생각이 미쳐지기까지 했다.

그 생각은 무겁게 심장마다에 들어찼다가 종당에는 그들모두에게 약속이나 한듯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도록 요구했다.

《너는 조국을 위하여 영원히 이런 험악한 산길이라도 갈수 있는가? 잘곳이 없고 먹을것이 없으며 입을 옷이 없어도 뒤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보다 더욱더 어려운 정황속에서 단독으로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원쑤들과 맞다든다해도 쓰러지며 피흘리며 불사신처럼 싸워 이길수 있는가?》

병사들은 묵묵히 앞을 쳐다보면서 이 의미깊은 질문에 대답해보았다.

침묵… 침묵…

병사들의 침묵은 좀처럼 깨뜨려지지 않았다.

기로는 이 무거운 침묵을 깨치며 병사들쪽을 향하여 돌아섰다.

《동무들은 배석동무가 원쑤들의 총탄에 쓰러졌다고 생각한단말이지？…》

기로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두 병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했을 때 달서가 먼저 대답했다.

《저는 지금 다른것을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한 도시에서 만났던 외국사람을 회상했더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였소？》

《불쌍한 축구선수였습니다.》

달서는 그 불쌍한 축구선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거기서는 10여개국 축구팀들이 대전하게 되였습니다. 모두가 강팀들이였고 이름있는 선수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중에서 출중하게 자기 기교를 드러내여 사람들을 놀래운다는건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딸리아팀 우익공격수 한사람만은 특별히 놀랄만한 기교를 보여주었더랬습니다. 비상한 속도에 비상한 재간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슛〉거리에서 그의 발에 뽈이 닿으면 그땐 벌써 〈꼴〉, 〈꼴〉하는 함성이 오르군했습니다. 왼발,바른발,앞머리,뒤머리로 뽈을 다루는가 하면 허리에서 뽈이 감돌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승자전 제2일에 브라질팀과 그 이딸리아팀이 대전하게 되였습니다. 그 우익공격수는 언제나 중앙선을 타고있다가 번개처럼 달려들군했습니다. 몇번이나 브라질팀의 문지기는 그 사람의 유도에 걸려 꼴문을 비우고 나갔다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면하군했습니다.》

달서의 이야기는 흥미있는것이였다. 하나 그들이 처한 지금의 경우에서 축구팀들의 이야기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의 발밑 신작로로는 적군 땅크와 포차들이 밀려가고 하늘엔 놈들의 비행편대들이 낮게 떠서 수색하고 있다. 당장 다음 끼니를 에울것이 없고 잠잘곳조차 마련되여있지 않는 그들이였다.

게다가 놈들이 자기네들을 향하여 포위선을 압축하면서 다가들고있는지도 모른다.

한 전우는 이런 고통을 덜기 위하여 먹을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으나 어찌되였는지 알길조차 없다.

이러한 때에 축구팀들의 이야기라니 너무도 이상하지 않은가.

평화로운 시절의 일요일을 생각케 하는 축구시합, 활짝 열어놓은 집집의 창문마다에 펄럭이는 문보와 시원한 청량음료를 그려보게 하는 이야기다.

골목마다에서 애들이 풍선을 띄우고 잘 차려입은 녀인들이 가로수그늘을 받으며 천천히 가극이나 연극을 보러간다.

도시의 생활은 정상적으로 흐르고있다. 저쪽 담벽엔 경기장광고가 나붙고 이쪽 담벽엔 방금 내다붙여서 색갈하나 날지 않은 극장광고가 보인다.

도시청년인 장기로에겐 달서의 이야기로 하여 이 모든것이 회상되였다.

평양서 나서 거기서 자란 기로는 일요일의 명절같은 거리풍경을 잘 알고있었다.

《뭣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는거요？》

기로는 달서가 그 시절을 회상하고있는데 상관으로서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만일 그가 지금처럼 곤난한 때에 그 풍족하고 즐거웠던 전쟁전의 날들만을 회상한다면 강철처럼 굳어야 될

적후병사의 심장에 허용해서는 안될 또 다른 심장이 발을 붙이려 할것이다.

그래서 기로는 책망조로 말했던것이다.

《저는 지금 조국이 없는 민족이란 얼마나 불행한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소대장의 책망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알자 달서는 보다 더 심각한 어조에 심각한 얼굴표정을 지었다.

《후반전에서였습니다.》

달서는 하던 말을 계속하려고 했다.

했을 때 준보가 좁은 나무짬새를 빠져 달서의 곁으로 바싹 다가오려다가 의복이 걸려서 비칠렁거리더니 겨우 몸을 바로세웠다.

뚱뚱한데다가 느려서 자주 이런 곤경을 겪어야 되는 그였다.

준보도 지금 달서의 말을 들으며 고향땅의 축구시합을 생각했다.

국제축구시합을 한번도 본 일이 없는 그였다. 그가 본 축구선수들이란 면선수들과 리선수들이였다. 그건 뒤집 윤철이나 아래마을 논김 잘 매는 경팔이들이였다. 농한기인 겨울이 되면 논판에서 축구시합이 벌어지군했었다. 장대로 문을 만들고 똑같은 차림새의 다른 마을선수들과 대전했었다.

벌판은 축구시합을 보러 나온 구경군들로 가득차군 했다. 준보도 이때면 《큰놈》을 데리고 나가서 윤철이도 불러보고 경팔이도 부르면서 목이 터지게 응원했다.

그래서 준보는 달서와 처음 만났을 때 입대전 직업이 축구선수란 말을 듣고 한참이나 있다가

《아니, 본직업이 뭔가말이요?》

하고 물었었다.

《본직업이라니요?》

이번엔 달서가 한참이나 있다가 뜻을 잘 리해 못해서

물어보았다.

틀림없이 준보는 그때 달서를 윤철이나 경팔이쯤으로 알았던 모양이다.

《전반전에서 득점이 없었던 이딸리아팀은 후반전에서 총공격에로 나왔습니다. 그 우익공격수의 활동은 맹렬했습니다. 원거리 〈슛〉에서 여러번 실패한 그는 뽈만 잡으면 근거리접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애쓰던 그는 한번 브라질측의 빽선을 돌파하고 단독으로 문앞까지 들어왔더랬습니다. 몹시 당황했던 브라질팀의 문지기는 손을 내밀 겨를이 없어서 맞받아나가며 그의 발과 뽈우에 육박하듯 쓰러졌습니다. 그다음은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높았습니다. 그 브라질팀의 문지기가 기적적으로 위기에서 뽈을 뽑아냈던것입니다. 이딸리아팀 공격수는 중상을 입은채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다음날은 나도 경기도중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옆침대엔 그 이딸리아팀 우익공격수가 누워서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틀동안 가지런히 누워서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건 이딸리아팀 공격수가 이딸리아말을 하나도 모르는것이였습니다. 알고본즉 그 사람은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어느 이름없는 나라의 청년이였습니다. 그날 축구시합이 있었던 도시의 신문들에서는 브라질문지기의 초상을 내고 간단한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드물게 보는 문지기다. 그는 피엔숀(그 국적없는 공격수)의 주인으로 하여금 피엔숀의 봉급을 깎아내릴 구실을 만들어준 유일한 문지기였다. 피엔숀은 여섯번이나 슛했는데 이 문지기에 의해 하나도 그물에 걸리지 못했다.〉

밤에 그 피엔숀은 울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의 봉급이 내려갈것을 생각하며 그는 울었습니다. 통역원을 통해 알았는데 그는 이 나라 저 나라 축구상인들에게 팔려

다니면서 고향에 있는 늙은 어머니와 두 녀동생의 생활비를 마련하여 보낸다는것이였습니다. 나 역시 그때 울었습니다. 조국없는 이 사나이를 보면서 지난날의 내 선배 체육인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역시 일제의 식민지체육인으로서 피엔숀보다 못지 않은 비극을 겪었던것입니다. 오늘은 이딸리아로, 래일은 대양 건너 남아메리카의 어느 축구팀으로 팔려다니는 피엔숀, 그러다가 늙고 병들면 어느 타관땅의 려관에서 외상으로 먹은 밥값때문에 몽둥이매를 맞고 한많은 세상을 등질 피엔숀이였습니다. 조국이 없다면 나 역시 피엔숀처럼 이리저리 팔려다니며 오늘은 유럽 어느 한 팀의 문지기, 래일은 또 다른 대륙의 어느 한 팀의 문지기가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조국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독립국의 개보다 못할겝니다. 〈조국을 귀중히 알라. 조국이 없을 때 너도 없다.〉 우리 축구선수들은 누구보다도 이 말의 뜻을 잘 리해하고있습니다.》

달서는 말을 끝맺었다. 말을 끝맺을 때 그의 눈에서는 광채가 번득였다.

《임자 말이 옳네. 나 역시 소작살이할 때엔 개처럼 지주에게 뺨을 맞었다네.》

준보가 허리에 맨 혁띠를 좀더 안쪽으로 졸라매면서 그처럼 가깝게 지냈던 배석을 생각하며 말하였다.

이러는 사이 저녁때가 되였다. 침묵과 안타까움속에서 또 하루 곤난한 적후의 시간은 흘러갔다.

배석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기로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병사들을 본래의 위치로부터 좀더 은폐된 산속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자신은 앞이 트인 산마루에 올라가서 멀리 마을쪽을 바라보았다. 행여나 배석이가 오는 모습을 보지 않을가 하고 고대하는 마음때문이였다. 만일 배석이가 돌아온다해도 어둡기를 기다려 올것은 자명한 일이였으나 그래도 기다리는 마음은 초조한것이였다.

소대장이 산마루에 올라가고 두사람만 남게 되였을 때 달서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특무장동무！》

이것은 준보를 부르는 다른 칭호였다. 네사람이 남게 됐을 때부터 그들은 준보를 이렇게 불렀다. 사실상 그는 특무장이 하는 일을 하고있었다.

《뭘 좀 먹을걸 공급해야지 배가 고파 견디겠소？》

《동무는 왜 명령을 어기나？ 먹는 얘긴 못하게 돼 있지 않나？》

준보는 달서를 정색해서 나무람했다.

그러나 달서는 그의 정색하여 하는 나무람을 롱담으로 대하였다.

《촌뜨기아저씨는 할수 없군. 규정에 잠자라는 말이 없으면 잠도 안잘텐가？》

달서는 유쾌하게 웃어대면서 휘파람으로 체육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했으나 그는 인차 휘파람소리를 그쳤다. 적후라는 달갑지 않은 생각이 이 명랑한 사람을 조심하게 했다.

준보는 달서가 촌뜨기아저씨라고 불러준데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으나 먹을걸 공급해달라는 그의 요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있었다.

특무장임무를 수행하며 적후행군을 계속하는 기간 그는 항상 전우들의 먹을것을 책임져왔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배낭속엔 아무것도 남은것이 없었다. 소대장의 명령으로 배석이를 위해 남긴 떡 하나가 있을뿐이였다.

아직까지는 적들의 발이 미치지 않은 산속마을들을 만날수 있었다. 그때마다 병사들은 푸근하게 쉴수 있었고 아무리 사양해도 살뜰한 할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준보의 배낭이 팽팽하게 튕겨질 정도로 식량을 넣어주었다.

그런데 인젠 그 배낭속이 텅 비게 되였고 적이 발을 들여놓지 않은 마을은 나타나지 않고있다.

세사람 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이것을 크게 념려하고 있었다.
어쩌면 한끼의 식량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될 막다른 길에 들어설는지도 모를 일이였다.
적들은 산속으로 후퇴하는 인민군의 개별부대들이 인민들과 련계를 못가지게 하려고 산간마을들에 무력을 증강하고 봉쇄하는 작전을 진행하고있었다.
해가 지려고 했다. 가을날의 해질무렵은 언제나 아름다왔다. 멀리 서쪽 산너머로 떨어지며 던져지는 찬란한 해발은 타는듯한 빛으로 나무와 산들을 물들여주었다.
산마루에서 내려온 기로는 병사들이 있는 양지쪽에까지 와서 그들과 나란히 앉은 다음 해지는 서쪽하늘을 쳐다보았다.
세사람의 얼굴엔 찬란한 해발이 함뿍 실려서 그들의 모습을 한결 더 두드러지게 했다.
그 찬란한 빛은 맑은 눈동자가 조용하게 움직이는 소대장의 얼굴에서 무거운 색을 덮어버리며 천진한 꿈을 지니고 교문을 드나들던 대학생의 모습을 되살아나게 했다.
또한 그 찬란한 빛은 항상 거만하게 무엇이건 깔보듯이 움직이는 달서의 자신만만한 눈동자에도 비쳐져서 전날의 꼴문 한복판에 의젓하게 서있던 소문난 문지기의 당당한 넓은 얼굴도 알아보게 했다.
《소대장동무에게 한마디 말하랍니까?》
준보가 기로를 쳐다보며 굼뜨게 띠염띠염 입을 열었다.
해별은 이 뚱뚱한 병사의 얼굴에도 비쳐져서 세상엔 법이 있어 죄지은 사람을 단속하는지조차 모르고 살던 선량한 남편이며 아버지인 시골농군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
《무슨 말이요?》
기로는 특무장의 직무를 스스로 감당하고있는 그가 그 직무에 관계되는 말을 할 때만 이처럼 띠염띠염 생각

을 앞세워가며 말한다는것을 알았다.

《오늘저녁은 무엇으로 끼니를 에워야 합니까?》

《…》

준보의 물음에 기로는 대답하지 못했다.

《산짐승이라도 한놈 잡을가요?》

준보의 두번째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던 기로는 갑자기 두 병사가 이상하게 생각하리만큼 희망을 주는 어조로 말하였다.

《어두우면 배석동무가 해결해가지고 올는지도 모르겠소.》

《…》

준보와 달서는 소대장의 이 말을 듣자 믿어지지 않는듯 지휘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두 병사는 소대장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간 병사가 대렬을 찾아 기어이 오리라는것을 믿고있는 표정을 보았다. 그 표정은 자기가 보낸 련락병이 돌아오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던 평소의 그런 표정이였다.

두 병사는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병사를 기다리는 자기네 소대장의 지나친 완강성을 딱하게 생각했다.

순간 병사들이 마음속으로 자기의 이 완강성을 딱하게 생각한다는것을 알아챈 기로는 일어서서 두 병사에게로 몸을 돌린 다음 결단성있게 말했다.

《동무들,배석동무는 돌아올거요. 우리는 전우의 불상사를 생각할것이 아니라 원쑤들의 죽음을 생각해야 하오. 우리가 **김일성**장군님의 참된 전사라면,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인민군병사라면 적들속으로 들어간 전우의 생사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갈수는 없소.

오늘밤까지 기다려봅시다.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할수있는 방법을 다하여 확인해봅시다.》

해가 지자 산속은 어둡기 시작했다.

세사람은 추위와 배고픔을 잊으려고 몸에 몸을 잇대고

앉아서 산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5

사단의 부상병집단이 멸악산줄기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잡은채 움직이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은 장기로 소대원들이 배석이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산과 이웃하여있었으나 무성한 나무로 가리워져서 서로가 알길이 없었다.

처녀군의 윤례영이가 이 부상병대렬을 책임지고있었다.

사단은 이리로 지나면서 힘에 겨운 전투를 세번이나 했는데 그때 사단병원의 부상병대렬을 일부 이곳에 남기고 떠나야 했다.

움직일수 있는 부상병들은 사단병원의 기본성원들과 함께 전투대렬을 따라 떠나가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상자들만이 여기서 담가대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군의 윤례영과 준의 박경숙이가 사단장으로부터 이곳에서 담가대를 보낼 때까지 부상병들을 돌보며 남아있을 명령을 받았다. 또한 한개 분대의 전투원들이 그들을 위해 남았다.

부상병들은 스물두명이였다.

사단장은 떠나면서 이 두고가는 병사들을 위해 사단이 휴대한 식량과 약품의 태반을 여기에 남기도록 했으며 반지하병실을 쓸모있게 꾸려주도록 명령했다.

부상병들은 담가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막힌 이 함지골(실은 무명골짜기였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단 담가대는 오래도록 오지 못했다. 앞으로도 언제쯤 오게 될는지 짐작키 어려운 형편이였다.

더구나 그들의 처지를 어렵게 만든것은 함께 남았던

한개 분대의 전투원들이 식량과 약품탈취를 위한 적군 도로, 적군 병영 습격전을 거듭하는 사이 희생되였거나 부상당하여 본래의 부상병들처럼 입원하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인제는 활동할수 있는 전투능력을 지닌 분대병사들중 세사람만이 남게 되였다. 그런데 그들마저 멀리 떨어진 지대로 부상병들을 위한 월동용 솜을 구해오기 위하여 떠나갔다. 처지는 이러했으나 사단 담가대가 약속한 날자에 오지 못한다 하여 그 누구도 원망이나 불평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전쟁이 뭐인지 알고있는 그들은 오직 사단의 전투행로가 무사할것을 바랄뿐이였다.

얼굴의 전부를 붕대로 감은 병사나 왼발을 탄환에 관통당한 병사도 아픔을 참으면서 인내성있게 사단 담가대를 기다리고있었다. 만일 구원대의 도착이 있기전에 적들의 기습을 받게 되더라도 순결한 최후를 마칠 각오로 충만되여있는 그들이였다.

그들이 소지한 무장 역시 빈약한것이였다. 군관들인 두 치료성원은 권총을 휴대했고 나머지 부상병들은 수류탄을 간직했을뿐이였다.

이 부상병집단의 하루하루는 불안속에서 흘러갔다.

스물여섯살의 녀군의 윤례영은 떨어져가는 식량과 약품을 근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군했다.

앞으로 이틀분의 식량이 남았고 아스피린정도의 긴요치 않은 약품이 남았을뿐이였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처녀군의는 앞으로 닥칠 어려운 처지를 그려보며 남몰래 울었다.

밤중에 동통을 더는 참지 못하여 한 공병하사가 군의를 불렀다. 그 하사는 중상당한 옆구리를 누르면서 아픔을 참느라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말했다.

《군의동무는 제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더는 없습니까?》

《…》

《그렇다면…》

이때 이 공병하사의 곁에 누운 전우가 성난 소리로 그의 다음 말을 막아버렸다.

《참아라, 참아！》

례영은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광경으로 하여 전기에 부딪친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런 일은 가끔 반복되였다.

어떤 병사는 진종일 누워있는것이 안타까와 남몰래 몸을 일으켰다가 지탱하지 못하고 병실의 문턱밖으로 굴러떨어지고는 가슴을 쳤다.

례영은 이 모든 광경을 눈물에 젖어 바라보다가 준의 박경숙을 데리고 병실밖으로 나왔다.

《이제부터는…》

하고 그는 부상병들이 자기 음성을 듣지 못할 거리에 이르러 말했다.

《진통제를 모든 약의 대용품으로 사용하겠어요. 이건 기만이지만 필요한 일이예요.》

사실 이것은 얼마간의 효력을 나타냈다. 그런데 그 백가지 약의 대용품도 마지막 한알까지 써버렸다. 인제는 군의나 준의에게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게 되였다.

군의 윤례영은 결국 여러차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것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그것은 마을을 찾아 산에서 내려가보자는것이였다.

윤례영은 병사들의 말을 빌면 《독한 녀자》이다.

그의 이런 별칭은 사단산하의 모든 병사들에게 알려져있었다. 물론 이것은 포탄이 광란하는속에서 부상병들을 침착하게 처치한데서 온 이름이다. 또한 그의 사랑을 쟁취해보려던 사단의 어떤 군관도 그를 이렇게 불렀다.

준의 박경숙은 군의의 결심을 듣자 크게 놀란 시선으로 바라보더니

《그런 모험은 그만두는게 좋지 않을가요? 어떤 마을에서나 적들이 우리를 기다릴거예요. 곤난하지만 사단 담가대를 기다려보기로 합시다.》

《그건 더 막연해요.》

《그래도 그 방법만이 안전하지 않아요?》

례영은 길다란 병실의 한옆을 따로 막은 처치실로 되돌아와서 골짜기가 석양빛에 물들여지는 광경을 침울한 시선으로 내다보며 앉아있었다.

(사단은 지금 어데 있을가? 그리운 전우들은 이 시각에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하고있을가?…

그리고 날마다 기다려지는 담가대는?…)

례영의 눈앞엔 부상병들을 맡기고 떠나던 날,언제나 친부모처럼 자애롭고 믿음가던 사단장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항일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그이의 전사로서 헤쳐온 사단장이였다.

항상 그분들이 곁에 있어 힘이 되고 의지가 되던 례영이,이제 와서 자기가 이 부상병집단의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 믿음과 힘이 얼마나 컸던가를 새삼스러이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정말 그분들이라면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어떻게 하였을가?)

가슴 무거워지는 례영의 뇌리엔 사단장이 자주 들려주던 항일투사들의 영상이 펼쳐지는것이였다.

…한번 길을 잘못들면 동서남북조차 가려내기 어려운 밀림속 수백리,그런가 하면 가도가도 끝없는 무인지경 수백리 벌판,쌓이고 덧쌓인 눈이 키를 넘는 만리광야.

오늘은 여기서 왜놈들을 족치고 래일은 저기서 원쑤들을 쳐부시며 항일투사들은 조국광복을 위해 싸웠다.

만리광야의 넓으나 넓은 땅 그 어데고 의로운 선렬

들의 피가 스며들지 않은곳이란 없었다.

때로는 두세사람씩 부상을 입고 대렬을 떨어져야 했다.

밀림속 바위굴에서 찬돌을 베개삼아 하루를 보내고 한달을 보내는 그분들은 굶주림을 이겨내며 혁명전우들을 기다렸다. 간혹은 봄 가고 여름 가는 기나긴 날이 흘렀어도 그분들은 변함없이 전우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왜놈들이 앞뒤를 싸고돌며 시각마다 위협하고 굶주림은 극도에 이르러 짐승들이 달려든다해도, 움직일 기력조차 잃었건만 그분들은 절망을 몰랐다.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답게 혁명의 승리를 믿었고 전우들을 굳게 믿었다.

죽음도 이 강한분들을 정복하지 못한채 주위에서 에돌다가 물러서고 전우들은 그분들의 믿음 그대로 어김없이 찾아오군했다.

지칠대로 지친 몸이여서 이 나무에 의지하여 저 나무로 옮겨가고 거기서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 다음 나무에 의지하면서도 그분들은 혁명에 바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살며 싸우며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국광복을 위하여 이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줄 알았던 항일투사들, 그분들은 강철같은 의지의 소유자들이였다. …

사단장은 여기를 떠나면서 부상병 한사람한사람에게 조국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고 몇번이고 말했었다.

그때 사단장은 례영의 손을 특별히 오래동안 쥐고있었다. 전투장에서 일생을 보내다싶이한 사단장은 이곳에 부상병들을 남기고 떠나는것을 더없이 괴로와했다.

《동무를 믿소.》

사단장은 자기의 딸과 흡사한 나이의 이 처녀군의에게 많은 말을 하고싶었으나 이 한마디만 했을뿐이였다. 하지만 그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지금은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시기요. 이런 시기엔 사단의 행군로가 지정돼있지 않소. 례를 들면 평양서 떠난 급행차가 함흥을 거쳐서 청진으로 가는것처럼 지정된 지점들을 약속된 시간에 통과하지 못한단말이요. 사단은 산으로도 가야 하고 들판으로도 가야 될것 같소. 담가대를 보낼 때까지 동무가 희생적인 동지애로 이 부상병들을 돌봐주기 바라오.》

사단장은 비록 이 말을 입밖에 내지 않고 떠났으나 례영은 사단장이 바로 이 말을 자기에게 하고싶어했다는것을 알아맞혔다.

틀림없이 그의 마지막 시선은 이런 말을 대신했었다.

《희생적인 동지애!》

례영은 이 말의 뜻을 되새겨본다.

그 희생적인 동지애를 보여주어야 될 시각이 왔기때문이다.

인제는 그 누구가 만류하더라도 적들이 있는곳으로 다가가서 부상병들에게 필요한것들을 구해야 했다.

이것은 오직 자기희생성만이 해결할수 있는 일이였다.

례영은 어둡기 시작하면 마을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마을이 있는곳이면 진료소가 있을것이고 그 진료소일군들은 필요한 얼마간의 약이라도 적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다 보관했을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동행할 사람은 물론 있을수 없었다. 준의는 병실을 비울수 없었고 부상병들중엔 걸을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출발준비 역시 특별히 할게 없었다. 자기의 권총탄창에 빈자리가 있었으므로 준의의 권총에서 탄알 두개를 빌려 그 자리를 메우면 되였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아요.》

례영은 출발에 앞서 준의에게 이것저것 부탁하다가 자기의 출발 역시 비밀에 붙일것을 부탁했다.

《성공할수 있을가요, 군의동무?》

군의가 막상 떠나려는 지금 준의의 얼굴엔 불안한 빛이 어려있었다.

《성공할거야요.》

《차라리 제가 떠났으면 해요.》

준의의 눈엔 물기가 핑하니 어려있었다. 그는 적들속으로 떠나가는 군의를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슬퍼졌다.

《누가 떠나나 마찬가지예요.》

두 녀군관은 좀더 캄캄하게 어둡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군의동무는 대렬의 책임자라는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회에서부터 준의생활을 오래 한 그는 례영이보다 세상체험이 많았다.

서른살의 준의인 그는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처녀군의 윤례영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그때문에 언제나 어렵고 위험한곳엔 례영을 뒤로 밀고 자신이 나서려했다. 그는 모든 동무들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알았으며 부상병들에겐 열렬한 애정을 지니고 대하였다.

지금 그의 눈에 물기가 핑하니 어려있는것은 군의의 이번 길이 꼭 무사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때문이다.

그는 군의를 이윽토록 쳐다보았다.

순간 그는 군의 윤례영이가 없는 자기네 부상병집단을 그려보았다. 책임적인 지휘관을 잃어버렸을 때의 부상병들을 상상해본다는것은 괴로운것이였다.

그때문에 그는 원쑤들의 소굴로 자신이 가리라 결심하게 된것이다.

《모든걸 생각해본 끝에 결심한거예요.》

례영에게도 준의의 결심보다 못지않은 확고한 자기의 결심이 있었다. 그 역시 항상 부상병들의 두터운 사랑속에 싸여있는 준의를 아끼기엔 매한가지였다.

준의는 례영이의 결심이 이미 흔들릴수 없는것이라

는것을 알게 되자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였다. 인제는 그로서 바랄수 있는것은 군의의 이번 길이 무사했으면 하는것뿐이였다.

그들은 밖을 내다보았다. 사위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럼 난 떠나겠어요.》

례영은 병실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이제 갈 골짜기를 막은 산너머 먼곳을 바라본 다음 준의의 손을 놓고 어둠속으로 발을 옮겨짚었다.

골짜기를 빠지는 좁은 길은 여울치는 내물과 함께 흘러내려갔다.

깊은 골짜기였다. 사단장이 정찰중대장에게 중상자들을 남기고 떠날 안전한 지형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정찰중대장은 이 골짜기의 지형을 설명하면서 세상과는 담을 쌓은 별천지라고 말하던것이 생각났다.

이따금씩 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엔 띠염띠염 별들이 떠있고 내물소리는 고르롭게 들려왔으며 비를 실은 커다란 구름장들은 그 어설픈 별빛마저 가리워버리려 했다.

하늘 높이에서 적군 비행대인지 아군 비행대인지 알지 못할 비행편대가 북쪽을 향하여 날아가고있었다. 그 비행편대의 소리만이 례영에겐 지금 전쟁이라는것을 상기시켜줄뿐이였다. 그만큼 골짜기는 쓸쓸하고 또 적막하였다.

이처럼 밤길을 혼자서 걸어보기는 처음인 례영이였다.

밤이면 가로등이 밝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나서자란 처녀에게 이런 길은 상상에서조차 있어보지 못했던 길이였다.

했건만 례영에겐 무서움이라는 흔히 있을수 있는 감정마저 없었다. 그것은 최악의 모든 경우를 각오하고 또 각오한 뒤끝에 나선 길이기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범이나 승냥이를 동물원 울타리안에서만 보았기때문인지도 모른다.

동물원에서 범이나 승냥이는 무서운것이 아니라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례영은 자기 어린시절에 아버지가 동생들이랑 앉혀놓고 착한 범이 곤경에 처한 어떤 할머니를 구원해준 옛말을 들려주던것이 생각났다. 그 옛말에 나오는 골짜기도 이 골짜기처럼 깊었다.

그 할머니가 악한들에게 보물을 강탈당하고 묶이운채 끌려오다가 구원받던 골짜기도 이처럼 내물소리 쉬임없이 들리는 골짜기였다.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이 그려졌다.

대대로 내려오는 명의인 그의 아버지는 자기를 계승할 의사인 맏딸과 특별히 물리학에 열중하는 둘째딸과 누님들을 무척 따르는 중학생인 아들을 매우 사랑했다. 례영이의 형제는 이처럼 셋이였는데 아버지는 이 귀여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경주마》가 되여 달리기도 했고 《소경》이 되여 작대기로 감춘 보물을 찾느라고 마당을 죄다 두들겨보기도 했다.

화창한 일요일이라 하여 모란봉에 가거나 극장에 갈 시간이 있는 아버지가 아니였건만 자식들을 위하여 그 귀중한 시간을 자주 바쳐준 아버지였다.

쉰다섯살의 명성높은 이 의사는 구부정한 큰 키에 반나마 머리가 희였는데 딸을 전선으로 보내며 온가족을 데리고 밤의 대로에 나와있었다.

수많은 자동차들의 전조등이 엇갈리는 로타리에서 그는 군의들을 태운 트럭의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무사하실가? 어머니도 례숙이도 경석이도 모두가 무사할가?)

평양의 소식을 들어본지 오랜 례영이였다.

(아버지가 만일 자기 딸이 적후에서 중상자들을 독자적

으로 치료하고있다는걸 아신다면 얼마나 놀라실가?
후날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간 내가 오늘의 이 밤길과 골짜기와 내물소리에 대해 말한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가?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자기 딸, 자기 언니, 자기 누나가 조국이 시련을 겪던 준엄한 시절에 수령의 참된 전사답게 충실성과 량심으로 언제나 희생적인 일의 앞장에 섰다는것으로 하여 이웃들에 떳떳하고 조국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례영은 가족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들중의 하나로 알고있었다. 또한 자기의 소녀시절이 흘러가고 처녀시절의 찬란한 꿈을 키워준 고향도시 평양을 그렇게 생각했다.
하늘은 끝내 검은 구름으로 가리워지고 별빛은 사라졌다. 골짜기도 인젠 한발자국앞을 가려볼수 없을 정도로 어둠에 잠겨졌다.
그동안 길우에 놓인 돌덩이들을 간신히 피할수 있었던 례영은 더는 분간할수 없게 되여 자주 걸채여 넘어질번했다.
이렇게 또 한번 길우에 솟아있는 돌덩이에 걸채여 비칠렁거릴 때였다.
수풀 우거진 길옆으로부터 키도, 몸집도 우람찬 사람이 달려나오며 앞을 막아섰다. 너무도 뜻밖이고 크게 놀란 뒤끝이라 례영의 온몸은 땀으로 함뿍 젖어버렸다.
틀림없이 적들의 잠복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한 례영은 최악의 경우까지 비겁성을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물면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나무들이 우거진 산으로부터 바람이 쏴— 하고 골짜기로 내려오고 내물소리도 한결 더 높아졌다.
그러나 총구와 총구를 겨누고 선 두사람 사이엔 침묵만이 흘러갔다.

《당신은 누구요？》

침묵을 먼저 깬것은 거인이였다.

《당신부터 신분을 밝혀요.》

례영은 똑똑하게 발음함으로써 자기는 겁에 질리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싶었다.

《총구를 내리시오, 군관동무！》

하면서 거인은 례영이쪽을 향했던 기관단총의 총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우리편 사람이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그럼 동무는 인민군대요？》

례영은 아직 의심스럽다는 어조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군관동무. 저희편이라는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소대장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분간 못할때면 코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주군합니다. 우리 인민군병사들한텐 그런 코가 있답니다.》

《그래, 동무네 소대장은 어데 있어요？》

《함께 가실가요.》

《…매우 먼데 있나요？》

《아마 그 자리에 그냥 있을겝니다.》

《그 자리라니요？》

또다시 의심이 례영이로 하여금 주춤거리게 했다.

《제가 어제밤 그 자리에서 떠났으니깐 그 자리에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동무는 승인도 없이 떠난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군관동무.》

《그런데도 아직까지 기다릴가요？》

《기다릴겝니다. 우리 소대장동무는 자기의 대원을 스물네시간도 기다려보지 않고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젊어서 아직은 세상경험이 적은분이지만 의지하고싶으리만큼 믿음이 가는 지휘관입니다.》

《그럼 갑시다. 앞에 서요.》

례영은 병사의 뒤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드물게 보는 큰 허우대에 굉장히 큰 쌀자루를 멘 병사는 자기를 따라오는 녀군관이 넘어져서 상처라도 입을것을 우려하여 장애물들을 치워주군했다.
《어째서 이런 밤중에 혼자 다니십니까?》
병사는 녀군관이 산속길을 매우 서툴게 걷는것을 알자 동정어린 어조로 물었다.
《그건 비밀입니다, 병사동무.》
그 병사는 리배석이였다.

6

준보가 잠꼬대를 하던 밤 누구보다도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배석이였다.
고향땅을 지나는 병사의 설레는 심정을 누를길 없는 그였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특히 전우들의 식량이 떨어진 현재의 처지에서 차마 그냥 누워만 있을수 없었다. 그는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소대장도 전우들도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그는 소대장에게 승인을 얻고 집에 들려오고저 했으나 늦도록 무거운 생각에 잠겨 잠못들던 소대장이 곤하게 자는것을 차마 깨울수 없었다. 그렇다고 상관의 승인이 없는 부대리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마을에 다녀올것을 단념했댔으나 자기만이 지금 전우들의 식량을 해결해야 될 처지임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결국 전우들이 잠깨기전을 리용하여 집에 잠간 들렸다가 어머니도 뵙고 전우들을 위한 먹을것도

가지고 오겠다고 결심하게 되였다.

주머니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낸 그는 간단하게 몇줄 적어놓고 산을 내렸다.

잘 아는 길에 낯익은 산천이지만 오랜만에 보는 고향이였다.

그가 고향을 떠나보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였다. 정직한 품팔이군이였던 그의 아버지처럼 배석이도 행복과는 등진 일생을 타고났다.

배석은 아버지의 얼굴을 몰랐다. 타향 멀리로 품을 팔며 돌아다니던 그의 아버지는 북간도인지 혹은 남방의 어떤 도회지에선지 공사장에서 흙에 묻혀 죽었다.

불행하게 죽은 품팔이군의 안해는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세살난 아들을 키웠다.

아들은 커서 소학교를 다녔는데 이때 그는 드물게 보는 힘과 굵은 뼈와 억센 손아귀때문에 사람들을 놀래웠다.

소학교를 마치자 이 빈한한 시골과부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그러했던것처럼 공사판을 찾아 타관살이를 시작했다.

함부로 퍼붓는 욕설과 구역질나는 상스러운 롱지거리들이 큰소리로 오고가는 철로부설장, 그다음은 광산이나 금점판으로, 목도군이 되기도 하고 곡괭이군이 되기도 하며 떠돌았다.

타향에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첫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사연은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갈테니 어머니는 남의 집 삯바느질이랑은 이젠 그만두라는것이였다.

이랬던 아들은 몇년이 지나서 돌아오긴 했으나 약속과는 달리 한푼도 못가진 털터리였다. 주머니엔 어머니의 고무신 한컬레를 지녔을뿐이였다.

했어도 어머니는 기뻤다. 그건 객지바람을 맞아서 미끈해지고 어엿한 장정이 된 아들의 름름한 모습을 볼수 있었기때문이다.

그후 때때로 아들은 만취하여 늦은 밤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저주하기도 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술을 마셨다고 노하셨나요. 이놈의 세상이 하도 더럽고 억울한 일뿐이여서 마셨어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맞아들이기를 희망했다. 사방에 아들의 혼처를 수소문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불행한 홀어머니에게 딸을 며느리로 주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품팔이군 신랑감에 가난한 과부였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야 먼곳으로부터 한 녀자를 데려왔는데 그는 시집온 날부터 남편이 떠돌아다니기만 하는것을 못마땅히 생각했다.

항상 눈가에 서글픈 빛을 나타내던 그 녀자는 결혼후 두달만에 본가로 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시금 새벽이면 물을 길었고 밥상머리에 홀로 앉아서는 어데인지 알지 못할곳에서 일하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슬피 울었다.

8.15광복이 되였다. 15성상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강점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으로 개선하시였다.

복지강 하천제방공사장에서 일하던 배석이도 광복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와 목이 터지게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시위대렬에 끼여들었다.

그리고 얼마후엔 군자치대의 대원이 되였다.

깊은 밤에 고향의 낯익은 길을 걸어보는 배석에겐 흘러간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되는것도 많았다. …

그는 곧장 자기 집이 있는 시가쪽을 향하여 걸음을 빨리했다.

그의 집은 외딴곳이여서 그가 적들 몰래 어머니를 뵙고 떠나기는 좋았다.

했지만 그는 시가로 들어가는 다리목에서 완장을 두른 《치안대원》이 보초 선것을 보고는 웅뎅이에 숨지

않으면 안되였다.
웅뎅이에 엎드려 보초소에 나와 선 《치안대원》을 어둠속에서나마 희미하게 볼수 있었던 배석은 그가 자기의 옛 친구인데 놀랐다.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알자 보초소로 다가간 그는 옛친구의 어깨에 한손을 얹었다.
《놀라지 말게, 나 배석일세. 그런데 자네가 〈치안대원〉이 되다니?》
배석은 어릴 때부터 품팔이로동판으로 함께 다니던 이 사람의 변한 모습에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렇게 되였네. 그런데 자네 웬 일이야?》
친구는 말끝에 긴 한숨이였다. 이 친구로 말하면 전날 사람이 너무 좋아서 공사판을 돌아다닐 때 《4, 6, 9》라 불리웠는데 지금은 적들의 총을 메고 경비를 서는 것이다.
《자네가 환장했군.》
《어쩌는수 없어 하는 짓일세. 길서란놈이 경찰서장이 되여왔는데 〈치안대〉노릇을 않겠다면 빨갱이로 몰아 죽인다네.》
친구는 배석을 바로 쳐다보기조차 부끄러워했다.
《그자가 경찰서장이 되여왔단 말인가?》
배석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네, 닥치는대로 죽인다네.》
친구는 또다시 긴 한숨이였다.
경찰서장 강길서— 배석이가 너무도 잘아는 인물이였다.
친구가 알려주는 강점된 고향땅의 참혹한 소식을 들으며 배석은 눈을 감았다.
…그것은 바람 차겁게 불고 싸락눈이 볼편을 에여내듯 퍼붓던 날이였다. 광복직후 군자치대본부에서는 힘센 무장대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한것은 하천제방공사장의 총관리인이며 지주였던 친일파 강길서를 체포해

야만 했기때문이다.

유도선수이며 격검선수인 이 젊은 친일파는 광복되여 넉달이나 되였건만 기세가 푸르러있었는데 전날의 한 소작인이 멀지 않아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리란 말을 했다고 칼로 찔렀다.

배석은 이자를 체포해올 사명을 띠고 군에서 30리나 되는 그곳으로 갔다. 자치대 대장이 한사람 더 데리고 가는게 좋겠다고 했으나 배석은 《안심하시우, 그런것쯤이야…》하고 단신으로 떠났다.

길서네 집에 이르러 대문을 몇번 밀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으므로 담을 뛰여넘어 들어갔다. 놀란 주인이 방문을 왈칵 열어제끼는 순간에 배석의 드센 주먹이 번개처럼 내뻗으며 길서를 쓰러뜨렸다. 배석은 그를 묶어서 마당에 내세웠다.

《가자.》

두 사람은 읍으로 통한 들판의 달구지길에 들어섰다.

죄인은 두손을 묶이운채 앞에서 걸었고 호송원은 뒤에서 걸었다.

《자네 좋은 직업을 구했는데…》

죄인은 자기를 호송하는 자치대 대원을 공손한 태도로 대하지 않았다.

자치대 대원 역시 자기가 호송하는 죄인에게 공순성을 바라지 않았다.

《내가 알기엔 자넨 괜찮은 사나이였지.》

죄인은 조소를 감추지 않으면서 말을 했다.

《인젠 세월이 바뀌였으니 너도 나에게 아첨을 하니?》

《두고보게만 공산당은 자네같은 자치대원을 좋아하지 않을걸세.》

《천만의 소리, 오늘만 해도 너같은 악질친일파를 체포하는 중요한 일에 나를 보냈다.》

《그건 지금의 혼란상태를 말해주는 력사적증걸세.》

《뭐라구? 력사적증거? 그럴듯한 말인데. 세상일이란 무엇이나 력사에 흔적을 남기게 되여있으니까…

너만 력사를 알구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구 생각하니? 너희들은 그동안 우리를 착취해먹으면서 우리가 착취받는것도 모르는줄로만 생각해왔지, 더러운 자식들!》

《싸움은 계속될걸세. 일본은 망했지만 미국은 아직 우리편에 있어. 그건 그렇고 오늘 나를 체포하는데 자네를 보낸건 전부터 우리 두사람이 원쑤지간이였기때문이야.》

《…》

이 말엔 배석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대신 그는 이제 얼마후면 감옥으로 갈 이 사나이와 자기는 얼마나 큰 원쑤지간인가를 새삼스러이 생각해보았다.

품팔이로동판, 제풀에 고아대는 감독놈들, 협잡과 주먹싸움, 경관들의 소란스러운 호각소리, 다음엔 여기 지금 자기에게 호송되여가는 사나이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지강방축공사장에서였다. 로동자들은 일을 태만하였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관리측 대 로동자들과의 류혈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진 십장들의 원한은 다시 새 싸움의 원인이 되군하였다. 일본놈들의 신임을 얻어 공사장의 총관리자로 있던 강길서는 남달리 주먹이 드셀뿐아니라 로동자들의 투쟁이 있을 때마다 앞장에 서군하여 언제나 자기에게 불안을 주던 배석을 없애버릴것을 결심했다. 그의 결심은 어느 궂은비 내리는 봄밤에 시행되였다. 매수된 불량자들을 지휘하고 술집의 울타리밖에 지켜섰던 그는 취하여 나오는 배석을 진흙탕속에 까눕혔다. 그리고는 높이 쌓은 방뚝으로 끌고가서 아래로 굴려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배석은 아무도 없는 강변에서 숨이 져갔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길손이 그를 죽음에서 구원

해주었다.

배석은 이렇게 살아났다. 복수는 그로부터 한 계절이 지나서 늦은 가을밤에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이번엔 경관들이 잠자는 의사를 호령하여 방뚝밑으로 끌고가서 숨이 져가는 길서를 구원하였다.

그후엔 호상 노려보면서 누가 누구를 먼저 없애버릴 기회를 얻을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날을 보내다가 광복이 되였다.

적의에 찬 외면, 화해할 길 없는 원쑤, 묵은 원한이 쌓이고 쌓이면서 새로운 결투를 준비하던 두 적수였다.

《결국…》

하고 묶이운 팔을 내려다보면서 죄인은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자네가 나를 이기고말았군.》

《그렇게 된 셈이다.》

배석이 역시 감회깊었다.

그들이 걸어가는 넓은 벌엔 싸락눈이 내리고 언제인가 두 주인공이 생명을 노리면서 결투에서 결투를 거듭하던 벌판의 먼 한끝을 에돈 방뚝너머로는 북풍이 불어왔다.

《…》

《…》

묵직한 구두밑에서는 언 땅이 짓밟히고 배석의 개털모자와 길서의 헝클어진 머리우엔 눈이 내려앉았다.

《나는 인제 어데로 가게 되나?》

《그거야 물론 감옥으로 가게 되지.》

그다음엔 또다시 침묵이 흐르고 언 땅이 짓밟히고, 그러면서 벌판은 점점 좁아져서 인가들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

《…》

침묵, 침묵.

드디여 벌판길은 끝나고 낡은 간판을 떼버린 자리가 굵은 기둥에 부유스름히 그려진 길가의 술집앞까지 이르렀다.

《여보게! 마지막으로 나와 한잔 할 생각이 없나?》

길서가 멈춰서며 배석을 돌아보았다.

《닥쳐라, 이놈아! 난 지금 호송원이고 넌 묶이운 죄인이야.》

《좋네, 그럼 그만두세.》

길서는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금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배석이 역시 한잔 하고싶은 심정이 없은것은 아니였다.

오랜 세월 이 품팔이판에서 저 품팔이판으로 려조와도 같이 떠돌면서 싸움과 화해의 잔들을 붓기도 했던 배석이였다.

하지만 배석은 이 충동을 극복해내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길가의 술집을 멀리 벗어났다.

인제는 읍으로 들어가는 고개길에 들어선것이다. 그 고개를 넘으면 길서는 감옥으로 가는것이다.

《자넨 기쁠수도 있네.》

길서는 숙였던 머리를 곧추 쳐들고 배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발을 앙다물고 배석을 노려보는 그의 눈엔 불꽃이 번뜩였다.

《오랜 세월 원쑤였던 사람을 관권을 빌어서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처치해버린다는것은 매우 령리한 방법일세. 말이 났으니 솔직히 말하네만 그날밤 나는 자네를 죽여버린걸로 알고 매우 기뻐했네. 자네가 살아서 다시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나는 언제나 불안했네. 그래서 내가 먼저 자네를 없애버리려고 벼르던 참에 광복이 되였어.》

길서는 숨소리마저 높았다.

《여보게, 배석이.》

하고 길서는 언성을 더욱 높여가며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자넨 내가 마지막 이 판에서 자네에게 인심을 바라는줄 아나? 천만에! 자네는 뭣때문에 아까 술을 마시자는 내 청을 거절했나? 자네에게 술대접을 한 다음 묶이운 바줄을 풀어달라고 애걸할줄 알았나? 만일 자네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어. 강길서는 그런 너절한 사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배석은 듣다 못하여 똑같이 언성을 높여 소리쳤다.

《너무 떠들지 말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불손하게 대해도 무관하도록 인정을 베푸는것만두 감사히 여겨.》

《뭣이? 죄인이라구? 개자식, 그리구 또 뭣이? 인정에 감사하라구? 하하하, 이건 희극인데. 이것 보라구. 나를 지금 묶은것은 리배석이가 아니라 프로레타리아가 부르죠아를 묶은거란말이야. 이 두 계급사이에 인정은 무슨 말라빠진거야. 자넨 리배석이가 강길서를 묶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순간 《철썩》하고 배석의 손바닥이 길서의 살진 뺨을 후려갈겼다.

《친다. 네놈이 감히 나를 치누나.》

길서는 이발을 악물면서 덤벼들었다.

《인젠 아무렇게나 지껄여대다가는 죽는다는걸 알란 말이야. 너희들 세상은 끝장났어.》

배석은 격분하여 몸을 부르르 떨며 그놈을 노려봤으나 좀처럼 성은 풀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우리는 제 맘속에 있는 생각 한번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어. 너같은 악질 친일파들만이 활개치며 살았지.》

길서역시 수그러들지 않았다.

《적수를 관청의 힘으로 처치해버리는 네가 사나이란 말이지. 나역시 전날엔 너같은 로동군쯤은 전화 한통이

면 감옥에 보낼수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내 신변에 불안을 줄 때마다 감옥으로 보낼 생각이 간절했거든. 하지만 그건 사나이가 사나이답게 원쑤를 처치해버리는게 못되였어. 그때의 모든 법기관들은 내 말이면 통할수 있었다는건 너도 잘 알테지. 도덕이란 이런거야. 여론이 무섭다는것도 알아야 해. 이제 리배석이가 강길서를 감옥에 보냈다는 말이 퍼지면 그때의 너는 벌써 대장부로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단말이야.》

배석은 길서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교활한 길서는 배석이가 어떤것앞에서 가장 약해지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길서는 배석이가 사나이로서의 체면과 인정이 깎이우는것 그리고 손발이 성하지 못하거나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완력행세를 하는것을 수치로 여긴다는것을 알고있는것이다.

이때문에 길서는 감옥으로 끌리여가기전의 마지막 이 기회를 리용하여 배석을 자극하려고 든것이다.

배석이 또한 길서의 이 교활한 《큰소리》에 사나이 대장부로서의 넓은 《통》이 얼마간 깎이우는듯 생각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자기는 예전과 같이 주먹이나 힘만을 가지고 마음내키는대로 누구에겐 인정을 베풀고 누구에겐 본때를 보여줄수 있는 품팔이군이 아니라 명령을 철저히 집행해야 되는 자치대원임을 새삼스러이 깨닫게 되였다.

《빨리 걷기나 해라. 이 자식아, 뭣이 어떻다구? 여론때문에 나를 감옥에 보내지 못했다구?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그만두란말이야. 네놈이 나를 감옥에 보내지 못한건 우리 로동계급의 힘이 무서웠기때문이야.》

배석은 자기앞에 멎어서는 길서의 등을 밀었다. 배석은 세상이 뒤바뀐 오늘에 와선 그 무슨 사나이의 의기요, 여론이요 하면서 언제 어느때 한번 이런것에 신경이나

쓴 일이 있는듯이 떠들어대는 길서의 교활성에 구역질이 나는듯했다.

그렇게 얼마간 지나가서 그들이 고개의 중턱,비탈진 굽인돌이에 들어섰을 때였다.

길서가 또 한번

《여보게,배석이!》

하며 무슨 말인지 하려고 멎어서서 배석이가 몸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듯했다. 그러다가 배석이가 얼마간 자기와 사이뜨게 걸어온다는것을 알아채고는 몸을 홱 돌린다음 비탈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앗!》

하는 순간에 배석은 《비겁한 자식》하는 말을 입밖에 내면서 그놈의 뒤를 따라 비탈밑으로 내려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아 얼마간 놈의 뒤를 따르던 배석은 내려짚은 흙더미가 무너지는통에 비탈밑 자갈밭에 공중 날아 떨어져서 의식을 잃게 되였다.

배석은 밤늦게까지 그렇게 쓰러져있다가 새벽녘에야 움직일수 있었다.

그러나 벌써 38선이남으로 도망간 강길서를 잡을수는 없었다.

자치대 대장에게 길서를 놓쳐버린 사연을 보고하면서 그는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자치대 대장은 잠잠하니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나자 오래동안 생각하던 끝에 과오를 범한 대원을 관대하게 처벌하였다.

《무기를 바치고 집으로 가게.》

철직된 그는 다시금 그길로 로동현장을 찾아갔다.

경찰서장 강길서—그와 배석은 이렇게 아는 사이였다.

이 고장 사람치고 그 누가 강길서를 모르며 리배석이를 모르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석은 몸서리칠 지경이였다.

인민정권에 복수심을 품고 남조선에 달아났다가 돌아온 경찰서장 강길서의 만행으로 하여 고향땅은 피로 물들고있었다.

그는 전날 자기 집 머슴살이를 하던 돌쇠부자를 나란히 세워놓고 총살하였다. 또한 자기의 소유였던 땅을 분여받아 살았다는 리유로 전날의 소작인들을 무리로 총살했다. 그중엔 임신만기의 녀인과 두살난 애들도 섞여있었다.

그가 죽인 사람들속엔 환갑이 넘은 온돌쟁이인 인보아바이도 있었다. 그를 죽인 리유는 경찰서장이 되여 돌아온 자기를 보고 외면했을뿐만아니라 새 서장네 집 온돌을 수리하는 일을 거절했기때문이였다.

배석은 길서가 살해한 이 모든 고향사람들을 잘 알고있었다.

아버지의 옛친구인 인보아바이는 특별히 가깝게 지냈던 처지다.

이 크지 않은 촌시가의 매개 집에 온돌을 놓아주고 수리해주고 굴뚝을 바로세워주던 고마운분이였다. 근면하고 인정많은 그 인보아바이는 종종 홀로 된 옛친구의 안해와 아이들을 찾아보고 넉넉치 못한 자기 수입의 일부를 나누군했다.

일생을 두고 단 한번의 큰소리도 쳐본 일이 없고 그 누구의 자존심을 건드릴 일이나 말도 한 일 없는 로인이였다.

자기보다 힘도 약한 그를, 자기보다 몇백 몇천배로 청백하게 산 그를 길서가 죽였다. 자신을 방위하는 수단이라고는 량심밖에 없었던 그였었다.

사나이의 의기와 법도를 자기앞에서 설교하던 길서였다.

이런 그가 이제 와서 알고보매 천하에 견줄바 없는 잔인한 살인귀며 악마였다. 이런 악마를 경각성이 무디

였던 탓으로 놓쳐버린것이 자기였다는것에 생각이 미치자 배석은 자기 저주로 하여 온몸의 살을 찢고싶었다.

(오래전에 인민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할 악한인 길서, 그자의 손에 해를 입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놈처럼 나쁘게 알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길서를 인민재판에 회부할 도리란 없었다.

《내가 그놈을 죽이고 가겠네.》

친구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나자 배석은 대뜸 결심을 했다.

《그건 어려울걸세. 그놈은 보초병들속에 파묻혀있으니까.》

《괜찮아, 우선 어머님께 들려봐야겠네. 우리 어머니를 뵌지 오랜가?》

배석은 자기의 물음에 난처해 하는 친구의 심정을 리해할수 있었다.

《이 꼴로 자네 어머님을 어떻게 뵙겠나? 우야 안면있는 사람들을 피하는판인데…》

《그럼 난 집으로 가보겠네.》

배석은 다리를 건느려 했다. 그러자 친구는 펄펄 뛰는것이였다.

《자네가 정말 세월 변한줄 모르는가? 다리 저켠은 온통 미국놈들로 경비망이 덮여있다네. 인민군대복장으로 어델 간단말인가.》

하기는 딱한 일이였다.

《단순히 어머니만 뵙자는건 아니야. 산에서 친구들이 식량을 기다리고있네.》

《그럼 나하고 같이 들어가세.》

친구는 배석을 멀찌감치 물러서서 몸을 숨기게 한 다음 보초를 교대할 구실을 만드느라고 배를 그러안고 앓는 시늉을 하면서 위병막쪽을 향하여 《치안대》 한놈

을 소리쳐 불렀다. 그놈을 속여넘겨서 보초교대를 한 다음 그는 배석을 다리목에서 얼마 멀지 않은 외딴집으로 데리고 갔다.

친구는 밖에서 망을 보고 배석이가 그 집으로 들어갔다.

한참후 쌀자루를 들고 나온 배석은 친구의 손을 잡고 말했다.

《길서를 만나봐야겠네.》

《뭐? 그놈을 만나서 어쩌자구?》

《죽여버릴테네. 자네 어렵지만 이 쌀을 가지고 오리목(함지골로 들어가는 길을 이 고장에서는 이렇게 불렀다.)에 가서 기다려주게. 그리로 해서 부대를 찾아가겠네.》

배석의 눈동자에서 불이 번쩍이는것을 보고 친구는 보통일 같으면 만류하기를 단념했겠으나 너무도 위험한 일이여서 쌈싸우듯하여 겨우 진정시켰다. 배석이 역시 산에서 전우들이 자기때문에 당황해 할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곧장 떠나기로 했다.

했으나 도중에 날이 밝아져서 함지골로 들어가는 수풀에 숨어 해를 넘기고 어두워서야 걷기 시작했다.

군의 윤례영을 만날수 있었던것은 이런 사유때문이였다.

7

장기로소대원들은 없어졌던 전우 배석이가 찾아온것으로 하여 명절처럼 기뻐했으나 그 기쁨은 인차 사라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것은 그와 동행하여온 사단병원 녀군의로부터 사단의

소식과 이곳에 남은 부상병들의 절박한 사정을 들었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침묵속에서 녀군의의 말을 들었다.

기로는 녀군의 윤례영을 평소의 사단생활에서 몇번 본 일이 있었다. 두사람 다 말 한마디 주고받은 일 없는 처지였으나 이처럼 어려운 때를 당하여 새삼스러이 자신들을 소개하며 접근할 례절을 지킬 필요는 없었다.

그래도 례영은 이 젊은 지휘관에게 오랜 지기나 만난듯 기쁨을 그대로 나타낸거라든가 자기들의 곤난한 처지를 숨김없이 말한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였다.

《너무도 뜻밖의 상봉이여서 체면을 돌보지 못했어요.》

례영은 변명이나 하듯 말했다. 기로는 자존심이 강한 녀군의가 뭣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알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저 역시 군의동무를 례절있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기로는 도시처녀인 녀군의가 적후의 밤길에 홀로 나설 정도로 극도의 곤난에 처한 사단의 부상병들을 그려보았다.

또한 이 녀군의가 자신의 존엄과 자존심마저 죽이면서 자기들을 찾아온것이 무엇을 바라기때문인가도 생각해보았다.

그리하여 결국 기로자신이 먼저 그것을 말했다.

《우리가 군의동무를 도우려고 합니다.》

《고마와요, 소대장동무.》

례영은 차마 말하기 어려워 주저했던것을 소대장자신이 먼저 말하는데 감동되였고 그가 자기의 마음속을 리해하고있는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캄캄하게 흐렸던 하늘에서는 알릴락말락 늦은가을의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군의를 도와 마을로 가는것이였다. 선두엔 이곳 지형을 잘 아는 배석이가 서

고 그대신 마지막위치엔 기로가 섰다. 군의는 준보와 달서 사이에 서서 걸었다.

걸으면서 병사들은 생쌀을 씹었다.

침묵은 적후행군에서 병사들에게 법으로 되여있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무엇이나 혼자 생각하는데 습관되였다.

지금 기로는 대렬의 후면감시를 하면서 녀군의 윤례영에 대하여 생각했다.

이런 밤중에 적들이 점령한 마을을 찾아 산길에 홀로 나설수 있는 녀군의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해봤던 기로였다.

전날 평범하게 흘러가던 사단생활에서 기로는 이 녀군의를 몇번 보았다.

그것은 사단 군관들의 모임에서나 야전우편함앞에서였다.

언젠가 기로가 야전우편차에서 녀동생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을 때 녀군의 윤례영도 고향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기로가 우편차에서 물러나 중대로 갈 때였는데 누구인가가 어깨를 잡아세웠다.

《그 녀자가 이제 누구한테서 편지를 받았는지 모르겠던가?》

《모르겠는걸, 이럴줄 알았으면 곁눈으로라도 살펴볼걸 그랬군. 그럴것없이 직접 물어보게나.》

기로는 그때 약간 조소로 친구를 대했건만 그는 정색하여 대답했다.

《그런걸 어떻게 물어보나. 그 녀잔 보통녀자가 아니라 지독하게 차거운 녀자라네.》

《뜨거운 녀성도 많은데 하필 차거운 녀성을 따라다니나?》

《자넨 몰라서 그래. 저 군의는 훌륭한 녀자라네.》

솔직히 말하여 그때 기로가 본 군의 윤례영에겐 그 친구가 말하듯 그렇게 훌륭한것이란 있는상싶지 않았다.

보통 볼수 있는 도시의 학생티를 갓 벗어난 처녀였을 뿐이였다.

하지만 지금 기로는 그 군관이 이 녀군의를 옳게 봤다는걸 알게 되였다.

이러는 사이 골짜기는 끝났다. 그들앞엔 탁 트인 벌판이 나타나고 그 벌판 한가운데 마을이라는걸 알리는 불빛들이 띠염띠염 바라보였다.

밤의 불빛이란 어느때건 사람을 부르는것이여서 그들은 거침없이 그대로 가서 마을에 닿고싶었다.

기로는 그 몇개의 불빛을 가늠잡아 어둠에 잠긴 마을의 륜곽을 희미하게 알아보았다.

대렬을 멈춰세우고 배석이와 달서에게 진료소를 찾아볼 임무를 주어 파견했다.

준보와 례영은 그 자리에 있도록 했으며 자신은 동구밖에 잠복하고있다가 만일의 경우에 엄호사격으로 그들을 구출해내기로 했다.

배석이와 달서는 적막에 잠긴 마을로 들어갔다.

두 병사는 마을과 벌판을 갈라놓는 낮은 뚝을 미끄러지듯 타고넘었다. 마을의 이 집에서 저 집에로 련결된 골목길들에서는 순찰을 하느라고 돌아다니는 《치안대》놈들의 발걸음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왔다.

두 병사는 그 발걸음소리로 하여 위험을 면할수 있었다.

두 병사는 이 집 담벽에서 저 집 담벽에로 몸을 피하였다.

그들이 진료소를 찾기까지는 30분이나 걸렸다. 널바자를 두른 집에서 굵은 사나이의 음성과 불빛이 흘러나왔는데 그 음성이 진료소라는걸 알도록 했다.

널바자에 붙은 두 병사의 귀엔 방안에서 주고받는 남자와 녀자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사나이…이젠 내가 진료소장이 아니란말이요. 그리고

이 집도 진료소가 아니라 나 개인이 경영하는 병원이란말이요.

녀　자…그래도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였는데 외면할 수 있어요? 고약이라도 좀…

사나이…흥, 차라리 죽는게 나을게요. 아주머니 남편이 토지개혁때 우리 형님을 지주라고 마을에서 쫓아내던걸 생각하오. 치안대에서 공연히 잡아다 패주었겠소? 그런 원쑤를 내가 치료해줄 상싶소?

녀　자…이 방에 있는 약들이 당신거란말이요? 인민정권때 나라에서 준게 안예요?

사나이…이런 고약한 말버릇 보라니. 이 방 약들은 미국어른들께서 얻은거야. 인민정권때 약은 더러워서 보기만 해도 울화가 치받친단말이야.

녀　자…좋아요. 당신네 세도가 며칠이나 가는지 두고 봅시다.

녀인은 문을 화닥닥 발길로 차서 열더니 밖으로 나오려 했다. 그러나 사나이가 움켜잡아 당기더니 귀뺨을 후려치는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년아, 뭣이 어쨌다구? 내 네년을 그냥 돌려보낼줄 알아?》

《이놈아, 그래 네가 나를 어찔테야?》

녀인은 사나이의 낯판에 침을 뱉어주는듯했다.

그러자 이 악한이 녀인을 방 한쪽구석에 힘껏 떠밀어넣고 마구 때리는듯한 소리가 났다.

격분으로 몸을 떨며 간신히 심장을 진정시키던 두 병사는 대문을 밀고 바람처럼 소리없이 들어갔다. 달서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며 방문을 열었다.

녀인의 머리채를 거머쥐였던놈은 뜻밖의 문소리에 몸을 피하려 했으나 단도날이 가슴깊이에 박히는것을 면할수

없었다.
번대머리를 불빛에 번들거리던놈은 커다란 몸뚱이를 비틀며 인민군대 상등병을 노려보다가 마지막숨을 거두고말았다.
《아주머닌 고약을 쥐시오.》
힘겨운 격투를 하느라고 지쳤던 녀인은 반가와 울려고 했다.
달서는 책상보를 펴놓고 약품들을 담았고 배석은 두루 사면을 살피다가 적당한 보가 없는듯 간막이천을 펴놓고 무거운것, 가벼운것 모조리 쌌다.
그들은 방안의 불을 끄고 녀인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고마와요, 군인동무들!》
녀인은 감격하여 목멘 음성으로 마을을 빠져나가는 두 병사에게 말했다.
두 병사는 그 녀인에게 무슨 말이건 해서 마음 따뜻이 해주고싶었으나 순찰대원들의 구두발소리가 가까와오므로 그대로 작별하였다.
무사히 마을밖으로 나온 그들은 소대장이 대기한곳에 도착했다.
《빨리 가시오.》
기로는 여전히 마을쪽에서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서 말했다.
두 병사가 멀리 골짜기입구까지 와서 준보와 례영을 만났을 때 기로는 자기들을 추격하는놈들이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대렬은 무사히 귀로에 올랐다. 보슬비는 여전히 내리고 하늘은 캄캄하게 흐렸지만 그들은 함지골로 들어가며 밝고 경쾌한 기분들로 걸음을 옮겼다.
대렬의 선두엔 기로와 례영이가 섰고 마지막위치엔 배석이가 커다란 약보따리를 메고 예전처럼 일동을 호위하면서 걸었다.

어느새 골짜기속으로 퍼그나 깊이 들어왔다. 골짜기가 깊어지면 질수록 안도감도 그만큼 커갔다. 했어도 적후의 밤길이다.

침묵은 법으로 준수되여야 했다. 기로의 가까이에서 걷고있는 례영은 이 젊은 지휘관에게 감사의 말을 한마디도 할수 없는 그 침묵의 법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만일 침묵의 법만 없었다면 례영과 기로 사이엔 이런 말이 오고갔을것이다.

례영…고마와요, 소대장동무!

기로…우리들에게 그런 인사가 필요한가요?

례영…남의 인사를 받지 않는건 실례예요.

기로…전쟁입니다. 군의동무, 이 땅에서 침략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쓸어버린다음 우리 서로 그런 인사를 주고받읍시다.

례영이 역시 골짜기를 왕복하는 길우에서 기로를 회상해보았다. 야전우편차와 평소의 커다란 사변없이 흘러가던 사단생활이며 군관들의 모임이 그 회상속에 떠올랐다. 그때 례영은 장기로소대장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았었다.

언젠가 이동중에 있는 사단병원으로 장기로소대장이 왔었다. 입원한 병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기로가 자기 소대 대원에게 입원생활을 인내성있게 견디여내라고 몇마디 하고 돌아갔을 때였다.

녀군관들은 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거만해.》

하고 한 녀군관이 자기의 평가를 내렸다.

《아니야, 약간 거만은 해보여도 자기 대원들을 무척 아끼는 사람같아.》

례영은 그때 사람을 너무나도 볼줄 몰랐던 자기네 녀군의들을 생각하니 가벼운 웃음이 저도 몰래 새여나왔다.

그때 대렬의 중간에서 걷던 준보가 뾰족한 돌부리에 채여 넘어졌다.
돌바닥에 넘어진 그는 일어나려다가는 또다시 넘어지군했다.
소대장이 다가가서 허리를 잡고 부축하며 나직이 물었다.
《많이 다쳤소?》
《다친덴 없어요.》
《그럼 천천히 일어나보오.》
준보는 소대장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으나 다시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현기증이 납니다, 소대장동무.》
《배가 고파서 그러오?》
《아니요. 소대장동무, 저… 저… 그저 좀 그런가봅니다.》
준보는 입술을 사려물고 일어서려고 했다.
기로는 대렬을 그 자리에 멈춰세우고 휴식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준보를 데리고 내물로 가서 배가 부풀어오르도록 물을 마시게 했다.
단 두사람만 남게 되였을 때 례영은 기로를 보지 않고 자기 장화끝을 보면서 물었다.
《소대장동문 현훈증이 안나요?》
《…》
기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내물쪽만 바라보더니 그리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도 병사들처럼 내물우에 쓰러지듯 엎드리고말았다.
생쌀을 씹은 뒤에 오는 갈증은 못견딜 정도였다.
례영은 굶주림을 견디면서 힘을 얻고저 내물을 쉬임없이 들이마시는 병사들을 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소리없이 울었다.

8

밤이 되자 부상병들은 잠들려고 애썼다. 밤이면 상처의 동통이 훨씬 더 심했고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는 잠드는것 이상 없었다.

그 다음 좋은 방법은 그 누구와 흥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신을 그리로 집중하는것이였다.

어두운 병실에서 부상병들은 이 두가지 방법중 하나씩 선택하였다.

잠들수 있는 사람들은 잠들었고 잠들수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에 정신을 쏟았다.

《지금쯤 사단 동무들은…》

하고 한 부상병이 병실동무들 모두를 향하여 말했다.

《지금쯤 사단 동무들은 최고사령관동지를 뵙고 새 전투임무를 받을는지도 몰라.

나는 낮이나 밤이나 눈만 감으면 최고사령관동지를 뵙고 그 어떤 영예로운 새 전투임무를 받는 장면이 그려진다네. …》

그가 말을 끝내자 병실의 곳곳에서 소곤거리던 말소리들이 일제히 멎었다.

현재 이 병실에 누워있는 부상병치고 이 최대의 희망으로 되는 념원으로 하여 심장을 불태우지 않는 사람이란 없었다.

오늘밤엔 방금 말한 그 부상병이 이 념원을 입밖에 냈지만 낮에는 다른 병사가, 어제밤과 낮엔 또 다른 부상병들이 제각기 이 념원을 말했었다.

몸은 비록 부상당하여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처지가 못되였지만 자나깨나 조국과 민족이 어려운 시련을 겪는

이 준엄한 시절을 당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찾아뵙고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을것을 열망하는 그들이였다.

때문에 부상당한 몸이 된것을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들이였다.

《나는 입대할 때…》

이번엔 두눈을 붕대로 싸맨 병사가 병실의 맨 한끝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나직이 말했다.

《그때 나는 미제침략군놈들을 한놈도 남기지 않고 잡아버리기전에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네. 그런데 이처럼 부상병이 되여 자리에 누워있네. 인제도 앞을 볼수만 있게 되면 그 결심을 실천할테야.》

《속상하는 소리 그만두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 누워서 잠을 청하다 못해 낮에 잔것을 후회하던 부상병이 그의 말에 역정을 내였다.

《동무들!》

하고 이번엔 병실의 중간쯤에 누워서 낮이나 아침이나 천장을 노려보고 누워있기로 유명한 상등병이 세번째로 끼여들었다.

《부상당했다고 그 결심을 실현 못할건 아니야. 동무들은 후날 고향에 가서 미국놈들을 모조리 잡지 못한건 부상당한때문이라고들 하겠네그려.》

두 벗을 동시에 부정했던 그가 이번엔 바로 자기곁에 누운 동무에게서 공박을 당했다.

《그렇다면 동문 지금 한쪽 발등의 뼈가 부스러졌는데 그 발로 싸울수 있단말인가?》

《암, 물론 있구말구. 적들이 덤벼들라지. 그러면 수류탄을 안고 그놈들속으로 굴러가겠네.》

상등병은 태연하게 공박해오는 동무에게 대답했다.

《말로야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지. 흥, 그렇다면…》
하고 반박해나선 친구는 다시금 《그렇다면…》 하고 첫말을 떼더니 말하기 시작했다.
《동문 왜 427고지전투때 부상당하고 후송됐나? 그때 동문 가슴에 안고 굴러갈 수류탄이 없었나? 내가 보니깐 동문 그때 수류탄뿐만아니라 멋진 기관단총을 들고 있었어.》
《그런식으로 나를 모욕하지 말게. 난 그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었거든.》
《옳소! 상등병동지, 나도 그때 두눈을 못보게 되자 의식을 잃었댔소.》
두눈을 죄다 붕대로 감은 중사가 그를 두둔해주었다.
《제길할, 그렇다면 그만두세. 난 뭐 동무들을 모욕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네. 다만 용감성과 부상은 아무런 형제도 못된다는걸 말하려고 했을뿐이야.》
누구인가가 또다시 잠을 청하다 말고 말참에 끼여들었다.
《그건 옳은 말 같네. 용감성과 부상은 아무런 인연도 없지.》
《그렇습니다. 저는 늘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대들 때 탄알은 피해버린다구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시각에 준의 박경숙은 간막이 저쪽 녀군관들의 병실에 등잔불을 켰다.
그 불결에 앉은 준의는 군의가 돌아오기까지 불안한 마음을 진정할길 없어 일감을 손에 잡았다.
여러날 깨끗이 빨아서 말린 낡은 붕대를 한아름이나 실히 되게 당겨다놓고 감기도 하고 맺기도 하면서 지금쯤 적들속에서 활동하고있을 군의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옆방에서는 병사들의 론쟁이 더 활발해지면서 어성

들이 높아졌다.

《그렇소, 돌격으로 나가는 군인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용감성이 필요한것은 원쑤에게 죽을것이 아니라 그놈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 말 뒤끝에 또 다른 병사의 힘찬 음성이 준의에게 들려왔다.

《동무들, 우리가 부상당했다고 절망하지는 맙시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고 적들이 있는 한 어느때건 싸울수 있소. 성실하게, 굳세게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수령의 전사답게 싸우는것, 어떤 역경에서나 굴복을 몰랐던 항일투사들처럼 싸우는것, 혁명의 길에 나선 우리는 이러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오. 제 손으로 만든 톱으로 제 발을 잘라버리면서도 일제침략자들과 싸울 결의 하나밖에 없었던 항일투사들을 회상합시다.》

준의는 쇠소리처럼 쟁쟁하고 마디마다 절도있는 젊은 병사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직껏 품고있던 군의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다.

(옳아, 혁명에 대한 저 병사의 견해는 내 마음에 들어. 우리가 비록 오늘은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항일투사들처럼 끝까지 신심을 잃지 않고 싸운다면 래일은 기어이 원쑤들을 쳐부시며 또다시 전진하게 될 거야.)

준의 박경숙은 붕대를 감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자주 문밖에 나가보군했다. 군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고대하는것이였다.

(만일 군의동무가 실패하면 나자신 적들속으로 가리라. 우리의 부상병들을 위해서라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어떤 위험장소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여들리라.)

문밖에 서서 어둠에 잠긴 골짜기를 바라보며 준의는 이 말을 몇번이고 되씹어보는것이였다.

9

장기로소대장과 그의 소대원들은 더 이상 북으로 행군할 것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이 만나본 부상병집단은 상상하였던것보다는 훨씬 더 곤난한 처지에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부상병들은 너무도 반가와 소리내며 울었다. 기로와 병사들도 울었다.

이런 그들을 남긴채 떠난다는것은 영원히 저주받을 죄악이나 같은것이였다. 이 부상당한 전우들에게 먹을것과 입을것을 주며 적들의 잔인한 기습으로부터 보호해주어야 될 사명을 스스로 감당해내지 않으면 안될 그들이였다.

오래동안 소대를 떠나 병원에 와있던 기로네 소대의 3분대 병사였던 나어린 김훈규는 자기 소대장을 보자 그의 목에 매달렸다.

《우리를 두고 가지 말아요.》

병사 김훈규의 이 간절한 부탁은 기로의 가슴팍에 못을 박는듯한 아픔을 주었다.

《우리는 여기에 남기로 했소.》

기로는 순간 훈규뿐만아니라 부상병 전부가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하여 기로와 그의 소대원들은 이날부터 북으로 가는 행군을 그만두게 되였다. 그대신 부상병들의 병실 한옆을 모포로 막은 좁은 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것이다.

그들이 시작한 새로운 생활은 날이 어둡기 시작하면 전투에로 떠나가고 날이 밝으면 돌아오는 그런 생활이였다.

소대 병사들은 이곳에 남는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잘 알고있었다.

어느 격렬한 전투에서 생을 끝마칠 순간에 여기 남기로 한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무엇때문에 자기들이 자청하여 이런 사명을 수행하는가를 잘 알아야 했다.

병사들은 새로 꾸린 방에서 밀렸던 잠을 자고났다. 휴식하기 위해서 이곳에 남지 않은한 잠에서 깨자부터 그들은 활동을 시작해야 했다. 그 활동의 첫순서는 앞으로 전투활동을 하게 될 주위의 지형을 료해하는 정찰이였다.

그러나 기로는 그 활동의 첫순서로 되는 정찰에 병사들이 떠나기에 앞서 모임을 조직했다.

《동무들！》

기로는 자기 생각을 대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여기에 남는다는것이 무엇때문인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압시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남는것은 부상병동무들을 방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부상병들을 위하는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짧은 생각이요.

우리는 오늘부터 적후활동을 시작한것이요. 우리가 부상병동무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것은 곧 적후에서 새로운 전투능력을 키운다는것을 의미하는거요. 멀지 않아 부상병동무들은 전투능력을 회복하게 될것이고 그 동무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게 될거요.

그렇게 한사람씩 한사람씩 건강을 회복하고 대렬에 들어서면 우리는 든든한 적후활동구분대로 되여 적들을 도처에서 쳐부실수 있소.

지금 적후에 남아서 군사활동을 진행하고있는 크고 작은 부대들은 대단히 많을거요. 얼핏 보면 그 부대들은 제각기 자기 지역들에서 활동하고있는것 같지만 실은

하나의 통일적인 정치군사적지휘체계밑에서 움직이고 있소. **김일성**장군님의 사상으로 살며 싸운다는 그 하나의 선으로 관통되여있소. 우리 역시 적후에 떨어진 하나의 소구분대로서 이 사상, 이 선으로 관통되여있소.

우리가 적후에서 미제침략자들과 싸운다는것,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사상을 실천활동에 옮긴다는것을 의미하오.》

기로의 말에 뒤이어 한사람씩 한사람씩 수령의 참된 전사답게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적후투쟁에서 굳세게 싸울것을 결의하는 병사들의 엄숙한 맹세들이 있었다. 그리고는 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제각기 떠나갔다.

그들의 병영주위에 있는 인가들과 그 주변의 적군무력배치정형, 전선으로 통한 자동차도로 및 기차선로들, 적들을 기습할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점들, 적들의 각종 창고와 그의 위치, 또한 적들이 아군병영을 공격해올수 있는 위험지구들, 만일의 경우에 부상병들을 이동시켜야 될 예비장소 등등이 정찰에서 료해돼야 될것들이였다.

병사들은 하루낮과 하루밤을 정찰현지에서 보내고 돌아왔다.

제일 먼저 돌아온것은 서쪽으로 떠났던 달서였고 마지막으로 돌아온것은 북쪽으로 갔던 준보였다.

기로는 저녁식사후 등잔불주위에 병사들을 둘러앉히고 면밀한 지도작업을 했다.

때때로 그는 병사들에게 물었다.

《여긴 땅이 어떤 빛이요?》

그러면 그 방향에 나갔던 병사는 정확한 대답을 했다.

완성된 지도에 의하면 함지골이라고 명명된 이 지점은 안전처였다. 적들은 아직 이곳에 인민군대가 있다는것을 모르고있는것이 확실했다.

적들의 어느 한 초소도 이곳으로부터의 기습을 예견하고 설치된것은 없었다. 그들 주위에 있는 적들의 동태는 무사태평인듯싶었다.
서쪽으로 면하여 전선으로 향한 도로주변에 미제침략군 두개 대대 정도의 병력이 있으나 이들은 산악지대로부터 자기네 운수부대들이 기습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는 보초조직이나 하는 정도이고 전선에 투입되든가 어데론가 이동하라는 명령을 대기중인듯했다.
동쪽에 마을들이 있었고 그 마을마다엔 소수의 보잘것없는 《치안대》나 경찰무력이 있을뿐이였다. 북쪽은 산만이고 남쪽 역시 산만이나 거기엔 기동태세를 갖춘 괴뢰군들이 점령하고있었다.
기로는 완성된 지도를 오래동안 들여다보다가 적들의 로천식량창고 《ㅅ》지점에 병사들이 시선을 집중하도록 했다.
정찰자료를 보면 적들의 식량창고는 삼엄한 경계망속에 있었다. 괴뢰군놈들이 창고를 지키고있었는데 고정된 보초병과 순찰병들이 인민들로부터 략탈해다 쌓아놓은 높은 쌀더미를 에둘러막고있었다.
북으로 향한 신작로곁에 있는 이 로천창고는 적들의 전선식량을 공급했다. 수십대씩 트럭들이 꽁무니를 들이대고 쌀을 실어날랐다.
이런 창고를 습격한다는것은 그들 네 병사만으로는 힘에 겨운 일이였다. 하지만 부상병들의 식량은 떨어졌고 손쉽게 쳐부시고 식량을 탈취할 적들의 또 다른 창고는 주위에 없었다.
결국 기로는 《ㅅ》창고를 습격하기로 했다. 그대신 깊은 밤중을 습격시간으로 택하였다.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은 한잠씩 자기 위하여 자리에 누웠다.
기로는 직일근무중인 군의에게 자기들을 정각 2시에

깨워줄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처치실로 갔다.
《힘겨운 전투가 아닐가요, 소대장동무?》
등불곁에 앉아서 치료일지를 정리하던 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깊은 밤으로 습격시간을 정했습니다.》
《저도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승인하시겠는지요?》
례영은 이미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가 하는 확고한 결심임을 상대방이 느낄수 있게 말하였다.
《그건 안됩니다.》
기로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모든 지휘관들은 자기가 직접 훈련시키지 않은 병사를 데리고 전투에 참가하기를 싫어합니다.》
기로는 거절당한걸로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하는 군의에게 다시한번 기상시간을 부탁한 다음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기로는 이곳에 남게 된 때부터 군의나 준의에게 특별한 정중성을 보였다.
그렇게 하고있는것은 이 녀군관들에게 구원자로 행세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곤경에 처한 녀성들을 구원해준 그 어떤 《대가》도 자기는 원치 않는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부상병들의 집단은 규률을 잃지 않을것이였다. 기로는 자신뿐만아니라 병사들에게도 구원자나 은인으로서 부상병들이나 녀군관들에게 행세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을 엄격히 타일렀다.
기로는 이 부상병집단에 건전한 정신이 지배할것을 원했다. 비록 원쑤들의 포위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겐 조국이 있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며 강한 규률이 있다는것을 그자신 몸소 자기의 언행으로 보여주고싶었다.
기로에게도 녀군관들과 공식적인 처지에서 물러나서 한때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싶은 생각이 없는것은 아

니였다.

특히는 녀군의 윤례영이가 매우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훌륭한 녀성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기로의 이런 생각은 보다 더 자주 떠올랐다. 지금처럼 준엄하고 곤난한 때엔 매개 녀성이나 남성들은 평화로운 시절의 10년 교제를 통해서만 나타내보일수 있는 자기의 진면모를 단 며칠동안이나 어떤 한순간에 나타내보이는것이였다.

기로는 군의 윤례영을 산속에서 만난 순간부터 그에게 열렬히 자기 마음이 끌리여가는것을 어쩌는수 없었다.

만일 그가 평상시의 사단생활에서 이 녀성이 그처럼 매혹적인 미를 지닌것을 알았다면 어느 군관처럼 이 녀군의가 야전우편통에서 받았던 편지 발신인을 알고싶어했을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례영에게 이런 감정을 나타내보이는것이 집단을 위해서 유해로운것이였다.

례영이 역시 기로의 정중성뒤에 숨어있는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있었다.

그때문에 그는 기로가 그렇게 자기를 대하면 대할수록 그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지어는 기로가 자기와 단둘이 있게 될 기회조차 피한다는것을 알았다. 준의나 자기의 소대 병사들이나 부상병들앞에서만 그는 자기와 만나군했는데 그때마저도 녀군의가 집단내에서 위신을 잃을가봐 조심스럽게 대해주군했다.

례영이가 사람들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된것은 부모의 집을 나와 전선병원의 군의로 생활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그의 주위에 있는 절대다수의 병사들에게서 그는 무쇠와 같은 불굴의 의지를 보았다. 그들은 적군 포병대의 사격권내에 있으면서도 웃고 떠들면서 롱을 했다. 또한 돌격구령을 기다리는 그런 긴장된 순간에도 자기 주머니에 담배통이 제대로 있는가를 살피는것이였다. 하지만

남자들속엔 간혹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것도 알게 되였다.

매우 의젓하고 강한듯이 자기를 위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나이가 있으며 용감성의 모범인듯 허장성세하여 우쭐대지만 실속은 그와 같지 못하여 땅도 무너질가봐 두드려보고 걸음을 옮겨딛는 사나이가 있다는것을 알았다.

이런 그의 눈으로 판정된바에 의하면 기로는 위장 없는 의젓한 사람이였고 소리없이 강한 사람이였다.

기로가 정확한 시간에 자기들을 깨워줄것을 다시한번 부탁하고 나갔을 때 방안에 남은 두 녀군관은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

방금전까지 그들은 병사들과 함께 습격전에 참가해봤으면 하는 희망을 주고받았다. 동시에 기로가 한사람쯤은 승낙할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있었다. 했으나 한마디로 거절당한 지금 그들은 유쾌한 기분이 아니였다.

10

계획했던 시간에 병사들은 《ㅅ》로천창고에 도착했다.

가시줄로 울타리를 둘러친 창고엔 쌀가마니가 무질서하게 쌓여있었다. 략탈품들인 그 쌀가마니를 지킬뿐만아니라 자동차에 실어주기 위해서 괴뢰군들이 창고안에 있었다.

정문보초와 후문보초가 있고 지정된 시간이 되면 순찰병이 다니기 싫은 무거운 걸음걸이로 돌아다녔다.

산쪽으로 면한 서쪽과 동쪽 구역은 특별히 전등장치를 해서 《위험인물》들의 접근을 어렵게 했다. 신작로쪽으로 면한 정문과 벌판쪽으로 면한 후문사이는 넓

은 창고안의 면적이 가로놓여있었다.

사위는 조용해서 순찰하는 하사가 후문보초막에 서있는 사병과 주고받는 말이 멀리까지 들려왔다.

《이상한 기척이라도 없나?》

느릿느릿 마지못해 돌고있는 순찰하사가 졸음때문에 시들하게 주위를 감시하는 보초병에게 하는 소리였다.

《없습니더.》

《그럼 졸지 말고 서있어!》

《추워서 못견디겠습니더.》

《아직은 괜찮아. 바보같은 자식, 일선용사들을 생각하란말이야!》

《알았습니더.》

그다음은 순찰을 끝내고 돌아가는 하사의 구두발소리만이 들려왔다.

가을이라기엔 늦었으나 겨울이라기엔 아직 이른 계절이언만 중부조선의 고산지대는 바람이 차거워서 남방투로 말하는 보초병으로 하여금 그런 모욕을 받도록 했다.

벌판을 쓸며 가고오는 바람이 로천창고의 가시줄울타리에 휘감기운 백양나무들의 벌거벗은 우듬지들에서 맴돌이쳤다. 더구나 지금은 서늘한 새벽기운이 옷섶밑으로 스며들었다.

보초병은 자기로부터 불과 쉰댓걸음도 못되는 거리에 네명의 인민군병사들이 다가왔다는것도 모르고 순찰하사가 돌아서자 졸기 시작했다.

그래도 보초병이라는 의무때문인지 아니면 공포때문인지 간혹 가다 눈을 번쩍 뜨고는 주위를 한번씩 둘러보군했다.

그리고는 추위때문에 몸을 으스스 떨면서 목을 움츠러뜨리군했다.

창고주변의 물이 말라버린 도랑홈채기에 몸을 숨긴 장기로소대원들은 습격순간을 노렸다. 두근거리는 심정들

이였다. 보초병을 총탁으로 처치할것인가, 단검으로 처치할것인가를 생각하던 기로는 달서에게 단검으로 처치하라고 명령했다.

달서는 단검을 씀에 있어서 손을 빨리, 또 자유롭게 놀릴줄 아는 사람이였다.

그는 단검을 빼들고 보초소의 불빛이 미치는 계선까지 기여가더니 주변일대를 재빨리 둘러보고 순찰길을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 버쩍 몸을 일으켜세우며 다가오는 뿔을 잡으러 나갈 때와 같은 날쌘 동작으로 보초에게 접근하였다.

처음엔 그놈의 입을, 그다음은 머리를, 가슴을… 이 몇가지 순서는 동시에 진행되는듯 련속적이였다. 뒤따라 배석이와 준보가 울타리안으로 들어갔으며 기로가 들어섰다. 그들은 쌀가마니를 메고 울타리를 다시 빠져나온 다음 퇴로에 들어섰다.

비상소집으로 발칵 뒤집힌 창고지기 괴뢰군들의 사격이 시작되였다. 놀란놈들은 공포로 하여 쉬임없이 사격하였다. 하면서도 놈들은 창고주변의 불빛이 미치는데까지 나왔을뿐 그밖의 컴컴한 구역으로는 발을 내밀지 못했다. 무서웠던것이다.

장기로소대원들의 지정된 퇴로는 멀리 에돌아야만 되는 우회로를 택하기로 했다.

내물소리 시원한 골짜기에 이르러 그들은 휴식했다.

가슴 부풀어오르는 통쾌감과 긴장으로 하여 어깨마다에 올려놓은 쌀가마니가 무거운줄도 모르고 예까지 온 그들이였다.

이렇게 그 다음날에도 그들은 습격전투를 했다.

적들의 피복수송대를 습격했고 통졸임수송대도 습격했다. 부상병들은 두툼하게 모포를 깔게 되였으며 내복들을 입게 되였고 외투를 걸치게 되였다.

오래동안 자리에 누워서 활동하지 못한데다가 적후

라는 압박감까지 받고보니 사기가 좋지 않았던 부상병들은 갑자기 활기띠게 되였다.

낮이면 습격전투의 신나는 이야기판을 벌리고 부상당한 전우들에게 밝고 명랑한 기분을 주기 위하여 달서나 배석이나 준보는 애썼다.

달서가 그중 많이 이야기판을 벌렸는데 그는 거짓말도 종종 섞어가며 부상병전우들의 얼굴과 기분에서 우울한 빛이 가셔지도록 했다.

군의나 준의도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토굴안에 밝은 빛갈이 명절처럼 떠도는것을 더없이 만족하게 생각했다.

《놈들은 지금쯤 떠들썩할테지요?》

군의나 준의 역시 많은 부상병들처럼 습격전투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달서는 어떤 질문이나 대답했다.

《물론 그럴겝니다. 호송대장놈은 뺨따귀나 건사하면서 이 상관 저 상관에게 불리워다닐겝니다.》

소대 병사들은 취사장일도 돌보고있었다. 식사때가 되면 식당직일관을 대신하듯 달서가 문턱에 서서 평상시의 중대나 대대 생활을 련상케 하는 구령을 치면서 야단법석을 떨었다.

《여러분, 친애하는 부상병동무들! 이제부터 저녁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밥은 물론 규정대로 800그람입니다. 중요한건 부식물인데 오늘저녁은 소고기통졸임을 한통씩 드리려고 합니다.

국은 점심때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국인데 적게 먹거나 자기 몫을 남기는 사람은 치료에 성의가 없는걸로 알고 강제퇴원을 시키렵니다.》

그 다음은 식기들이 부딪치며 배식되고 웃고 떠들고 흥성거리며 식사는 시작되군했다.

병사들은 부상병들의 침실뿐만아니라 처치실과 자기네 병실도 멋지게 꾸리는데 신경을 썼다. 자기네 소대장이 지도를 펴놓고 명상에 잠길 책상도 통나무를 찍어다가

만들고 미국놈들의 모포를 이리저리 휘감아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했다.

지금 그 통나무책상우에 지도를 펴놓고 기로는 또 하나 새로운 습격전투를 구상하고있었다.

적군 의약품수송대를 습격하기 위해서였다.

간밤에 그들은 이것을 목적하고 도로에 매복했으나 의약품수송대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래서 북으로 가는 다리를 폭파해버리고 포탄 실은 차 몇대에 불을 질러주고는 돌아왔다.

날이 어둡자 전투원들은 병실을 떠났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였다. 눈이라도 내릴듯 하늘은 낮게 흐려있었다. 차거운 바람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락엽을 안고 옮겨다녔다.

언제나 그러하듯 오늘밤도 군의 윤례영과 준의 박경숙이가 병실밖에 나와서 병사들을 배웅했다.

성공을 축원하는 그들의 음성은 항상 조심스러웠다. 병사들은 군의나 준의가 내민 손을 잡을 때면 엄숙해지면서 굳센 대답을 하군했다.

《걱정말아요, 군의동무!》 혹은 《념려하실것 없습니다, 준의동무!》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떠나갔다.

마지막으로 소대장이 군의와 손을 잡았다.

《춥군요.》

례영은 병사들에게 하던 말과는 달리 기로에겐 간단히 이 말 한마디를 했다.

《그런가봅니다.》

기로 역시 이 한마디 대답을 평범하게 하고는 병사들이 사라진 어둠속으로 발을 옮겼다. 종전엔 그들이 이런 말로 작별하군했다.

《성공을 축원해요, 소대장동무.》

《고맙습니다, 군의동무.》
《잘 싸우세요, 소대장동무.》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 군의동무.》
준의 박경숙은 군의 윤례영이가 날이 흘러갈수록 소대장 장기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것을 알았다. 하면서도 언제 한번 그 감정을 남의 눈에 띄게 밖으로 내비치는 일이 없는 군의의 굳센 성품에 놀라는 준의였다.
사실 례영이나 기로는 이런 감정이 싹트면 싹틀수록 그것을 가슴속 깊이에 묻어둘뿐이였다.
전투원들을 떠나보내고 병실로 돌아온 녀군관들은 밤마다 그렇게 하는것처럼 전투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자리에 눕지 않고 일을 했다. 오늘밤도 그들은 등잔불을 마주하고 앉아서 낮에 세탁하여 말린 부상병들의 베개잇을 씌우고있었다.
그들은 제각기 일감우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생각을 더듬었다. 례영은 이런 시각이 오면 무엇인가를 추억하거나 공상하기를 즐겨했다. 전진의 날들에도 그러했지만 적후의 날들은 특히 그에게 바쁜것이여서 이런 시각외엔 자기 생각에 잠겨볼 겨를이 없는 그였다.
생각속에 떠오르는것들은 많았다. 가족들, 학생시절의 친우들, 포탄속을 헤치며 지나온 전투의 로정들, 그것들은 토막토막 끊어졌다가 이어지기도 했고 련속된 필림처럼 끝없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밤은 어째서인지 이런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밤마다 전투에로 떠나갔다가 돌아오군하는 장기로소대장과 그의 전우들에 대하여서만 생각되였다.
례영은 전쟁 첫날부터 전투사단의 성원으로 수많은 전투를 겪었고 또 치렬한 격전장으로 떠나가는 수많은 병사들이나 지휘관들과 작별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랬으나 장기로소대장과 그의 전우들을 전투에로 떠나보내군하는 최근처럼 울렁거리는 심정을 강하게 체험하

지는 못했었다.

례영은 자기의 그 울렁거리는 심정이 때로는 《나약성과 우려》가 아닌가도 생각해보았다. 례영은 항상 자신이 강한 심장을 지닌 전투원이라고 믿어왔다. 설사 강하지 못한 구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제침략자들과 판가리결전을 진행하는 날들을 통하여 그 구석들은 메꾸어진걸로 알고있었다. 했건만 오늘밤 례영은 아직도 자기에겐 강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그것은 장기로소대장과 그의 전우들을 전투에로 보낼 때에 체험한 감정이였다.

그 감정은 비록 단 한마디 《출군요.》하는 평범한 말속에 담겨져있었기때문에 그 누구도 알수 없었지만 자신에게만은 명백했었다.

(무엇때문일가?)

례영은 새로운 베개잇을 씌우며 자신에게 물었다. 이런 물음에 대답하자면 우선 먼저 놀라야만 했다. 왜냐하면 운신조차 못하는 중상자들을 데리고 적후에 남아야 된다는 명령을 접수했을 때나, 당장 며칠을 더 살아갈 식량이 없이 된 그 곤난한 순간에도 절망이라든가 나약성이라든가 하는 감정을 가져본 일이라고는 한번도 없었던 그였기때문이였다.

이런 그가 오늘은 장기로소대장과 그의 전우들을 습격전투에로 보내면서 그 어떤 《우려》를 느꼈다.

(아니야, 아니야.)

례영은 오랜 생각끝에 자신이 제기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그 어떤 《나약성》이나 《우려》가 아니였다.

마음속깊이에 간직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사람의 신변을 념려할 때의 심정이 바로 그런것이 아니였던가.

례영은 순간 낯이 확 붉어지는듯했고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듯하여 조심스럽게 마주앉은 준의

박경숙을 살폈다. 경숙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듯이 하고 베개잇 씌우기에만 열중하고있었다.

례영은 사랑이 주는 힘과 즐거움과 꿈을 알았고 또한 사랑으로 하여 생기는 비애라든가 공포라든가 하는 감정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귀중한것인가를 오늘밤 처음으로 알았다.

갑자기 준의 박경숙이가 베개잇 씌우기를 하다말고 례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뜻있는 미소를 알릴락말락 보이고나서 다시금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떤 회상속에 잠겨지는것이였다.

그것은 남으로 진격하던 시기였다. 그들은 어느 한 갓 해방된 도시의 거리를 지나가고있었다. 그때 유리창문이 폭풍에 부서지고 대문에 탄환자욱이 있는 길가의 집에서 교향곡이 흘러나왔다. 례영은 발을 멈추고 오래동안 그 집앞에서 음악을 듣고있었다.

《어서 가요. 어둡는걸요.》

준의는 그때 례영의 옷섶을 건드렸다.

《좀더 듣고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례영의 눈에도 그 교향곡의 선률을 따라 악과의 타협없는 싸움,절망을 이겨내는 희망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히 담겨있었다.

이런 그가 실생활에서는 그처럼 열렬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태연하게 밀어버리군했다.

고대하는 마음과 밀어버리는 례영의 그 마음을 준의 박경숙이로서는 리해할수 없었다.

무엇때문일가? 준의는 그때 자기대로 생각해보았다.

언젠가 그들 둘만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준의는 물었다.

《누구를 기다려요?》

《아니요. 아무도…》

뜻밖의 질문이였으므로 례영은 그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리해 못하겠군요, 군의동무.》

그때야 비로소 례영은 준의가 무엇을 물었던가를 알았다. 아직은 기다릴 사람이 없는 례영이였다.

이런 말을 주고받은 그날 저녁 이후엔 그들 두사람사이에 또다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란 없었다. 행군, 전투, 부상병, 비상소집으로 하여 한가한 낮이나 저녁이란 있을수 없었다.

(그렇다면…)

하고 준의는 지금 세개째 부상병들의 베개잇을 씌우며 생각을 계속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는 자기 사랑을 찾아냈단말인가? 그런데 어쩌면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도 조심스러운것일가?)

이때 병실에서 부상병들이 주고받는 말소리들이 준의의 생각을 중도에서 멎게 했다.

《떠났나?》

두눈을 못보는 중사의 침통한 음성이 누구인가를 향하여 물었다.

《떠났네.》

그의 가까이에 누운 전우가 나직하나 엄하게 대답해주었다. 그 다음은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병실은 긴장된 분위기로 하여 정적만이 흐르고있었다.

전투가 무엇이라는걸 너무도 잘 체험한 그들이였다. 이런 그들이고보매 떠나간 전우들의 신상이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그들 또한 녀군관들처럼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잠들지 못할것이였다.

《우리가 만일…》

하고 병실의 먼 구석쪽에서 어깨에 관통상을 받은 특무상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런 전우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말할수 없이 어려웠을거요.》

《우리를 위해…》

하고 병사 김훈규가 긴장된 분위기에 어울리게 엄숙히 말했다.

《우리를 위해 그런 전우들이 매일밤 위험속으로 다닌다는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상처의 아픔도 잊어버립니다. 이제 회복되여 다시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동안 누워있었던 봉창을 하렵니다.》

《훌륭한 생각이요. 훈규동무, 우리가 전선이 이리로 옮겨오기전에 회복되여 크지 않은 빨찌산부대가 되더라도 대부대 못지않게 싸울수 있을거요.》

포병대대의 부소대장이였던 하사관이 한 말이였다.

또다시 병실엔 침묵이 흐르면서 병사마다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들의 생각은 벌써 빨찌산이 됐을 때의 경우까지를 상상하는데 이르렀다.

준의 역시 그때를 상상해보면서 군의를 건너다보았다. 군의 윤례영은 손목시계를 자주 내려다보면서 불안한 빛이 완연한 표정으로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적들의 의약품수송대를 습격하는 전투에서 장기로소대원들은 짧은 시간에 성공할수 있었다.

미제침략군 수송대원들은 단 한발의 저항사격도 못해보고 벼랑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병사들은 의약품상자들을 숲속으로 날라갔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북으로부터 오는 한대의 적군승용차와 부딪치게 되였다. 그들이 귀로에 오르려고 신작로를 횡단할 때였다.

고속도로 달리던 적군승용차의 미제침략군운전사는 전조등에 비쳐진 이상한 사람들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급정거를 하더니 문을 열면서 사격하기 시작했다.
승용차안엔 두놈의 미제침략군장교와 한명의 사민이 있었는데 미제침략군장교들은 밖으로 나와 몸을 피하며 사격하기 시작했다.
로상에서 치렬한 사격전이 벌어졌다. 사격전은 배석이가 적들의 승용차를 수류탄으로 폭파해버릴 때까지 계속되였다.
자기들이 타고 오던 차가 부서지는것을 보자 미제침략군장교들은 벼랑밑으로 기여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미제침략군장교들이 그렇게 사라지자 뒤바퀴에 의지하여 어찔바를 모르고있던 사민은 손을 들고 다가왔다.
《어찔가요?》
준보가 불의의 전투를 겪느라고 지나치게 엎드려있다가 때늦게 일어난후 자기앞에 다가와 선 신사를 가리키며 물었다.
《데리고 가기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려고 서둘렀다.
《당신도 이걸 한짝 메보지 않으려오?》
로획한 상자를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갈 욕심으로 준보는 그 신사에게 청을 대보았다.
그 신사는 거절하지 않고 한쪽 어깨를 슬며시 내밀었다.
병사들은 산으로 올라와서 병실로 가는 본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우회로를 걸을 때까지는 간신히 따라오던 신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는 본길에 들어섰을 때는 허청허청 짐의 무게에 눌리워 비칠대더니 끝내는 쓰러지고말았다.
《난 늙은 사람이요. 짐짝같은건 더구나 메본 일이 없소.》
쓰러진채 그 신사는 일어날 념도 하지 않고 기로를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기로는 그더러 다시 짐짝을 메라고 말하지 않았다. 배석이가 본래의 자기 짐우에 그가 메고 오던 상자를 더 올려놓고 걷던 길을 계속하기로 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내리는 눈이였다.

숨쉴 짬조차 없었던 벼락같은 두차례의 전투를 겪어야 했고 급하게 무거운 짐을 메고 철수해야 됐던 그들의 온몸은 땀으로 함뿍 젖어있었는데 눈송이를 받자부터 가쁜한 기분이였다.

대렬의 중간위치에서 걷던 신사는 공포로 하여 병사들을 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걸으면서 그는 자주 넘어졌는데 산으로 걸어본 일이라고는 한번도 없었다는것이 확연히 알렸다.

몇차례 나무가지에도 걸리고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고난 그는 드디여 최후의 용기를 내서 기로를 불렀다. 기로와 마주서게 됐을 때 그는 어떤 비장한 결심을 한듯 담대하게 눈을 부릅뜨고 입을 열었다.

《저를 언제쯤 총살하렵니까?》

기로 또한 이때야 비로소 그를 면전에서 보게 되였는데 어둠속에서도 늙은 사람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우리는 아무나 함부로 총살하지 않소.》

《하지만 전쟁에서는 례외로 되는 경우도 있는겝니다.》

《침묵은 우리의 적후행군에서 법으로 되여있소. 입을 다물고 대렬을 따라오시오.》

신사는 인민군대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총살하지 않는다는건 모르는듯했다.

《지금 무엇으로나 저에게 그것을 보증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대렬을 좇아가지 않으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며 추태를 보이다가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좋을것 같습니다.》

그 신사는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더니 허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탄환을 받으려 했다. 그의 대담한 이 도전은 접수되였다.

《좋을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기로는 권총을 꺼냈다.

《여기서 이제 당신을 죽이렵니다. 하지만 나는 인민군대 군관으로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우리에게 잡힌 몸이기때문에 죽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심스러운 적후의 밤길을 더디게 하려고 하기때문에 죽는다는것입니다.》

말을 끝내자 기로는 권총을 높이 쳐들었다.

《그것을 믿어도 좋습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나에게 순종하면 당신의 생명은 무사할겁니다.》

기로는 권총을 도로 넣었다. 그 신사도 더는 뻗대지 않고 대렬을 따라섰다.

대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실에 돌아와서 기로와 신사는 등불이 놓인 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 향하여 앉았다.

등불앞에 앉은 그 신사는 매우 사치하게 몸맵시를 낸 반백의 늙은이였다. 그에게서는 아직도 향수냄새가 풍겼다. 희디흰 살결, 불룩하긴 하나 위풍있게 나온 배, 턱밑의 알릴듯말듯한 군살이 그의 거만성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큰 눈과 함께 외모의 특징을 이루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어떤 부대의 성원들에게 붙들려왔는가를 대체로 짐작하고나서는 입이 쓰다는듯 랭소를 머금고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을 심문하렵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시오.》

기로는 정식으로 그와의 담화를 시작했다. 만일의 경우에 자기 혼자 리해 못할 대답이 있을것을 예견하고 군의

례영이가 함께 그를 심문하기로 했다.
《나는 의사이며 박사이며 교수인 리두찬이요.》
《우리와 만나기 직전에 당신은 어데서 어데로 가던 길이였소?》
《평양에 출장왔다가 돌아가는길이였소.》
《전선은 현재 평양근방이요?》
《평양이 점령된지는 오래였소. 지금은 청천강 훨씬 이북이요.》
《평양에 출장갔던건 직무상 용건때문이였소?》
《그렇소. 전선에서 부상당하여 평양까지 후송된 한 사단장이 거기서 수술을 받게 되였는데 자기의 수술을 나에게 부탁해왔더랬소.》
《평양에서 시행한 당신의 용무는 그것이 전부요?》
《또 한가지는 평양주둔미군사령부의 강요에 의하여 한 옛친구를 방문했더랬소.》
《그건 군사상 용건이였소?》
《정치적필요성을 띤 용건이였소.》
《죄다 말하시오.》
《평양엔 나와 젊은 시절의 친구였던 윤치경이란 명망 높은 의사가 있소.》
그는 바로 자기앞에 앉아있는 녀군관이 윤치경의 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다.
《계속하세요. 그가 미군사령부와 무슨 관계라도 있었어요?》
례영은 기로까지도 자기가 윤치경의 딸이라는것을 눈치챌수 없을 정도로 두근거리는 마음속을 밖으로 내비치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되지나 않을가?)
례영은 참혹할수도 있고 절망을 줄수도 있으며 기쁨을 줄수도 있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태연한 표정으로 들으려고 굳게 마음먹고있었다.

11

…평양은 강점되였다.

강점자들의 무시무시한 땅크행렬과 장갑차행렬이 이 아름다운 도시의 활기를 걷어버렸다.

집집의 들창마다엔 문보가 무겁게 드리워지고 대문들엔 빗장이 든든하게 질려졌다. 장난에 취한 꼬마시민 하나 볼수 없고 녀인들의 웃음소리 하나 들을길 없이 된 평양이였다.

적막하고 싸늘한 공기가 강점자들을 맞아주었다.

미제침략군의 장성들은 셀수조차 없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기여든 아시아의 이 오랜 도시가 자기들을 외면해버린데 격분했다. 그놈들의 격분은 극도에 달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잔인한 명령서를 작성하게 했다.

《닥치는대로 죽이라! 빼앗으라! 이렇게 할 때만이 그들은 아메리카와 등지고 살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될것이다.》

하지만 본국에 앉아있는 보다 더 급위가 높은 장성들은 또 다른 명령서도 동시에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달래여보라. 미소로 대해보라. 우리가 이 아름다운 도시의 주인으로 될진대 그들에게 환심도 사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두개의 명령은 동시에 집행되고있었다. 방화와 살인이 백주에 대로상에서 진행되고 략탈행위는 시선이 멎는곳마다에서 볼수 있게 되였다.

의사 윤치경은 조상대대로 평양에서 살아온 사람이였건만 평양이 강점된 이래 하는 일이란 넓은 서재에 우두커니 앉아있는것뿐이였다.

그는 후퇴도중 숙천평야에서 미제침략군락하산병들을 만났다. 길이 막혀버린 그는 집으로 되돌아와서 첫날부터 이처럼 자기 서재의 문이나 지키고있었다. 종종 문보를 헤치고 밖을 내다보면 침략자들의 가증스러운 행위가 눈에 띌뿐이였다. 그래서 그 바깥마저 내다보기를 그만두고 자기와 외부세계와는 완전히 담을 쌓아버렸다.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고 그 또한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출근할 병원도 없었고 진찰해야 될 환자도 없었다.

전선형편이 궁금하여 라지오스위치를 넣어봤으나 라지오는 고장났었다.

그것을 손수 고쳐보려고 애써보았지만 그에겐 유감스럽게도 라지오를 수리할만한 솜씨가 없었다.

안해와 둘째딸과 어린 아들은 그의 이 울적한 기분을 덜어주려고 몇가지 일을 생각해냈으나 고향이 적들에게 강점되고 맏딸이 전선에서 어찌됐는지 소식조차 모르는 때에 그를 기쁘게 해줄수 있는 일이란 있을수 없었다.

세상은 마치 이 이름높은 의사를 잊기나 한듯하더니 뜻밖의 손님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방문객은 이웃의 중년부인이였다.

《안녕하세요?》

《아직은 무사합니다. 댁에서도 무사하십니까?》

치경은 답례로 묻긴 했으나 그 이웃이 무사하지 못하다는것을 인차 알수 있었다. 그것은 이웃녀인의 옷차림이 주름살투성이였기때문이였다. 치경은 스무해도 넘게 이 점잖은 중년부인과 이웃하여 살아왔지만 그의 옷에 주름간것을 본 일이란 없었다.

《어제밤부터 주인이 의식을 잃고있습니다.》

부인은 매우 조심스러이 이 말을 했다.

《뭣때문인가요?》

치경의 눈앞엔 어느 공장의 기사장인 부인의 남편이 그려졌다.

《지하공작중 적들의 사격을 받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부인은 재빨리 치경의 낯빛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면서 불안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이가 말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치경은 주저하는 빛 하나 없이 일어나서 가방속에 의료용 기구들을 넣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부인은 말할수 없이 험한 시절에 지하당원의 생명을 구출하고저 선선히 일어서주는 치경에게 감동되였다.

치경은 부인을 따라나섰다. 했지만 이웃집에서 그들을 기다리고있는건 헌병놈들이였다.

환자를 체포하여 이미 헌병대로 보낸 놈들은 가택수색을 하던중이였다.

《당신은 누구요?》

치경이가 들어서는걸 보자 가택수색을 지휘하던 헌병장교놈이 날카롭게 물었다.

《난 의사요.》

《그런데 이 집엔 뭘하러 왔어?》

《환자를 치료하려고 왔소.》

치경의 태연한 이 대답이 헌병장교놈의 비위를 이중으로 상하게 했다.

《늙은놈이 겁도 없단말이야. 실어라! 보통놈이 아니다.》

그러자 헌병놈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짐짝 던지듯 자동차적재함우에 올려던졌다. 자동차는 헌병대의 류치장앞에 가서 멎었다.

치경은 헌병놈들에게서 개자식이란 말로 불리우면서 등을 미는대로 컴컴한 류치장에 들어갔다.

그에 대한 심문은 헌병대장이란놈 자신이 직접 했다.

《당신이 의사 윤치경이요?》

《그렇소.》

헌병대장놈은 키가 크고 턱수염을 민 면도자리가 또렷하게 보이는 말쑥한놈이였다.

《당신이 지하당원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던건 사실인가?》

《그렇소.》

그러자 헌병대장놈은 더 확인해볼것이 없다는듯 일어서며 문지기졸병에게 말했다.

《비준한다, 집행시간까지 대기시켜.》

헌병대장놈은 총살자들을 비준하기 위해서만 심문하는 일을 하고있는듯했다.

총살하기로 비준된 사람들이 있는 감방으로 끌리여간 치경은 거기서 하루밤을 뜬눈으로 보내였다.

감방안은 비좁았다. 총살이 비준된 사람들은 몸과 몸을 잇대고 앉아서 서로가 따뜻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치경은 그들과 대체로 안면이 있었다. 그들 역시 치경을 알고있어서 좁은 감방안에서도 자리를 넓혀주려고 했다.

밤중에 한차례, 새벽녘에 한차례 놈들은 이 감방에서 사람들을 불러내다가 사형장으로 데리고갔다.

치경은 아침에 불리여나갔는데 그를 태운 자동차는 사형장이 아니라 《평양주둔미군사령부》로 갔다.

거기서는 쉬임없이 담배를 피우는 미제침략군장성이란놈이 치경을 기다렸다.

《당신을 부른것은 석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헌병장교들은 인재를 아낄줄 모르는것이 큰 약점입니다.》

그놈은 제법 사람좋은 웃음까지 보였지만 이런 뜻밖의 일에 부딪친 치경은 석방이란 말외에 아무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선생과 같은 고명한분이 평양에 있다는것을 나는 전부터 알고있었습니다. 내가 알고있는 한국인 의학박사 리두찬씨가 선생말을 이따금 했습니다. 리박사는 우리 미군들을 위해 일하는걸 좋아하는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미계렬에 속하는 인사는 아닙니다. 과학자는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결한분이지요.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후에도 불상사가 생기면 평양사령부의 모리스 케필을 찾아주시면 방조를 받게 될겁니다.》

치경은 미제침략군보초병이 서있는 《점령군사령부》의 정문을 나섰다. 그는 눈물로 밤을 보냈을 가족들을 그리면서 거리를 걸었다. 보통때와 다름없이 하늘복판에 해가 높이 떠서 빛을 뿌렸지만 음산한 기운만이 도시의 골목들과 거리를 떠돌았다. 전같으면 김장철이여서 김장감을 실은 트럭들이 분주히 오갈게고 군밤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오련만 지금은 싸다니는 미제침략군들만이 보이고 들리는것은 그들의 땅크소리뿐이였다.

미제침략군련합부대의 군악단이 거리를 행진하고있었다. 이 살풍경한 도시에 활기를 넣어보려고 사령관놈은 주둔부대의 군악단을 거리로 내몰았다. 가련한 나팔수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거리를 걸으며 목에서 비린내가 날때까지 나팔을 불었다.

《…석양노을 붉게 타고

까마귀는 슬피 우는데…》

반복하여 불어대는 그들의 이 낡은 곡은 치경이자신도 젊은 시절에 들은바 있는것이였다.

치경은 그 미제침략군 군악단의 행진대렬을 보면서 오래전 옛날에 새로 도착하여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저 나팔을 불며 돌아다니던 신파연극단들을 회상했다. 시대를 따라 바뀌여지는 고향거리의 풍조를 너무도 잘 보아온 그였다. 그때만 해도 계절조와 같이 떠돌던 그

신파연극단들의 나팔행렬엔 애들이 합쳤고 시민들의 친절한 성원이 있었다. 했건만 이 미제침략군 군악단의 행렬은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저희들끼리 이리로 한바퀴, 저리로 한바퀴 돌아보는것이였다.

이 처참한 고향거리를 걷고있는 치경의 심장은 자주 멎는듯 고통스러웠다. 세계지도에 뉴욕이나 워싱톤이란 도시가 생겨나리라는것조차 아무도 상상 못했던 아득한 옛날에 벌써 찬란한 문화와 위용을 갖춘 문명한 대도시로서 이름을 사해에 떨치던 평양이 미제야만들에게 뜯기우고 짓밟히는것을 본다는것은 그에게 있어 너무도 큰 고통이였다.

치경은 걸음을 옮기다 말고 눈앞에 그려지는 그리운 영상들로 하여 한동안씩 멎어서서 눈을 감아야 했다.

이 고향거리는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하신 거리였다.

20성상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간악한 일제침략자들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신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던 그날의 평양과 이 거리는 꽃의 바다였다. 환호의 바다였다!

그날부터 평양은 잃었던 민족의 정기와 활기를 되찾아 재생의 길에 올랐었다.

치경의 눈앞엔 또한 이 거리로 명절이면 강물처럼 흘러가고 흘러오던 시위대렬들이 떠올랐다.

붉고 푸르고 흰 각색의 고무풍선들이 하늘높이 오르고 사람들은 끝없이 끝없이 **김일성**장군님의 만수무강과 조국의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만세 높이 부르며 이 거리로 흘러갔다.

치경이가 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전선으로 나가는 인민군용사들을 바래운것도 이 거리에서였다.

전선으로 나가던 그 인민군용사들속엔 그의 딸 례영이도 있었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고 승리한 병사가 되여 돌아

오라 딸을 보내던 거리…

그 거리에 지금은 미제침략군 야만들이 굶주린 이발을 앙다물고 돌아다니는것이다.

그가 강안거리에 들어섰을 때도 쓸쓸하기엔 일반이였다. 이맘 때면 부지런히 비자루로 락엽을 쓸고있던 련광정관리원할아버지의 모습도 지금에 와선 그리워지는 치경이였다. 그 성실한 관리원이 없는 강안거리엔 휴지들만이 제멋대로 바람에 날아다니고있었다.

집으로 와서 목욕을 하고난 치경은 깊은 잠을 한잠 자고 일어났다.

간밤 겪고난 무서운 사실이 그제야 비로소 명백하게 되살아났다. 일평생을 진찰실에서 성실하게 살았으며 가정에서는 인자한 세대주로, 학교들에서는 성의있는 학부형으로 살아온 이 늙은 의사는 자기가 하루낮 하루밤 동안에 직접 겪었고 눈으로 봤으며 귀로 들은 잔인한 죄악들을 용서할수 없었다.

(하마트면 나도 지금쯤은 사형장의 흙에 묻혔을게 아닌가?)

생각하면 전신이 부르르 떨려왔다. 그는 난생처음으로 입밖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내보냈다.

《천하에 함께 못살 개자식들이야.》

그의 안해도 자기 남편이 개자식이라고 남을 욕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았다. 이 말은 그로서 최대의 증오를 퍼붓는 표현으로 되였던것이다.

(그런데 참, 그 미제침략군놈이 리두찬의 이름을 외웠지?)

그때엔 모든것이 아리숭해서 석방이란 말만 귀에 들렸을뿐이였는데 이제금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안해를 보며 물었다.

《당신도 리두찬선생을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그이를 잊다니요.》

《모를 일이 하나 생겼단말이요.》
《모를 일이라니요?》
《웬 미국놈이 그 사람 이름을 외웠단말이요.》
《그렇다면 리선생은 미국놈편이나 되지 않았을가요?》
《제놈의 말로는 그 사람이 반미분자는 아니나 미국놈들과 일하기는 원치 않는다고 한것 같은데…》
《…》
《…》
부부는 생각에 잠겨 우울한 낯빛으로 앉아있었다. 짐작되는 사실은 십중팔구가 《그럴것》이였기때문이다.
젊은시절엔 아름다운 우정관계가 깊이 얽혀져있던 두 집이였다.
윤치경과 리두찬은 도꾜에서 5년동안 한방에서 하숙하며 류학했었다.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제각기 자기 고향에서 살게 되여 한사람은 서울에, 다른 한사람은 평양에 있었다. 그랬지만 그들의 왕래는 빈번했다. 왕래목적이란 친구가 보고싶다는것뿐이였다. 그때면 부인들 역시 동행했었다.
리두찬부부가 윤치경부부를 마지막으로 찾은건 그들부부가 일본으로 다시 떠나기 앞서 작별차로 온 때였다. 두찬은 그때 친구의 세살난 딸을 안고 마당의 잣나무곁에서 사진을 찍었다.
《내가 다시 올 때면 례영이가 몰라보게 큰 처녀가 될걸세.》
두찬은 이제 가서 성공하기전엔 돌아오지 않을 각오가 돼있었던것만큼 비장한 기분으로 말했었다. 그가 일본으로 다시 가는것은 보다 큰 성공을 원해서였다.
일본에서 그는 학직과 학위를 얻었고 명성도 높게 되였다. 편지가 두 벗사이에 정상적으로 오고갔다. 광복되여 두찬은 서울에 왔으나 두 벗이 만날수는 없었다.

38선이 이제는 두 벗을 갈라놓고 편지거래조차 못하게 했다. 광복후 남조선엔 계속 미국놈들이 있었고 명성이 매우 높은 두찬이고보매 미국놈들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관계가 있음직한것이나 군인, 그것도 화약냄새가 몸에 푹 밴 장성급과 가까이 지내게 되리라고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치경이였다. 치경이가 옛벗을 아는 한에서는 결코 그가 미국놈의 손발이 될수는 없을것이였다.

그렇다고 마음이 강하거나 정치적관심이 큰 사람이 못되고보니 놈들이 해달라고 강요하는것이면 거절하지 못할것이였다.

그날 어둡기 시작할무렵에 치경의 집으로 《시청관리》가 찾아왔다. 자기를 새 《시청관리》라고 소개하는 그 늙수그레한 사람은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것 같기도 한 사람이였다.

그 사람은 치경을 새 시립병원 원장으로 임명하겠는데 의향이 어떠냐고 물었다.

치경은 한두마디로 거절하고는 그 사람이 일어나 갈때까지 외면하고있었다. 그 다음날엔 아침 일찌기 신문기자가 와서 원고청탁을 했다. 점령군들에게 《공산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준 감사를 드리는 내용의 글을 써달라는것이였다.

《그런 글은 새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써야 되지 않소?》

치경은 더럽기짝없는 요구를 하는 기자를 물끄러미 건너다보다가 거절해버렸다.

《그렇지만 상부의 지시가 선생님에게 씌우도록 하라는겝니다.》

《그건 또 어째서인가요?》

《민심을 수습하는데 선생님 이름이 필요하다고 상부는 생각합니다. 평양의 모든 학교, 관청, 병원들이 문을 열고 정상상태로 되게 하자는게 상부의 당면방침입

니다.》
원고청탁은 끝내 접수되지 않았다. 기자는 돌아가면서 위협조로 치경을 흘겨보았다.
강점된 평양의 하루하루는 공포의 분위기속에서 흘러갔다. 시민들의 생활 역시 극도로 궁핍해졌다. 윤치경일가도 귀중품을 하나씩하나씩 들고 나가서 시장의 흥정판에 내놓았다.
어느날 늙은 의사는 집에 누워있고 그의 안해는 남편의 양복 한벌을 들고 시장으로 나가려고 대문을 열었다.
했을 때 대문밖에 승용차 한대가 와서 멎어섰다. 부인은 못본것처럼 하고 지나려는데 차에서 내린 풍채 좋은 신사가 감개무량하여 목이 메는듯한 목소리로 그를 멈춰세웠다.
《접니다, 리두찬입니다.》
그러자 부인은 크게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리두찬은 자기 주머니에 남아있는 담배갑에서 마지막 담배를 꺼내물었다.
《했지만 우리의 상봉은 내가 생각했던것처럼 즐거운것이 못되였소. 모리스 케필은 나의 옛 동료를 새 〈정권〉에 협조하도록 하라고 나를 강박했지만 나의 동료는 〈원장〉직에 취임하기를 단호히 거절해버렸소. 나의 옛벗은 우리의 그 존귀했던 전날의 우정마저 기억하는상싶지 않게 나를 랭대했소.
〈이렇게 만나니 반갑네. 하지만 자네가 민족반역자에게나 요구할수 있는 부탁을 가지고 내앞에 나타난건 슬픈 일중에서도 가장 슬픈일이야. 우리의 우정도 인젠 끝장이 났네.〉
벗의 이 말은 나를 아프게 때렸소. 나는 벗의 집에서 이틀간이나 묵으면서 옛날의 우정도 회복해볼겸 모리스 케필의 강요도 있고 해서 권해봤지만 허사였소. 벗의 작은

딸과 아들은 나하고 말조차 하지 않았소. 벗의 맏딸은 전선에 나갔기때문에 없었소. 설령 그가 집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를 대함에 있어서는 자기 형제들과 같았으리라고 생각하오.

당신들이 들은바처럼 나는 아무런 군사상 자료도 제공할것이 없는 사람이요. 나를 좀 눕게 해주시오.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하오.》

기로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문밖엔 굵은 눈송이들이 쌓이고 바람기 하나 없었다.

기로와 례영은 리두찬이가 누운후에도 그 자리에 오래동안 앉아있었다.

두사람 다 강점된 고향—평양을 생각하며 울적한 기분이였다.

12

부상병들의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여가고있었다.

장기로소대원들이 몇차례의 기습전에서 성공한 지금 이들 부상병 집단엔 필요되는 식량과 약품이 마련되였다. 준의나 군의는 이젠 부상병들에게 《린색》하지 않은 치료를 해줄수 있었다. 야전용 구급수술기구가 든 상자들마저 로획품속에서 찾아내였다.

례영은 부상병들의 몸에 박힌 파편쪼각들을 꺼내는 수술도 진행하였다. 전투원들도 밤에는 기습전을 하기 위해 병실을 떠나갔지만 낮에는 유쾌한 위생병이 되여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다. 활기있는 말소리들이 병실을 채우고 적후라는것을 잊게 하는 웃음소리들이 멎지 않았다.

오직 동료도 하나 없이 무료한 생활을 하고있는 리두찬

만이 이 화목한 사람들의 집단밖에서 쓸쓸한 기분으로 지내고있었다.

그는 부상병들과 그들을 위해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위험하기 짝없는 전투에로 떠나갔다 돌아오는 네 병사를 말 하나 없이 심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하는 일 없이 보내는 생활에 못견딜 정도로 싫증을 내고있었다. 하면서도 그는 장기로나 윤례영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소대병실에서 지내고있었다. 그랬기때문에 밤에는 혼자 잤고 낮에도 역시 혼자 그 방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던 두찬은 어느날,아침마다 산보할수 있게 해달라고 기로에게 요구했다. 기로는 그의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날부터 두찬은 아침마다 산보하였다. 지정된 그의 산보로는 병실뒤 절벽밑의 시내물 흐르는 낮은 둔덕이였다.

병사들이 교대교대로 그가 산보할 때면 동행하였다.

두찬은 생각에 깊이 잠겨 높은 절벽밑을 천천히 거닐었다. 종종 그는 말동무가 그리운 눈치였으나 동행하는 병사들과는 말을 건늬기 어색해했다. 그랬던 그 어색함도 하루 이틀 지나게 되자 결국은 없어지게 되여 한번은 준보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나이도 많은것 같은데 병사생활이 고달프시겠구려.》

준보는 그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보는것을 이상스러이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당신들과 같은 부르죠아착취자들과 싸우는데 나이가 관계있나요.》

《나는 부르죠아가 아니라 그저 지식인에 지나지 않소.》

두찬은 이 시골농민출신의 순진한 병사가 이런 대답을 하리라고는 예기치 못했던것이라 당황했다.

《지식인도 어느 계급을 위해 복무하는가가 문제로 되지요.》

준보는 정치상학시간에 배운것을 잊지 않고있다가 적절한 기회에 써보는것이였다.

두찬은 이런 일이 있은후엔 동행하는 병사들과 더는 말을 건늬지 않았다.

달서는 준보와는 또 다르게 두찬이를 대하였다. 준보는 그래도 두찬의 신사풍에 농군다운 호기심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달서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신사들이란 신사들은 싫증날 정도로 본 사람이라 두찬의 신사풍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종종 두찬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주고싶었으나 규률때문에 참는다는 표정이였다.

배석은 산보시 두찬에게 정신적부담을 기중 덜 주는 편이였다.

그는 두찬이와 얼마간 함께 걷다가는 혼자 떨어져서 웃옷을 벗어던지고 개울물로 랭수마찰을 하든가 눈덩이로 온몸이 붉어지게 비벼대였다. 그래서 이때면 두찬은 혼자 거닐면서 현재의 자기 처지를 생각하여 탄식의 긴 한숨을 지어보는것이였다.

하면서도 주위에 누가 있으면 언제나 신사도를 잃지 않으려는 자존심으로 살고있는 두찬이였다.

병실생활에서도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대하였다.

외과학에서 이름높은 그였건만 례영이가 힘에 겨운 수술을 하면서 고심할 때도 방조로 될만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런 태도에 기로는 격분하지 않을수 없었다.

기로는 몇번이나 그자의 상통을 갈겨주고싶은 증오가 가슴속 깊이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는것을 참느라고 무척 애써왔다. 손을 들고 다가온 비무장인원을 란폭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강한 규률의식만 없었더라도 이 증오

는 기어이 터뜨려지고야 말았을것이다. 규률을 존중하는 기로의 높은 지성이 이 자존심 센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의 생활을 안정상태에서 보내도록 했다.

했건만 두찬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을 쳐들고 처녀군의가 불충분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간단한 수술기구로 부상병들의 몸에서 쇠쪼각들을 꺼내는것을 신기한 것이나 보는듯이 바라보면서 앉아있을뿐이였다.

어렵고 복잡한 대수술을 속한 시간내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명을 잃을 우려가 있는 부상병들도 있었지만 례영은 단신으로 그들의 수술을 감당해내려고 마음먹고있었다. 그래서 례영은 여러번 그런 수술을 하려고 다가섰다가는 다시금 물러서면서 주저했다. 아직은 그런 수술을 하리만큼 세련되지 못한 자기의 손과 기구가 그를 주저하게 했다.

《어쩌면 좋습니까? 소대장동무.》

그때마다 례영은 소대장의 결심을 듣고싶어했다.

《…》

기로는 언제나 방안에 앉아서 할일없이 명상에 잠겨있는 리두찬의 높은 기술을 생각하지 않는것이 아니였다. 례영이 역시 그것을 생각하고 한 말이였다.

《군의동무자신이 하도록 합시다.》

기로는 존귀한 자기 전우들의 수술을 그 신사에게 부탁하고싶지는 않았다. 다만 그로부터 군의에게 방조로 될만한 몇가지 의견정도나 듣기로 했다. 포로들로부터 군사문제의 정보를 얻어내거나 환경이 불가피하여 기술상 몇가지 의견을 듣는것쯤은 보다 큰것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였다.

기로는 두찬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아시는것처럼, 우리의 군의로써는 혼자 처리하기 곤난한 수술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몇가지 조언을 주실걸 바랍니다.》

두찬은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한 소대장이나 처녀군의가 언제건 이런 부탁을 하고야말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는 표정으로 기로를 거만하게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만 제 머리는 지금 그런 조언을 주리만큼 정리되여있지 않습니다.》

두찬은 명백하게 거절했다. 그는 《유엔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가고있는 때에 인민군대 부상병들의 생명을 건지는 수술을 이렇게나마 방조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기로는 그의 이런 심정을 들여다보고 분개했으나 자기의 병사들과 부상병들앞에서 그를 란폭하게 대할수는 없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말을 걸었다.

《당신은 나에게 그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까?》

기로는 《그 무엇》이란 말에 힘을 주어 두찬을 자극하려고 했다.

《그것은 제가 자유로운 몸이 되는것뿐입니다.》

《약속합시다.》

하고 기로는 그가 내놓는 요구조건이 아무리 큰것이라 하더라도 인민군부상병들의 생명에 비해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생각하고 주저없이 대답했다.

《우리가 여기서 떠나게 될 때 당신은 자유로운 몸으로 될겁니다.》

기로의 이 약속은 두찬이로 하여금 수술받을 부상병들이 있는 간막이 저쪽 병실로 가려고 일어서게 했다. 그리하여 방금전까지의 자기 태도를 버리고 이 이름높은 외과의사인 박사는 이름조차 몰랐던 인민군부상병들의 수술을 방조하게 되였다.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은 매일 계속되였다. 례영은 진종일 긴장된 수술을 하면서 두찬에게서 필요한 의견을 들었다. 그외 두사람사이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어느날 례영이가 가장 어려운 한 부상병의 수술을 끝내고 땀을 씻으며 휴식할 때였다.

그동안 수술대의 곁에 서서 인민군 처녀군의를 눈여겨 살피던 리두찬은 확신성있게 말했다.

《아가씨는 윤형의 따님이십니다.》

례영은 그가 자기를 알아본데 놀랐다.

《세상엔 참 놀라운 일도 있군요. 아가씨를 이렇게 만나다니요.》

례영의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자 두찬은 모든것이 분명하다는듯 긴 탄식조로 말을 끝내며 두 무르팍짬에 머리를 떨구고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두찬은 수술대곁에 붙어선 첫날부터 이 처녀군의의 일솜씨가 매우 높은 기술을 지닌 선배로부터 배운거라고 생각해왔다.

사실 례영은 의학대학의 전기간에 이름높은 교수들로부터 일솜씨를 배웠고 또 저명한 의사인 아버지의 수술기교들도 많이 본받은것이다.

날이 지나감에 따라 그는 이 처녀군의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것은 인민군대 규률때문만은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그리고 보면 이 처녀군의의 어떤 수술기교는 그도 잘아는 윤치경의것이 그대로 옮겨져있는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도 이 처녀군의는 자기가 누구라는것을 끝내 숨기려 하고있었다.

《…제가 례영입니다.》

례영은 어색해져서 대답을 제때에 하지 못하다가 늦게야 입을 열수 있었다.

례영이가 철들어 리두찬을 처음으로 본것은 자기 집의 사진첩에서였다. 그날 례영은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어떤 낯모를 신사가 애기시절의 자기를 안고 마당의 잣나무곁에 서서 찍은 사진에 시선을 멈추었다.

《이분이 누구나요?》

그때 아버지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서 딸이 사진첩을 뒤적이는것을 바라보며 퇴근후 피로를 풀고있었다.
《그분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벗이다.》
《지금은 어데 계셔요?》
《도꾜에 있다.》
《거기서 뭘 하는데요?》
처녀의 호기심은 대단했다.
《연구사업에 종사하고있다. 의심할것없이 성공할게다.》
그 다음 아버지는 혼자 말했다.
《좋은 벗이였지. 보고싶은걸.》
례영은 지금 자기앞에 앉아서 머리를 숙인 이 늙은 아버지의 옛 동료를 보면서 사진에서 보았던 젊은 그 신사를 회상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그때의 말들을 회상했다. 또한 민족반역자만이 할수 있는 부탁을 들고 자기 집에 나타난 옛벗을 보고 놀랐을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이 그려졌다. 그 순간 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두고 그리워하던 벗이 이런 몰골로 나타난 사실이 꿈이나 아닌가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것을 알게 되자 배반당한 우정으로 하여 분격했을 아버지의 심정을 례영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저는 지금 당신께서 저의 집에 다녀오시는길임을 알고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분사이에 슬픈 상봉이 있었음도 상상할수 있어요. 집에서는 당신을 전처럼 맞아주지는 않았을거예요. 저 역시 당신을 친절과 존경심을 품고 대할수는 없어요.
우리에겐 애정이나 우정이 조국이란 건드릴수 없는 높은 존재의 리익앞에 복종돼야 해요. 조국이나 민족의 리익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우정이나 애정도 우리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오직 적이 있고 아군이 있을뿐

이예요. 제 말이 너무 차게 들리시지나 않는지 모르겠어요.》

례영은 자기가 왜 그동안 리두찬을 모르는척하고 지냈는가를 알려주어야 했다. 그렇게 하는것은 윤치경의 딸들이 례절없는 처녀들이 아니라는것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했고 인민군대의 병사나 군관들이 지키는 신조가 뭣인가를 인식시켜주는데 필요했기때문이다.

리두찬은 머리를 숙인채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옛 동료의 딸이 하는 말을 듣고있었다.

저쪽 부상병들의 병실과 취사장쪽에서는 식기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고 준보와 달서가 배식하며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두찬은 자기가 거처하는 방으로 가기 위하여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나도 그것을 리해할수 있는것 같소.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되니 생각되는바가 많소.》

저녁식사후 두찬은 장기로소대장이 혼자 있는 틈을 리용하여 그를 찾아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민군병사들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찾아가는 일이 없던 두찬이였다.

그랬던 그가 오늘저녁 기로를 찾아와서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밤도 떠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로는 그가 자기와 말하고싶어하리만큼 기분이 달라진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당신의 부하들은 부러울 정도로 성실하더군요. 그런 병사들을 지휘하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하고 리두찬은 오래동안 궁금했던 문제가 있다는듯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전선이 압록강이북이나 두만강이북으로 옮겨간다면 전쟁은 사실상 끝날것입니다. 그때에도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있으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리두찬의 얼굴표정은 전에없이 무거웠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될 최악의 경우를 가상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한두해도 아니고 보다 더 긴 세월일수 있다면 당신은 이 부상병집단을 현상태대로 보존하리라 믿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상병집단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한 적후의 전투부대로 될것입니다.》

기로는 자기가 상대방이 놀라리만큼 명백한 대답을 하게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당신은 현재의 전선이 곧 남쪽으로 옮겨지리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있습니다. 전선은 머지 않아 반드시 옮겨올것입니다. 그것을 당신 눈으로 직접 보시게 됐으면 합니다.》

리두찬은 더 이상 묻기를 그만두었다. 그의 침묵은 이 젊은 군관의 믿음을 리해하지 못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전선이 옮겨오다니? 전선은 지금쯤 압록강을 넘었을는지도 모르는데…)

두찬은 일어나서 자기가 거처하는 방으로 가서 오래도록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며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기승을 부렸다. 뺨을 내밀면 칼로 에일듯 추위는 맵짰다.

겨울이 독을 내기 시작한것이다.

13

언제나 그러하듯 전투원들을 떠나보낸 병실은 엄숙한 분위기에 싸여있었다.

눈보라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두껍게 다져진 눈더미속에 몸을 묻고 기습기회를 기다리고있을 전투원들을 그리며 부상병들은 문밖의 바람소리를 듣고있었다.

그 바람소리는 부상병들에게 고향을 생각하게 했고 유년시절을 생각하게 했다.

군의 윤례영과 준의 박경숙이도 처치실에 앉아서 그 소란한 바람소리를 들으며 떠나간 전투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낮이면 바쁘게 살고있는 녀군관들이였다.

간호원으로도 되고 위생병으로도 되며 약제사로 되기도 해야 하는 그들이였다. 특히 준의 박경숙은 최근 새로운 《붕대감기법》을 실험하느라고 부상병들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준의의 새로운 야전붕대감기법은 앞으로 례영이가 명명한바대로 《박경숙 붕대감기법》으로 불리우게 될것인데 이제 적후를 벗어나면 많은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을것이 확실했다.

그 《박경숙 붕대감기법》에 의하면 야전조건에서 부상병들에게 붕대감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으로 단축된다. 동시에 붕대도 절약된다. 박경숙의 이 새로운 붕대감기법의 창안기초는 인체의 근육조직과 골격조직에 자연적으로 의거하는데 있었다.

이 방법에 의해 상처를 처맨 부상병은 붕대로 인한 압박감을 덜 받는다는것이 실험과정에 여러 부상병들을 통하여 확증되였다. 때문에 이것은 전투상처의 치료법에

하나의 기여로 될뿐만아니라 절약되는 량으로 하여 경제적으로도 의의가 컸다.

준의 박경숙은 적후를 벗어나게 되면 사단군의들은 물론 관계부문의 전문가들앞에 출연하여 이에 대한 창안과정과 실천상 적용법을 말하게 될것이다.

《저는…》

하고 준의는 종종 그때 자기가 말해야 될 내용들을 입속으로 외워보기도 했다.

《사단이 가장 어려운 후퇴의 전투로정을 걷고있던 시기에…》

여기서 잠시 생각하고난 준의는 자기의 이제 그 말을 좀더 다르게 고쳐보았다. 그것은 《사단》이란 말 대신에 《조국》이 바로 그러했던 시기에로 된것이다.

《그 시기에 우리는 멸악산줄기의 함지골에서 중상자들을 치료하고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있던 약품이나 의료기구는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붕대가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붕대감기법이 세상에 나오게 된것은 이때문이였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부족되는 붕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터수를 줄였고 다음엔 재생하였는데 이 과정을 거쳐 보다 높은 형태의 절약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것—그것은 크던 작던 혁신이였는데 혁신, 그것은 정신, 즉 열렬한 혁명투사들의 뜨거운 애정을 요구하는것입니다. 부상병들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돌보는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지향하는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새 붕대감기법은 실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과정은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 기술상난점들을 해결하고야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말들은 아직 실시해보지 못한 인체구조의 몇개 부분을 마저 실험한후에 생각해봐도 넉넉할것이였다. 그래서 최근 며칠간 준의는 그 아직 실시해보지 못한 몇개 부분 (그것은 뒤머리 경사면에 파편상을

받았을 때와 어깨부분에 총상을 입었을 때였는데)의 실험에 여념이 없었다.

다만 밤만은 부상병들의 취침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실험작업을 중지하군했다. 대신 밤에는 싸우러 나간 병사들을 기다리며 군의와 나란히 앉아서 복잡하고 어려웠던 일을 하던 긴장을 풀고 휴식하면서 군의와 서정적인 기분에 잠기는것이였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겨울밤을 좋아했어요.》

준의는 문밖의 바람소리가 높아지고 출입문밑에 가루눈들이 밀려와 쌓일 때 침묵을 깨며 말했다.

《겨울밤은 다양한 기분을 주어서 좋아요. 남성적인 패기를 련상케 하는가 하면 어떤 밤엔 녀성적인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요.》

례영이 역시 그의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 말을 계속이나 하듯 뒤따라 말했다.

《또한 겨울밤은 그 누구와 속삭여 보고싶은 기분을 주어요.》

례영은 지금 기로를 생각했다. 기로와 함께 이런 겨울밤에 속삭여보고싶은 기분이였다.

하지만 그 기분은 더욱더 높아가는 기세로 출입문을 후려치는 바람소리때문에 사라지고 이 시각에도 원쑤 미제의 수송대를 기습하기 위해 눈무지속에 매복해있을 장기로와 병사들의 긴장한 얼굴들이 떠올랐다.

《전투원동무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앉아있는게 거북해요.》

준의 박경숙 역시 이 순간 전투원들의 모습을 그려본것이다.

《눈보라에 길이 죄다 메워지지 않았을가요?》

전투를 치른후 무거운 로획품들을 메고 돌아올 전투원들이 길마저 잃지 않을가 념려하는 두 녀군관이였다. 한데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흠칫 놀라며 마주쳐다보

았다.

한것은 간막이 저쪽 부상병들의 병실에서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말소리들이 들려왔기때문이다.

《나는 군의동무에게 이 사실을 말할테야.》

《그러지 말아요, 특무장동무.》

《이런 처지에서 군의를 속인다는건 엄중하거든.》

특무장의 어성은 높아지려고 했다.

《그래도 걱정을 끼쳐서는 안되거든요.》

분명 고발 받을 일을 저지른 병사는 최근 며칠동안 수술후과가 좋지 않아서 걱정하게 하던 어린 병사 김훈규였다.

《그렇다고 굶고도 밥을 먹었다고 말하면 안되는거야. 지금 우리가 밥을 안먹는다는것은 적들을 기쁘게 해주는거나 같은거거든. 전우들이 생명을 내대고 구해온 쌀이고 고기란말이야.

그런데도 동무는 속이려고 하거든.》

《제발 어성을 높이지 말아요. 특무장동무, 사실은 요즘 아무것도 먹고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사과 생각만 나거든요. 저의 집엔 과실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도 밥맛을 잃으면 누님이 사과를 따다주었어요.》

훈규병사는 특무상사가 어성을 높이자 겁을 내고있었다.

《거 참 야단인걸!》

방금전까지 고발하겠다던 특무상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괜찮아요, 특무장동무! 제가 사과를 먹고싶어한다고 군의동무나 준의동무에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소대장동무가 이것을 알면 사과 몇알때문에 전투조직을 할는지도 몰라요.》

정신을 가다듬고 부상병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두 녀군관은 괴로운 시선들을 마주 대하였다.

어린 병사가 하루에도 수없이 그려봤을 고향집 사과를 그들도 그려보았다. 병사는 고향집 누나가 그리워 울었을는지도 몰랐다.

남동생들을 갖고있는 그들에게 어린 병사의 말은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것이였다.

(사과를 구해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 병사로 하여금 여기에도 고향집 누님이 있다는걸 느끼도록 해야 한다. 조국의 모든 녀성들이 병사의 어머니요, 누님이라는걸 알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례영은 장화를 신었다. 그 다음엔 외투를 입고 띠를 둘렀다.

《내가 사과를 구해가지고 오겠어요.》

그러자 준의도 외투를 입으려고 서둘면서 말했다.

《저도 함께 가요.》

《안됩니다. 준의동무, 병실을 비워서는 안돼요.》

례영의 말은 명령조였기때문에 준의는 외투를 벗겨다가 입으려던것을 그만두었다.

《어데로 가시겠어요?》

《과수원을 찾아가겠어요.》

《과수원이 어데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찾아가요?》

《소대장동무의 지도에서 본 일이 있어요. 그 지도를 다시 봐야겠군요.》

두 사람은 병사들의 방으로 가서 지도를 가져다가 과수원을 찾아보았다. 언제인가 진료소를 찾아갔던 그 마을까지 미치지 못하여 작은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밑에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한 과수원이 있었다. 설명문엔 이렇게 적혀있었다.

《…과수원집은 불타버렸음. 주위에도 인가들이 없음…》

《하지만 군의동무, 지금은 과수원이 눈에 묻혀버렸을텐데요.》

준의는 지도에서 시선을 떼며 말했다.
《나무밑을 뒤져보겠어요. 그러느라면 사과가 나질 거예요.》
례영은 마지막으로 모자를 쓰고 장갑을 낀 다음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갔다 오겠어요.》
《소대장동무가 오면 이 사실을 알릴가요?》
《알리지 마세요.》
준의는 문밖에 나와서서 군의가 눈보라속으로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눈보라가 골짜기에 눈무지를 쌓으며 쉬임없이 기승을 부렸다. 례영은 사위를 잘 분간하지 못하여 눈무지속으로 빠져들군 했다. 하늘도 땅도 바람에 흩날리는 눈가루로 하여 뿌여스름하고 흐리터분했다.
임자없는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은 발가벗은채 떨고있었다.
례영은 전날 과수원의 주인이 살던 집이 불타서 주추돌마저 눈속에 파묻혀버린것을 보자 새삼스러이 인가하나 없는 넓은 벌판에 자기가 혼자 서있다는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두껍게 덮인 눈밑으로 손을 넣어 뒤져보면서 한발자국한발자국 사과나무들의 렬을 따라나갔다. 전쟁이고 보매 과수원의 주인은 사과를 알뜰하게 따지 못했다. 례영의 손엔 저절로 떨어져서 얼어버린채 눈밑에 숨겨진 사과들이 잡혔다.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그 사과 하나하나를 찾아낼 때마다 그는 지금도 병실에 누워 고향집 누나를 생각할 훈규병사가 떠올랐다.
눈보라가 거세게 불어대면서 벌판을 스쳐올 때면 그의 언 볼편엔 눈가루들이 뿌려지고 온몸은 지탱 못할 정도로 밀리군했다. 그때마다 례영은 사과나무에 의지하여

그 거센 바람이 지나가기까지 먼 벌판을 바라보면서 하던 일을 멈추군했다. 례영은 나타나기는 하나 이그러져서 볼품없이 된 사과들이 손에 잡힐 때마다 고향거리의 실과매대들에 진렬되여있던 그 붉고 살지고 향기풍기던 사과들을 생각했다. 일요일이면 동생들의 손목을 잡고 거리로 나와 그 싱싱한 사과들을 보에 담던 일들이 어제인듯 회상되였다.

(내 남동생 경석이도 전선에 나왔다가 부상당한 몸이 되여 고향을 생각하고 누나를 그리며 사과를 찾는다면 그의 군의나 준의가 나처럼 눈벌판을 뒤적이겠지.)

례영은 지칠줄 모르고 넓은 과수원의 태반을 돌았다. 했지만 그 볼품없이 되여 사과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것으로나마 준비해가지고 온 보자기를 채우지 못했다. 례영은 그 보자기를 채울 최후의 방도를 생각했는데 그것은 과수원에 있었을 사과움속으로 들어가 보는것이였다. 불타버린 집터주위에 사과움으로 사용하던 지하실이 있었다. 세멘트로 층계를 만든 그 지하실에서는 싸늘한 랭기가 새나왔다. 례영은 권총을 꺼내서 손에 쥔 다음 그 지하실로 한계단 한계단 발을 옮기며 내려갔다.

먹물처럼 캄캄한 지하실의 마지막 층단에서 한발을 떼고 륙감으로 이 속엔 위험한것이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야 례영은 자기 몸이 땀으로 함뿍 젖었다는것을 알았다. 벼겨들이 깔린 움속엔 상자들이 널려있었고 주인이 집어넣고 가버린 가구류들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례영은 움속의 어둠에 익숙해졌다. 빈 상자들을 하나하나 헤쳐보던 그는 포장하려다가 만 어느 한 상자에 반나마 사과가 있는것을 발견했다. 너무 기뻐서 와락 달려든 례영은 바닥에 딩구는 새끼로 그 상자를 묶기 시작했다.

그때였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본능적인 공포로 하여 사격태세를 갖춘 례영은 벽에 붙어서 바깥동정을

살폈다.
묵직한 군화가 사과움우를 밟으며 지나가더니 멀리까지 가서 에돌다가 되돌아와서 멎었다. 틀림없이 눈우에 난 발자국을 뒤따라다니는것이였다. 뚜벅뚜벅 또다시 묵직한 군화가 사과움지붕을 밟으며 에돌았다.
례영은 순간 그 발걸음소리가 너무도 귀에 익고 반가운것이여서 층단을 밟고 나가기 시작했다.
《여기 있어요.》
례영은 자기 위치를 알렸다. 그러자 움우에 서있던 기로는 그리로 다가왔다.
기로가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준의는 그가 없었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죄다 말했다. 례영은 이 사실을 기로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로서는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기로는 그길로 병사들을 데리고 과수원으로 오려고 했다. 했으나 피곤해할 병사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잠잘것을 명령하고는 혼자서 떠났던것이다.
례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자기가 묶다 만 사과상자가 있는데까지 기로를 데리고 왔다.
《보세요, 사과를 찾아냈어요.》
기로는 자기의 눈앞에서 어둠이 차차 엷어지자 포장하다 만 사과상자와 그 곁에 만족하여 서있는 례영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이건 대단한 수확인데요.》
기로는 허리를 굽히고 그것을 단단하게 묶기 시작했다.
《준의동무가 이리로 가보라고 했어요?》
례영은 기로가 자기를 찾아 떠나리라고 생각되였기때문에 준의에게 기로가 오면 자기의 과수원길을 알리지 말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준의가 기로에게 이 사실을 알린걸로 하여 방금전의 기쁨이 사라졌다.

(준의동무는 어쩌면 전투에서 돌아온 사람의 피곤도 모른단말인가? 그는 진심으로 내가 이 사람을 아낀다는것을 모를가?)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빠진 례영은
《그만 됐어요. 제가 묶던거예요.》
하고 기로의 손에서 새끼줄을 앗아내려고 했다.
《준의동무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로는 새끼줄을 놓지 않으며 말했다.
《이런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군의동무,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기로는 사과상자를 죄다 묶은후 허리를 펴고 곧추서면서 례영을 바라보았다. 례영은 어느새 멀찍이 물러나서 지하실벽에 등을 대고 서있었다. 기로는 자기가 방금전에 한 말로 하여 그가 매우 불쾌해한다는것을 몰랐다.
《적후에서는 위험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위험한 일은 자신만 할수 있다고 믿는 우월감은 좋지 않은거예요.》
례영은 기로가 놀라리만큼 성난 어조로 차겁게 말했다. 기로는 자기가 한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수 있는것이였다고 생각되자 대답할바를 찾지 못했다.
이것을 눈치챈 례영은 숨돌릴 겨를이 없이 반격을 계속했다.
《동무에겐 거만한데가 있어요. 그 거만성은 용감성이나 동지애를 자기만 독점하고있다고 생각하는데서 나타나고있어요.》
례영은 기로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오면 말하리라고 마음먹었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기로는 례영의 억측이 약간 우스웠으나 그렇다고 귀등으로 듣는척하면 그의 자존심을 더 크게 건드릴것만 같아서 타협조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 벌판에 있습니다. 론쟁은 돌아가서 합시다.》

《이 벌판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동무의 타협식 어조는 버리세요.》

기로는 례영이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올줄은 몰랐다.

《나는 론쟁하기 위해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로는 떠날 길이 바쁘다는것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사과상자를 잡으려 했다.

《물론 론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녀군의를 보호하려고 왔겠지요. … 동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녀군의가 어떤 의미에서는 동무보다 몇배나 더 담대할수도 있어요.》

례영은 세멘벽에 붙어선채 고르롭고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했다.

기로는 그렇다고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할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타협하고 속히 떠나갈 방책을 생각하며 그대로 서있었지만 그럴듯한 방책은 잘 생각나지 않았다.

기로는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되였는데 그것은 자신이 먼저 사과상자를 메고 떠나는것이였다.

《돌아갑시다. 군의동무, 너무 늦는것 같습니다.》

기로는 제어깨에 상자를 올려놓고 돌아선 다음 층단우에 한발을 옮겨놓았다.

그 길로 곧추 사과움밖으로 나온 기로는 함지골쪽을 향하여 걸어갔다. 그렇게 한동안 걸어서 골짜기입구까지 이르렀을 때에야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군의가 뒤따르고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예상했던것처럼 례영은 먼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있었다. 희디흰 눈길우에서 례영의 모습이 하나의 점처럼 되여 움직이고있었다. 기로는 자존심이 상하여 언짢은 기분으로 오고있을 그를 그려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눈보라는 더한층 세차져서 둔덕과 개울가와 길을

분간할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자칫 잘못하면 둔덕밑으로 굴러나거나 개울바닥으로 떨어질수 있었다. 기로는 골짜기 굽돌이길을 에돌 때 또 한번 례영이가 어데쯤 따라왔는가 하여 뒤돌아보며 발을 옮기다가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졌다. 손쓸새없이 눈무지를 타고 미끄러지던 기로는 얼른 애솔나무 하나를 잡을수 있어서 다행히도 멀리 내려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허리까지 눈속에 묻히는 비탈이고보니 되돌아오기는 어려웠다. 간신히 길 가까이까지 올라왔다가는 다시금 미끄러져 내려가군 했다. 그렇게 두번을 실패한후 세번째만엔 사과상자만 길우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그가 이처럼 비탈에서 오르기를 거듭하는사이 눈은 더욱 다져지고 미끄러워져서 썰매장처럼 되였다.

기로는 매번 힘껏 달려올라와서 길 가까이 접근하다가는 한발자국을 더 올라가지 못하여 미끄러지는것이였다.

기로가 이러는 사이 저만치 뒤떨어졌던 례영이가 예까지 당도하였다.

례영은 굽돌이를 돌아선 순간 뜻하지 않게도 기로가 눈무지에 빠져 비탈밑으로 미끄러진것을 보고 놀랐으나 우정 쌀쌀한 시선을 지으며 내려다보았다. 그랬을뿐 기로가 길우로 올라오려고 하는것을 도우려 하지는 않았다.

기로가 길의 턱밑까지 올라왔다가 한발자국밖에 안되는 거리때문에 다시금 미끄러졌지만 그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기도 어딘가 쑥스러웠지만…

만일 그가 손을 내밀어주면 기로는 그 어려운 마지막 구간을 쉽게 올라왔을것이다.

기로는 끝내 비탈중턱에 미끄러져 내려간채 애솔나무를 잡고 숨을 돌렸다.

《힘드신 모양이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끝내 도와달라지는 않는군요.》

《방조를 받지 않아도 넉넉합니다.》

《그럼 어디 혼자 올라와보시죠.》

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쌀쌀했으나 벌써 장난군다운 롱기가 섞여있었다.

기로는 다시금 오르기 시작했으나 례영은 그대로 선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기로가 가파로운 비탈을 1센치, 1센치 톺아오르다가 드디여는 성공하여 한발을 길우에 올려놓게 되였다. 했으나 이번에도 기로는 길대신 눈무지를 짚어서 급하게 비탈밑으로 떨어지려 했다.

순간 《앗》하는 소리와 함께 례영의 손이 기로를 돕기 위하여 앞으로 내밀어졌다. 기로는 그 손을 잡았다. 덕분에 그는 길우에 올라설수 있었다.

《…》

《…》

두사람은 아무런 필요도 없었건만 비탈밑을 그냥 내려다보면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떠날 때가 되였다는것을 깨닫고 비탈밑쪽에서 시선을 떼였다. 했을 때 그들은 또한번 약속이나 한듯 같은 시각에 놀라면서 물러섰는데 그것은 그때까지도 손을 잡고있는 자신들을 발견했기때문이였다.

14

겨울추위가 더해질수록 누구보다도 바쁜건 준보였다.

특무장, 창고장, 취사원으로 된 그는 자기 일에서 손을 뗄 짬이 없었다. 부상병집단의 후방부 총책임자로 된 그에게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는 일이였다. 세개의 병실과 취사장의 부엌아궁이에 불을

지펴주는 일은 하루도 번질수 없는것이였다.
　전투성원으로부터 떨어져나온 그는 하루에도 몇차례씩 무릎까지 덮는 생눈을 헤치며 산으로 올라갔다.
　병실 근처에서도 땔나무는 얻을수 있었으나 그것들이 병실의 위장물로 돼있는한 손댈수 없었다. 그래서 거리 뜨게 있는 산의 나무들을 찍어와야 했다.
　소대장이나 동무들이 그의 일을 도우려고 해도 준보는 그들이 밤이면 전투에로 떠나갈것을 생각하여 일체 후방일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달서와 배석이가 주민들에게서 얻어온 도끼와 톱을 깊숙이 숨겨두었다.
　이때문에 동무들이 그의 일을 돕기는 어려웠다.
　밤이 되면 전투원들은 떠나고 그는 세개의 병실아궁이에 장작을 가득히 지피고는 부엌에 앉아서 도끼날과 톱날을 세웠다.
　그는 세개의 병실온돌이 화끈화끈하니 달 때까지 불을 때면서 소대장과 동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눕지도 않았고 쉬지도 않았다. 일감이 전혀 없으면 부상병들이나 녀군관들의 군화와 장화의 실밥이라도 터진것을 꿰매주었다.
　부상병들은 그의 이런 지성이 고마와 어떤 땐 병실이 뜨겁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수고를 덜어주려 했다. 그래서 몇번 속아넘은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방바닥에 자기 손바닥을 대보지 않고는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부상병들이 그에게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손 내밀면 나무천지여서 힘들것 하나 없네.》
　녀군관들의 병실에 가서는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손을 대보았다.
　《인젠 더워요.》

하고 녀군관들은 그가 나타나면 어떤 경우나 최대의 친절을 보여주었다.

《서툰쟁이가 온돌을 놔서 불편하시겠습니다.》

준보는 녀군관들의 방을 나설 때면 입버릇처럼 이곳에 온돌을 놓고 간 사람을 나무랐다.

《온돌이라는게 고르고 평평해서 불들어가는 골이 제대로 놓여야겠는데… 그 서툰쟁이가 이걸 몰랐거든요.》

그리고는 장작을 아궁이 터지게 밀어넣어주군했다.

기로는 준보의 수고를 생각하고 종종 말을 걸었다.

《힘들지요?》

《아닙니다. 이런 일쯤이야 식은죽 먹기지요.》

그는 소대장이나 동무들에게 자기는 힘들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특히는 부상병들이나 녀군관들이 미안해할것을 생각하고 그들앞에서는 피로한 빛 하나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일은 결코 《식은죽 먹기》가 아니였다.

한번은 농짝만큼씩 큰 장작단을 메고 산을 내리다가 발을 헛짚어서 산아래로 굴러난 일이 있었다. 그때 그의 손바닥은 터지고 무르팍엔 멍이 들었다. 사정없이 아래로 굴다가 커다란 나무통에 앞가슴이 부딪쳐서 멎어서긴 했으나 한참이나 숨을 내쉬지 못해 눈속에 묻힌채 일어서지 못했다.

이런 일을 한번이나 두번쯤 당한것도 아니고 여러차례 겪었던 준보였다. 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이런 일을 알리지 않았고 추운 겨울에 나무를 떨구지 않았다.

오늘밤도 전투원들은 병실을 떠났다. 기로와 배석은 소금을 구하려고 주민지대로 찾아갔다. 달서는 한쪽눈에 피집이 서서 안대를 붙인채 요즘은 아무런 전투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준보는 아궁이마다에 지핀 장작불을 보면서 이 부엌

에서 저 부엌으로 옮겨다녔다.

그리고는 녀군관들의 병실 부엌에서 톱날을 세우려고 불앞에 바싹 다가앉았다. 했으나 준보는 톱날을 세우려다 말고 힘있게 타들어가는 장작개비들우에 시선을 던진채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의 몸이 후더워질 때 병실을 떠난 전우들을 그려보는것이였다.

소금 구하러 간 배석을 생각하니 쌀가지러 갔다와서 전우들앞에서 자기비판을 하던 그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했다.

준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 사이에 기로와 배석은 함지골로부터 남동쪽 삼십리거리에 위치한 상포리에 도착하였다.

마을은 벌판 한가운데 길게 자리잡고있었다.

마을 가까이에 접근하여 잠복한 그들은 마을안의 동정을 살핀 다음 행동하기 시작했다.

배석은 옛날 자기 친구의 형이 살았던 집을 찾아들어가고 기로는 만일의 경우에 유도사격으로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그곳에 남아있었다.

마을은 깊은 정적에 잠겨있었고 하늘엔 검은 구름장들이 낮게 드리워 떠돌았다.

멀지 않은곳에 위치한 군소재지쪽에서는 불빛이 반짝이였다.

배석이가 마을안으로 자취를 감춘지 이윽해서였다.

갑자기 기동경찰대가 나타나더니 마을을 둘러싸고 사격하기 시작했다.

기로는 배석이가 적들에게 발견되였다는것을 대뜸 알아맞히고 적들을 자기쪽으로 끌기 위하여 사격을 시작했다. 적들은 두패로 갈라지더니 한패는 기로쪽을 향하여 다가왔다. 의지할데 하나 없는 벌판에서 이것은 어려운 전투였다.

기로는 배석이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적들을 유인하느라고 이리저리 위치를 옮기면서 쉬임없이 적들과 사격전을 벌렸다.

적들은 처음 기로가 혼자라는것을 알지 못하여 겁을 먹고 접근해오는것이 완연했으나 그가 혼자라는것을 알자부터는 제각기 공로를 세울 기회가 왔다는듯 용기를 내여 접근속도를 높였다.

기로는 기관단총의 예비탄창까지 써버리고는 수류탄을 빼려고 했지만 그 순간에 뒤로부터 덤벼든 적들이 총탁으로 내려치는것을 막지 못했다. 적들의 총탁은 사정없이 기로의 몸에 겹쳐내려졌다. 기로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적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했다.

배석은 자기가 찾아갔던 집의 주인이 자기를 고발했다는것을 알자 그놈을 처치해버리고 마당에 나섰으나 소리치며 덤벼드는 적들의 포위망을 무사히 벗어날수 없었다. 그래서 울바자를 뛰여넘었으나 거기도 적들이 있었다. 배석은 울바자에 등을 붙이고 선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격투를 하면서 빠질 길을 내다가 소대장의 유인사격이 시작된 틈을 타서 마을을 벗어났다. 그가 마을밖에 나와서 대응사격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적들이 벌써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소대장을 맞들어서 차에 싣고 군경찰서로 갈 때였다. 소대장이 있던 장소엔 소대장의 권총이 떨어져있을뿐이였다. 배석은 그 권총을 집어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배석은 눈물을 머금고 두줄기 불빛을 뿐으며 군쪽으로 가는 차를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그도 잘 아는 지암산굽이를 돌더니 영영 그의 눈에서 사라져버렸다.

배석은 소대장이 실려간 읍쪽을 향하고 걷기 시작했다.

이제 곧장 소대장이 실려간 군경찰서로 가려는것이였다. 소대장을 적들의 손에 맡긴채 함지골병실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적들과 뼈가 부서질 정도로 혈투라도 해

보고싶은 심정이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대장을 구원해야 된다.》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는 그의 눈엔 비장한 빛이 번뜩이였다.

《개자식들, 그 사람이 누군데 잡아가?》

또 한번 배에 힘을 주며 웨쳐보는 배석이였다.

배석은 소대장을 구원하는것은 자기까지 포함한 병실의 부상병집단전체를 구원하는거나 똑같은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사단과도 련락이 맺어질길 없는 조건에서 전투를 조직하고 대내생활을 통제하며 부상병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있는 지휘관이 바로 소대장이였다.

(이런 소대장을 구출 못한다면 내가 무슨 병사겠는가.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던 사랑은 무엇으로 보답하랴.)

그는 소대장이 오늘밤도 자기를 구원하고저 적들을 제편쪽으로 몰리게 한다음 단신으로 피투성이가 되여 싸우다가 끝내는 놈들에게 짓밟혔을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고 목구멍이 메는듯하여 침을 삼킬수 없었다.

배석은 손잔등으로 굵다란 눈물방울을 이쪽저쪽 씻으며 걸었다. 발밑에서는 굳게 다져졌다가 틈이 생긴 눈덩이들이 묻어나고 신작로엔 왕래하는 사람 하나 없었다.

배석은 이제 강길서를 찾아가서 만날것을 결심했다.

(오늘밤이야말로 나하고 네놈하고는 결판을 짓게 되였다. 옛날엔 비록 경각성이 없었지만 인제는 어림도 없지. 세월이 흘렀으니 나도 많이 자랐어.)

울분과 적개심으로 하여 배석의 앙다문 이발이 드드득 맞쪼기며 소리를 내였다.

배석은 강길서의 상판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자의 길다랗고 뾰족한 말상이 뱀처럼 스르르 눈앞으로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이 징그러운 개자식을 한주먹에 요정내버리고 소대장을 구해야 한다.)

배석은 《퉤!》하고 신작로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는 언젠가 옛친구 김윤현이가 《치안대》완장을 끼고 보초를 서던 다리목까지 와서야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늘밤엔 전혀 낯모를 녀석이 개털로 목을 감싼 외투를 입고 팔짱을 낀채 보초를 서고있었다.

배석은 눈깜짝하는 사이 놈을 강물속에 던져넣고 다리를 건늘 생각도 해보았다. 배석이로서 이런 일쯤은 매우 간단히 처리할수 있는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이로부터 올 복잡성을 념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놈을 하나 처리해버리기도 쉬웠고 다리를 건너가기도 쉬웠으나 놈들이 통털어나서서 소란을 떨면 큰 일을 앞둔 때에 리로울게 있을상싶지 않았다.

배석은 멀찍이 돌아서 놈들의 다리목 보초막뒤벽에 붙어선 다음 손바닥만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배석은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으나 그속에 누워서 교대시간을 기다리는놈들속엔 알만한자가 없었다.

거기서 물러선 배석은 동뚝밑 뽕나무밭머리에 잠시 서서 다리쪽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놈들의 자동차 왕래가 심한 다리였다. 배석은 그 어느한 자동차의 뒤꽁무니에 올라 시내쪽으로 들어갈 생각도 해보았고 괴뢰군이나 미제침략군놈 하나를 까눕히고 변장을 한채 시내로 들어갈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보다 큰 일, 적들속에 의식조차 잃고 누워있을 소대장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판가리싸움을 앞두고 될수록 불집을 일으킬수 있는 사소한 일은 피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결국 복지강의 얼음을 타고 시내로 들어갈 결심을 했다.

배석은 놈들의 보초막으로부터는 떨어졌고 강폭이 좁은 웃쪽에 올라가서 얼음우에 올라섰다.

정다운 고향의 강, 복지강에 덮인 얼음은 두꺼웠다. 사나운 북풍이 눈가루들을 뿌리며 얼음우에 올라선 배석의 볼을 베일듯 스쳐지나갔다.

그때마다 배석의 머리는 맑아졌고 새힘이 솟아나군 했다.

종종 얼음장이 얼어터지느라 우지끈우지끈 하는 소리가 한참씩 계속되군했다.

어린시절에 배석은 이 복지강 얼음장우에서 쇠썰매를 탔다.

그 시절에도 얼음장은 이처럼 우직우직 얼어터지는 소리를 내며 두꺼워졌고 북풍은 옷섶을 찢을듯 사납게 불었다.

배석에게 있어 이 북풍과 얼음장 터지는 소리는 흘러간 시절에 대한 갖가지 추억들을 불러일으켜주었다.

배석은 그 추억들에 잠긴채 복지강의 시가쪽 대안에 이르렀다. 거기서부터 빠른 걸음으로 제방을 넘어선 배석은 불 켜지 않은 캄캄한 거리, 고향의 시가를 보게 되였다. 그는 전날 김윤현이가 알려주던 강길서놈의 집쪽을 향해 그중 안전할것이라고 믿어지는 골목에 들어섰다.

강변 방뚝에서 들여다보던 캄캄한 고향시가는 막상 들어서고보니 스산하기가 비길바 없었다.

집집의 대문짝들은 떨어져나갔거나 상처투성이가 되여 성한채로 있는것이란 없었다.

어느 한집에서도 웃음소리나 말소리가 새나오는것을 들을수 없었다.

볼수 있는 불빛이란 띄염띄염 놈들의 초소막우에 매달린 불이였고 들을수 있는 소리란 미친듯이 달려가고 달려오는 놈들의 자동차소리나 순찰대놈들의 고함소리와 구두발소리였다.

배석은 전날 왜놈 군수놈이 쓰고 살던 집이 현재 강

길서가 있는 집이라는것을 알고 시가의 남쪽지구로 갔다.
길서란놈은 제법 널판자로 울타리도 그럴듯하게 둘러치고 그속에 들어박혀있었다.
길서놈의 졸개들인듯한 순경녀석들이 저희네 서장놈의 집주위를 느린 걸음으로 돌았다.
배석은 어둑시근한 오른쪽 울타리에 붙어서서 뜰안을 들여다보았다.
놈의 방에서는 불빛이 흘러나왔고 전화종소리가 몇번 들렸다.
순찰도는 순경녀석을 두바퀴째 지나쳐버린후 배석은 울타리널판자 세간쯤 아래 못을 드티게 한후 그것을 들고 마당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곧장 불빛이 새여나오는 강길서방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길서는 통닭이 올라앉은 술상을 놓고 혼자서 마시던중이였는데 문이 열리자 얼굴을 돌렸다.
《놀라지 말라. 나다.》
배석은 열고 들어선 문을 빈틈없이 꼭 닫은후 자기쪽으로 돌려지는 길서의 상판을 정면으로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그러자 길서는 잠자다가 벼락치는 소리에 놀라 깬놈처럼 공포에 잠긴 눈을 크게 떴다.
《배석이, 너란말이지…》
놈은 당황하여 풀어헤쳤던 앞가슴의 단추를 채울념도 못했다.
《그래, 잊지 않고있구나. 내가 배석이야.》
시간이 흘러가고 몇마디 말이 오고가자 놈은 비로소 배석의 옷차림이며 얼굴색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나서는 뜻밖에도 손에 잡았던 잔을 놓더니 안도의 긴숨을 내쉬였다.
놈은 배석의 퇴색한 군복차림을 보고 그가 막 인민군대에서 탈주하여 산에서 내려온후 보호받으려왔다고

믿는게 틀림없었다.

《어쨌든 이렇게 나를 직접 찾아온건 잘한 일이야. 우선 한잔 들게.》

길서는 배석에게 술잔을 내밀었다. 배석은 그 잔을 받아서 자기앞에 놓았다.

《술잔은 왜 놓나? 어색해 말게. 옛날은 옛날이고… 인생은 이런거라니… 자네를 다시 만나고보니 감회 실로 형언키 어려우이.》

《…》

《이번에 와서 듣자니 그때 자네가 나를 놓친걸로 하여 강직처분을 받았다고 하데. 그러니 인젠 내가 대신 자네를 채용할테네. 래일부터는 경찰서에 출근하게. 사람은 부릴탓이야.》

배석을 인민군대의 탈주자로 단정해버린 길서는 벌써 배석을 반역의 길로 안내할 속셈이였다. 배석이와 같은 사람이 만일 자기의 부하직에 있으면서 자기 일을 부축해준다면 범이 날개를 얻은 셈이 되리라고 믿었다.

이때문인지 벌써 길서의 교활한 눈은 좁혀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면서 배석을 달래보는 수작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배석은 이 시각에도 감방속에 쓰러져있을 소대장을 생각하니 손이 떨렸다.

《길서, 나는 대렬도피를 해온 탈주자가 아니야.》

그러자 길서는 술상으로부터 물러나 앉으며 날카롭게 배석을 쏘아보았다.

그는 벌써 자기 집 주위를 돌고있는 순찰대놈들을 불렀으면 하는 눈치였다. 배석이 또한 인젠 결판을 낼 때라고 생각하고 길서쪽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사실은 너한테 요구가 있어서 왔다.》

길서를 노려보는 배석의 눈엔 좀전의 억지로 꾸며보이던 평범한 빛이 없어지고 증오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이처럼 배석이가 돌변하여 사나와지자 길서는

뒤로 물러앉으며 권총집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을 이리 내놔라. 나도 여기에 그런건 있어.》
배석이도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보이고는 도로 집어 넣었다.
《그래, 그 요구란 뭐냐?》
길서는 권총집에 손을 얹은채 앙칼지게 물었다.
《오늘밤 상포리에서 체포된 우리 소대장을 여기까지 업어오도록 전화를 걸어달라는게다.》
배석은 탁상우에 놓인 미제침략군 야전용전화통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건 안된다. 내가 너한테 진 옛날의 빚은 있지만 그렇게 갚지는 못해.》
《알겠다. 그럼 나더러 네밑에서 인간백정을 하도록 주선해주는게 너희들의 빚갚는 법이란말이지.》
배석은 하던 말을 멈추고 길서의 손목을 위협하듯 틀어잡았다.
《내 주먹이 무섭다는건 잊지 않았겠지? 살고싶거든 전화통을 잡는게 좋겠다.》
길서의 낯은 새파랗게 질렸지만 굽어들려는 기색은 없었다.
《네놈이 지금 여기가 무인지경인줄 아는거냐? 문만 열면 온통 내 부하들이라는걸 모르는가?》
길서는 최후의 배심을 시위하고있었다.
《나는 너를 죽여버릴테다.》
배석은 술병 하나를 높이 쳐들었다.
한손을 배석에게 잡힌 길서라 피할길 없었던 그는 술병이 자기 머리우에 내려지는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인제도 전화를 못할테냐?》
《…》
《아직 못걸어?》

《…》
길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때까지도 길서는 자기집 주위를 도는 순찰대놈들에게 구원을 기대하는듯했다.
《문밖엔 네 부하들이 많지. 하지만 네 코앞엔 내 주먹이 있어.》
그러자 길서의 길죽한 말상판엔 음흉한 미소가 물결치듯 지나갔다.
교활성으로는 누구도 당할바 없는 길서이고보매 이런 곤경에서 자기를 구원할 묘책을 찾지 못할리 없었다.
(그 소대장놈을 업고 온 부하들이 이놈을 처치해버리도록 하자.)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길서는 눈을 번쩍 뜨고 전화통을 끄잡아당겼다. 그리고는 경찰서의 당번책임자를 전화로 찾았다.
《나는 서장이다. 오늘 상포리에서 잡아온 인민군 군관을 지금 이리로 보내도록 해라. 될수만 있으면 도중에서 쉬는 일이 없도록 힘센놈들이 업고 오도록 하란말이다… 그래, 그래. 급하게 그놈을 심문해볼테다.》
길서는 수화기를 놓더니 전화통에서 물러나앉았다. 길서는 이제 부하들이 도착하기만 하면 배석이쯤은 문제없이 처치해버릴수 있다고 타산했다.
길서의 이 검은 배속을 환하니 들여다본 배석은 드디여 선손을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길서.》
하고 배석은 그놈앞에 면바로 다가앉으며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처럼 엄엄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전화통을 잡았더랬는지 알고있다. 나로 말하면 그전처럼 무경각한 사람이 아니란말이야. 너와 나와의 사이엔 인정이라는게 있을수 없어. 그걸 다르게 말하면 계급투쟁이라고 하지. 너는 고향땅을 피로 물들였어. 잠시후엔 나마저 처치해버리

려고 한다는것을 모르지 않아. 그러니 너를 죽여버리기로 결심할수밖에 없단말이야. 네 손에 억울하게 죽은 고향사람들의 이름으로 너를 죽일테다.》

배석은 든든하게 틀어쥐고있던 술병으로 길서의 골통을 내리쳤다. 길서는 소리쳐보려고 발버둥질을 하다가 술상우에 어푸러져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뒀다. 배석은 천천히 문밖으로 나와서 소대장이 놈들에게 업혀올 길쪽을 향하고 걸어갔다.

멀리에서 세 경관놈이 소대장을 업고 오는것이 희미하게 바라보였다. 배석은 길옆의 커다란 버드나무뒤에 붙어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적들이 앞까지 다가오면 불의에 습격한 다음 소대장을 빼내 업고 달음칠 계획이였다.

놈들은 한걸음한걸음 가까이 접근해오고있었다. 가운데놈이 소대장을 업고있었고 량옆의 두놈은 총을 들고 어마어마하게 호송하는것이였다.

그놈들이 나무앞을 스칠듯이 지날 때였다. 나무뒤에서 뛰여나온 배석은 련이어 두놈을 갈겨버렸다. 중간에 섰던 놈은 등에 업었던 소대장을 길우에 던진채 뺑소니를 치기 시작했다.

《접니다. 배석입니다.》

배석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여 간신히 움직여보는 소대장을 등에 업자 달음치기 시작했다.

구사일생으로 요행 뺑소니를 칠수 있었던놈은 잠자는 저희 도당들을 깨워서 배석이와 소대장을 뒤따르기 시작했다.

눈먼 추격탄들이 달음치는 배석이와 소대장의 귀밑으로 어지럽게 날고있었다.

그들이 시가를 벗어나자 놈들은 선자리에서 총질만 할뿐 인민군대의 큰 무력이 벌판에 매복해있는줄 알고 더는 추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15

북풍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벌판에 나서자 배석의 등에 업혀가는 기로는 그 어떤 불길한 징조가 예감되여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 일도 없을겝니다, 소대장동무.》

배석은 기로를 안심시키려고 그저 태연할뿐이였다. 사실 총소리도 인젠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놈들도 더는 뒤따르고있는 기맥이 살펴지지 않았다.

또다시 넓은 벌판을 가고오는 사나운 북풍이 두사람을 날려버릴듯 덮쳐들고 영영 깨치지 못할듯한 무거운 적막이 주위를 누르고있었다. 그들이 벗어져나온 먼 시가쪽의 등불빛도 인젠 보이지 않았다.

배석은 여전히 함지골로 방향을 잡고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벌판의 먼 한끌에 선처럼 그어진 산의 륜곽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명료하게 바라보였다.

기로는 의식이 보다 더 맑아지자 배석의 등에서 내려 혼자 걸어보려고 생각했다. 했으나 그는 혼자 일어설수조차 없이 된 몸이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배석은 걸으면서 기로를 몇번 불렀을뿐 불러놓고도 말을 하지 않는것이였다. 기로는 그의 이런 행동에 의혹을 갖게 되였으나 잠시후엔 모든것을 명백히 알게 되여 가슴의 한쪽구석이 무너지는듯했다.

《분한 일입니다, 소대장동무.》

배석은 드디여 더 이상 지탱해낼 힘을 잃고 눈무지에서 발을 빼지 못한채 앞으로 쓰러졌다.

상처입은 상관에게 마지막순간까지 정신적안정을 주면서 한발자국이라도 병실가까이로 가려고 이 마음 굳센 거인은

자기가 탄알에 맞았다는것을 숨겨왔었다.

기로는 자기의 상처입은 무릎우에 전우의 머리를 조용히 들어서 올려놓았다.

《울지 마십시오, 소대장동무.》

배석은 흐려지기 시작한 시선으로 기로를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기로는 그의 투박하고 큰 손을 잡고는 기가 막혀 입을 열지 못했다.

북풍은 모자도 없이 앉아서 숨져가는 전우를 굽어보는 기로의 머리칼을 사정없이 흩날렸다.

《전쟁이 끝나면 제 어머니를 찾아봐주십시오. 아들 배석은 **김일성**장군님께 마지막순간까지 충실했던 전사였으니 자랑스럽게 여기시라고 전해주십시오. …》

《…》

기로의 입은 끝내 열리지 못했다. 너무도 뜨겁고 큰 불덩이가 숨구멍을 불태우는듯만 싶었기때문이다.

《울지 마십시오, 소대장동무. 수령님의 전사로서 미국놈들과 더 싸우지 못하고 가는것이 한될뿐입니다. 제 몫까지 함께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것은 배석이가 살아서 한 마지막말이였다. 기로는 자기 몸으로 배석을 덮으면서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여 울기 시작했다.

여기 텅 빈 벌판을 오가는 바람은 기로의 울음소리를 싣고 가고 구름장들에 가리워 빛을 잃은 하늘엔 어느 한 별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네 병사의 북행길은 끝내 무사하지 못했다.

기로는 전우가 누워 잠든 땅을 뜨거운 눈물로 적시며 떠날줄 몰랐다. 총탄으로 누벼진 길을 함께 가고 함께 온것은 천리였던가, 만리였던가. 남으로 가던 7월의 땅은 뜨거웠고 북으로 오던 10월의 산길에선 굶주렸다.

사나이 한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던져 백번 죽으면 그 무슨 한됨이 있으랴만 간악한 원

쑤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없애버리지 못했음이 한되여 기로는 울었다.
그는 눈물도 훔치지 않았으며 샘솟듯 하는 슬픔도 억제하려 하지 않았다.
기로는 먼동이 터올무렵에야 자기 외투를 벗어 함께 못가는 전우에게 덮어주고 그자리를 떠났다.
언 땅에 배를 붙이고 기기 시작한 그는 열걸음 스무걸음 산쪽을 향하여 전진했다. 저만치 가서 한번 그리고 좀더 전진하고 또 한번, 기로는 배석이 있는쪽을 뒤돌아보았다.
차마 사랑하는 전우를 빈 벌판에 혼자 남기고 갈수 없는 그였다. 어쩌면 그자신 설음에 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는지도 몰랐다. 그때문에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기를 그만두었다.
(부디 안식하시라, 가신 전우여!)
기로는 언 땅우에 배를 끌며 앞으로 한치한치 전진했다.
(설음을 참아야 한다. 슬픔을 가슴속 깊이에 묻어두자. 설음만으로는 원쑤를 쳐부실수 없거늘, 설음을 뒤에 두자. 앞으로 가자.)
기로는 오직 앞만을 향하여 나갔다. 움직일 때마다 온몸의 상처는 바늘에 찔리듯 아파서 숨이 막혔다. 추위가 심했건만 그의 몸에서는 땀이 내돋았다. 눈앞에 있는 것이 돌이든 나무든 그의 손은 가림없이 그러잡고 몸을 끌어갔다. 그때마다 웃옷 단추들이 팽팽하니 한쪽으로 쏠렸다가 투툭투툭 떨어져나갔다. 다음엔 속내의가 찢어지기 시작했다. 때로는 힘에 지치고 상처의 아픔으로 하여 눈앞이 캄캄하게 흐려졌다.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
기로는 전진속도가 보잘것없건만 단념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처럼 가까왔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원쑤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기로는 눈덩이들을 입에 넣으며 기고 또 기였다.
(배석동무의 어머니를 찾아보리라. 그분의 아들이 수령의 참된 전사였음을 알리리라. 간 전우의 유언에 충실하리라.)
기로의 맹세는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가슴을 파고드는 슬픔처럼 뜨겁고 순결한것이였다.
벌판은 끝나고 함지골로 잡아드는 골짜기가 기로의 눈앞에 나타났다.
새벽빛에 잠긴 골짜기는 낯익은 수난자를 반겨맞아 푸른색으로 감싸주었다.
함지골—그리운 사람들이 있는곳,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전우들의 얼굴이 기로에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전란속에 세월이 흘러가고 피어린 격전으로 하여 언제 한번 사랑하는 사람과 한가하게 즐겨본 일 없는 기로였다.
(례영은 밤새 돌아오지 못한 나를 기다려 잠을 이루지 못했으리라. 불안과 안타까움속에서 온몸에 탄환을 맞고 쓰러진 나를 그려봤을수도 있었으리라.)
기로는 끝없이 례영이와 말하고싶은 심정이였다.
(동무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짧은것이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동무의 애인은 너무도 사랑에서 조심스러웠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기로는 좀더 뜨겁게 례영을 사랑해주지 못한것을 후회하며 한치한치 전진했다.
골짜기로 들어가는 길은 돌바탕이여서 그 하나하나의 돌덩이들을 타고넘을 때마다 기로의 상처는 비할바 없이 아팠다. 그러다가 두팔을 앞으로 쭉 뻗고 그 어떤 잡아당길것을 찾아보던 그는 한켠으로 기울어지는 몸을 지탱해내지 못하고 길밑 홈채기로 굴러서 떨어졌다.
이것은 기로에게 움직일수 있는 힘을 최후로 앗아간 결정적타격이였다. 두꺼운 눈무지속에 허리도 발도 묻혀

버린 기로의 눈앞은 흐려지면서 멀고 가까운곳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되였다. 주위의 산들이 바다우에 뜬 배처럼 움직이고 길게 늘어진 골짜기는 물결치는 강처럼 보였다. 그리고 자신도 그 물결우에 실려서 조금씩 조금씩 떠가고 있는듯만싶었다.

기로는 고개마저 들고있을 기력이 없어서 눈우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그래, 인젠 이것이 끝인가? 더 이상 나는 움직일수도 없단말인가?)

기로는 다시금 힘을 주어 눈속에 묻힌 발을 놀려본다. 또한 무릎을 꺾어본다. 그랬건만 이 중요한 시각에 발도 무릎도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멀지 않아 나는 죽는가?)

기로의 눈앞엔 배석이가 나타나고 달서가 준보와 함께 와서 작별의 손을 내민다. 례영이가 손을 잡고 끝끝내 놓지 않는다.

그뒤엔 준의 박경숙이가 부상병들과 함께 서있다.

갑자기 이 모든 영상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며 키가 작고 허리 굽은 늙은 철공이 자기의 온순한 안해를 이끌고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아버지… 아버지!)

기로는 말라드는 입술을 눈우에 추기며 이 정다운 늙은이를 불러본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생활의 뒤막에 붙어섰던 잊지 못할 추억들을 지니고 아버지는 아들앞에 나타났다.

대형마치가 힘차게 내리치는 모루우에서 쇠덩이가 집게에 집힌채 납작하게 눌리워지고 불꽃이 가루인양 철공들의 땀밴 잔등에 뿌려지던 철공소, 부지런한 철공 장택만은 점심그릇을 들고 찾아온 일곱살난 아들앞에서 주인에게 뺨을 맞았다. 한쪽손에 두툼한 장부책을 든 주인은 이 성실한 철공이 담배 피우는 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고 바른뺨을 때렸고 손댄김에 좀더 본때를 보여준다고 왼뺨마저 때렸다.

(잊지 않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때렸다.)

일곱살난 그의 아들은 죽기전엔 잊지 말자고 그 가슴 찢어지게 하던 화폭을 피눈물로 한점한점 눈동자속에 새겨넣었다.

기로는 그때의 피섞인 눈물을 기억한다. 그리하여 마지막힘으로 머리를 들어본다. 또 한번 무릎을 꺾으며 움직여본다.

(살자, 나는 살아야 한다. 앞으로!)

했으나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인제는 의식마저 멀어져가고있었다.

이 시각에 뜬눈으로 밤을 보내며 전우들을 기다리던 준보와 달서는 례영이와 함께 병실을 나섰다.

그들이 기로를 눈무지속에서 발견했을 때는 동쪽하늘에 아침해가 반쯤 떠올랐을 때였다. 기로는 구원되였다.

16

부상병집단은 오래동안 슬픔에 잠겨있었다. 심하게 부상당한 지휘관과 돌아오지 못한 전우를 두고 병사들은 누구나 울적해있었다.

준보나 달서는 말 한마디 크게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동자속엔 언제나 짙은 슬픔의 기색이 어려있었다. 그들 두사람은 서로가 쳐다보는것조차 피했다.

그것은 서로의 눈동자속에 담긴 설음을 보기가 괴로왔기때문이다.

밤이 되여 부상병들도 잠들어서 병실이 조용할 때면 준보나 달서는 아궁이앞에서 배석을 생각했다. 그들은

간 전우를 두고 소리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였다.

《그런 사람이 원쑤들의 총탄에 쓰러지다니…》

아궁이앞에 앉은 준보는 목이 메여 혼자소리를 했다.

그때면 준보의 등뒤에 우두커니 서서 불길이 타들어가는 아궁이를 굽어보는 달서도 가슴이 쓰라려 움직이지 못했다.

용맹과 헌신적인 우애로 하여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전우와의 영원한 작별은 그들의 가슴에 터질듯한 슬픔을 안겨주었다.

잠들어보려고 애쓰던 병사들의 얼굴마다를 락엽이 얼쓸어주던 밤, 멀리에서는 개가 짖고 하늘엔 달이 밝았다.

그 밤부터 배석은 죽음을 맞받아나가는 길이면 항상 전우들의 앞장에 서군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 서로 집으로 헤여질 때면 오늘을 두고 옛말처럼 하려던것이…》

준보는 끝내 말끝을 맺지 못하고 얼굴을 두손짬에 묻었다.

하면서도 그들의 가슴 한구석에 맺힌 원한만은 가셔지지 않았다.

피는 피로써, 죽음은 죽음으로! 먼저 간 전우의 원한을 씻어주기전엔 영원히 그들의 울분은 사라지지 않을것이였다.

기로는 지팽이에 의지하여 간신히 바깥출입을 하면서도 지휘관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여전히 수행하고있었다. 비록 자신은 습격전투나 주민지구로 공작하러 떠나지 못했지만 그 하나하나의 전투들을 구상하고 조직했다.

오늘도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부상병들의 식료품 몇가지를 구하기 위하여 준보와 달서를 공작현지로 파견했다.

자신은 그들이 병실을 떠난 때로부터 출입문 가까이에 앉아서 병사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와 얼굴을

마주 향하게 되는 건넌쪽방엔 두찬이가 앉아서 밀어놓은 모포사이로 실내통로를 내다보았다.

실내통로에서는 훈규를 비롯한 회복기의 부상병들이 팔운동이며 다리운동 등 치료체조를 하느라고 떠들썩했다.

례영이와 준의가 교대교대로 그들에게 지휘구령을 쳐주고 있었다.

두찬은 회복기 부상병들의 그 률동적인 치료체조동작들을 관심 많은 눈으로 살피고있었다.

뒤로 힘껏, 앞으로 힘껏, 공중을 향하여 힘껏 뛰여올라 보기도 하는 그들이였다.

아직 치료체조에 참가할 정도로 회복되지 못한 부상병들은 부러운듯 동무들을 쳐다보면서 심술을 부리기도 했다.

《제길, 저러구두 전투에 참가하겠다구 을러대거든. 동무는 이제 허리를 곧추 펴는 동작을 어물쩍해버렸어.》

그러면 또 다른 부상병이 체조중의 또 다른 동무의 흠을 찾아내였다.

《여보게 순필이, 너무 다 나은체 말라구. 동무가 이제 뒤로 뛰여넘기를 제대로 했나?》

결함이 들켜난 동무들 역시 대답이 바르지 못했다.

《뭐라구? 내가 이제 뒤로 뛰여넘기를 제대로 못했다구? 심술쟁이는 국사발이나 받으라. 하나…둘…셋!》

그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활달한 롱담은 기로나 두찬이가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인제 우리의 전투대렬은 늘어날것입니다.》

기로가 두찬을 바라보며 만족한 기분으로 말했다.

《리해하기 어렵습니다.》

두찬은 그 어떤 다른것을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무엇을 말입니까?》

《당신네 저 부상병들은 전투에 참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것 같군요.》

《그것이 리해 안되다니요?》

《…》

이 말에 두찬은 대답을 피했다.

그는 지금 치료생활을 속히 끝내려고 서둘러대는 인민군대 병사들을 보면서 자기가 미제침략군들의 병원이나 괴뢰군병원에 불리워가서 보던 부상병들을 생각하게 되였다.

거기서는 부상병들이 상처가 완치되는걸 무서워했다. 다시금 전선부대에 파송될것을 꺼리는 기색을 감추려조차 하지 않는 그들이였다. 그때문에 거기서는 부상병들이 완치될무렵이면 군의들과의 접근을 피했다. 때로는 군의와 회복기의 부상병들간에는 원쑤처럼 반목이 생기군했다. 군의들은 부상병들을 가혹하게 대했으며 심한 경우엔 기합을 넣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전혀 다른것이였다.

치료체조를 끝낸 부상병들은 취침시간이 되여 침상에 오르면서 군의나 준의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것이였다.

이것은 두찬에게 많은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광경이였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것을 생각하고있었다.

밤이 깊었다. 기로는 그때까지도 병사들을 기다리며 한자세로 문결에 앉아있었다.

자신이 직접 인솔하지 못하고 병사들만 적들의 소굴로 보내놓은 지휘관의 초조와 불안이 얼마나 큰가를 난생처음으로 체험하는 기로였다. 이때만은 기로에게 조심성이 적은 달서가 민첩성과 대담성을 가진 달서보다 더 많이 생각되였고, 성실하고 근면하여 어떤 일이나 달라붙으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준보보다 굼뜬 준보가 더 많이 생각되였다.

이런 심정을 두고 사람들은 《어머니심정》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른다.

기로는 평소의 소대생활에서 자기가 병사들의 개성적

약점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교양을 좀더 강한 훈련을 통해 진행하지 못한것을 지금처럼 절절하게 후회해본 때란 없었다.

실내통로로는 직일근무중인 례영이가 발소리를 죽여가며 이 부상병의 침상으로부터 저 부상병의 침상으로 옮겨다니면서 모포도 바로 덮어주고 베개도 바로잡아주었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부상병들의 숨소리가 고르로운가를 한참씩 들어보는것이였다. 모든 부상병들의 호흡기계통에 특별한 징조가 없다는것을 믿게 되자 그는 기로가 앉아있는 문곁통로로 의자를 옮겨왔다.

《지금 무엇을 생각했어요?》

례영은 기로와 자기외엔 모두가 잠들었다는것을 확인해보려고 병실을 다시한번 둘러보며 물었다. 아직도 그들은 사람들앞에서 단둘이 만나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군의동무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하고있었지요.》

기로는 낯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 다음은요?》

《…》

기로는 방금전에 자기가 무엇을 생각했던가를 례영에게 말하고싶지 않았다. 그건 무거운 생각이였다. 그리고 자신의 초조와 불안이 례영에게도 옮겨질가 우려하는 기로였다. 그는 자기 대원들의 개성적약점을 례영이까지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를 원치 않았다.

기로가 오늘밤 생각한것을 한마디로 묶는다면 그것은 그가 지휘관으로서 지낸 기간을 돌이켜보는 하나의 《자기비판적검토》일것이다. 때문에 그는 례영을 자기의 그런 무거운 기분속으로 끌어들이고싶지 않았다.

기로가 끝내 대답을 피하는것을 보자 례영은 웃으며 말했다.

《동무에겐 언제나 숙제검열을 겁내는 학생과 같은데가

있어요.》

《옳게 맞췄습니다. 나는 학생때 선생님들을 무서워하는 겁쟁이였답니다.》

기로는 잠시나마 명랑한 학생시절을 회상하게 할수 있는데로 례영이가 화제를 끌어가는게 기뻤다. 어쩌면 례영이 자신 기로가 생각하고있는것을 알아내고 그를 그 무거운 기분상태에서 풀어주려고 의도적인 화제바꿈을 했는지도 몰랐다.

적들속에 가서 임무수행중에 있을 병사들의 신변을 념려하여 늦게까지 앉아있는 기로의 초조와 불안을 함께 나누고싶어하는 례영이였다.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즐겁고 명랑하게 해주고싶기도 한 례영이였다. 하지만 기로도 례영이도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는한 이이상 더는 명랑해질수 없는 심정이였다.

준보와 달서가 돌아왔다.

그런데 보통때와는 딴판으로 특별한 만족과 사기충천한 기색들로 나타났다.

전보대처럼 키가 큰 미제침략군놈을 잡아가지고 온것이다.

《소대장동무가 그동안 적적해하시기에 〈말동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달서는 끌고 들어온자를 조소어린 시선으로 가리키면서 우쭐대는것이였다.

무척 새파란 눈을 가진 미제침략군 대좌놈은 방안으로 들어서자 기로가 군관이라는것을 알고 그앞에 무릎을 모두며 앉았다.

뭐라고 애걸하는 그놈의 목소리는 울음절반, 말절반이였다.

이 대좌놈은 운전수가 변소에 간 사이 차우에 앉아 졸다가 꼴문지기의 날쌘 손에 걸려 입을 틀어막히운채

예까지 오게 된것이다.

기로는 이놈으로부터 전선동태를 알아보려고 심문을 시작했다. 자다가 깬 리두찬이가 중간에서 통역을 했다.

《전선은 지금 어느 계선인가?》

《당신들은 최근 어떤 작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려고 하는가?》

《당신네 장군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해가고있는가?》

이 대좌놈은 횡설수설 뭐라고 말은 하나 리두찬이가 알아들을수 없어서 통역하지 못했다. 그건 너무 겁에 질려서 목숨만을 생각하는외 또 다른 질문 같은건 그놈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기때문이다.

《살려주시오. 나는 선량하게 산 장교요.》

미제침략군 대좌놈은 포로되여오는 도중에 바보처럼 눈치 없이 처신하다가 달서에게 여러차례 혼빵난 모양이였다. 달서가 저만치 앉았다가 바라보기만 해도 몸을 움츠리면서 기로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했다.

전선형편을 알고싶은 마음은 리두찬 역시 큰것이여서 그는 여러차례 기로의 질문내용을 영어로 반복하여 옮겼다.

그러나 가련한 미제침략군 대좌놈은 그에 대답할대신 주머니에서 자기의 소지품을 죄다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중엔 상당한 액수의 딸라가 있었는데 그놈은 그것을 길쭉하고 털돋은 손가락으로 짚으며 《군관께서 필요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 순간 병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이 폭소는 미제침략군 대좌놈에게 다르게 접수되였다. 아마도 인민군군관이나 병사들이 딸라때문에 만족해한다고 생각했던것 같다. 그래서 미제침략군 대좌놈은 또다시 주머니를 뒤지며 이 인민군군관의 환심을 살만한것이 없는지 살피느라고 웃주머니에서 아래주머니로 손을 넣었다 꺼냈다 하며 부산을 피웠다.

그놈의 이 의젓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꼴을 보던 두찬은

견딜수 없어 눈을 감고말았다.

(이게 미국인들이였던가?)

너무도 큰것을 발견한 리두찬이였다.

그는 여기 적후에 떨어진 인민군대들과 함께 있는 기간 많은것을 새로 볼수 있었고 깨달은바도 새로운것이 많았지만 오늘밤처럼 큰것을 발견하기는 처음이였다.

《미군장교》가 조선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살게 해달라고 애걸한다는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할수 없었던 리두찬이였다.

그에게 있어 《미국인》들이란 어느 나라 민족도 건드릴수 없는 범의 수염이였다. 그들의 땅크행렬과 비행편대 앞에서 세계는 어쩔수없이 복종하고야 마는것만이 자연스러운것이라고 생각해온 리두찬이였다. 그의 이런 믿음은 너무도 확고한것이여서 언제 한번 자기의 이 견해를 재검토해볼 기회란 없었다. 그는 미국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남조선땅에 살면서 수많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이였다. 그 멸시와 천대가 크면 클수록 온몸을 떨면서 격분했으나 그 격분을 온순하게 묵새겨버리는데만 애써온 그였다. 오직 자기가 힘도 없고 부유하지도 못한 나라에 태여났음을 한하였을뿐이였다.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는 강자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는것만이 살아가는 유일법칙이라고만 믿어왔다.

반항, 항거, 투쟁, 이런것들은 약소국가의 민족들에게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것이기는 하나 승산없는 감정의 폭발로서 피해밖에 받을것이 없다고 믿어온 두찬이였다.

두찬이 역시 미국놈들이 무리한 일을 하라고 강요할 때마다 폭발하려는 반항심을 가까스로 누르며 살아왔다.

여기 깊은 산중에서 예기치 않았던 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그의 이런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와 함께 있는 소부대의 지휘관인 장기로나 그의

병사들을 두찬은 때로 경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했으나 자기의 그 법칙에 적용시켜 그들을 봤을 땐 슬픈 심정이였다. 왜냐 하면 그들이 승산없는 전투-미국과의 전쟁을 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미국과의 이번 전쟁에서 자기들은 승리할것이며 사단 역시 다시금 진격해오리란것을 믿고있는 그들의 《리해부족》과 《사리판단에 어두운》것을 동정하기도 하는 리두찬이였다.

만일 자기가 이런 처지가 아니였다면 그는 오랜 시일 함께 지내고있는 젊고 지식있는 군관인 장기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을것이다.

《진리를 깨닫는다는것은 일순간이라오. 그 일순간을 찾기 위해 몇십년내지 온 일생을 허비할수도 있소. 젊은이나 나의 불행은 약소국가에 태여난데 있을뿐이요.》라고.

그랬던 두찬의 눈앞엔 지금 미국놈장교가 앉아서 조선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눈뜨고 볼수 없는 추태를 부리고있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조선사람들에게 그처럼 손이 발이 되여 빌면서 굽신거리는 미국놈을 볼 때 실로 형언키 어려운 심정이였다.

그것을 보면서 두찬은 자기가 미국놈들앞에서 받았던 온갖 민족적모욕들이 빠르게 머리속을 스쳐지나갔다.

(조선사람들에게도 저런 우월감이 있단말인가?)

두찬은 기로나 병사들이 미국놈의 비굴성을 조소하는것을 보고 자기가 그처럼 오랜 기간 눌리여 산 《미국인》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기로나 병사들이 그리고 옛동료의 딸 례영이가 자기더러

《당신 좀 보시오. 이런 추하고 비굴한자들이 당신이 겁내는 미국놈들이요.》

라고 말하는듯만싶었다.

두찬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때까지 주머니만 뒤적거리던 미제침략군 대좌놈은 더 이상 주머니에서 찾

아낼것이 없게 되자 늦게야 생각하게 된것을 후회하는 듯한 동작으로 팔목에서 시계를 풀어 기로앞으로 내밀었다.

기로는 더는 참을수 없어 주먹으로 탁상을 치며 날카롭게 물었다.

《전선이 어덴지만 대답하라!》

기로의 돌변한 태도는 미제침략군 대좌놈이 자기 심장을 부둥키며 창백해지도록 했다.

《평양이요, 평양근방이요.》

그 다음 이 미제침략군 대좌놈은 바람벽에 등을 던지며 뭐라고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더니 온몸을 비틀고 부르르 떨다가 심장파렬로 죽고말았다. 지나친 공포가 그놈으로 하여금 이처럼 개죽음을 하게 했다.

《이 사람은 정신병자요.》

두찬은 죽은자를 가리키며 그자의 진술을 믿지 말라는듯 기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기로는 그 말을 못들었다. 인민군대가 재진격을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곳으로 달려갔던것이다.

17

부상병들중 여러 사람이 일어나게 되였다.

군의 윤례영과 준의 박경숙은 그들중 두사람만을 퇴원시켰다.

병사 훈규와 오순필이였다. 그리하여 전투대렬은 늘어났다.

기로도 지팽이를 던져버리고 치료체조를 거쳐 등산속도와 내려달리기속도에서 이전과 같은 기록을 회복

하게 되였다. 아직 왼쪽발에서 붕대를 죄다 풀어내지는 못했으나 그것은 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건 아니였다.

자기네 지휘관의 몸이 이처럼 나아진것을 보고 달서가 통쾌한 전투를 한번 조직해보자고 제기했다. 기로 역시 그동안 자리에 누워있으면서 원했던바가 바로 그것이였다. 이제부터는 계속 전투대렬이 늘어나는 조건에서 적후를 종횡하며 미제침략군놈들을 힘자라는껏 갈겨줄 사명을 소대앞에 내세운 기로였다.

이것은 재진격작전을 개시한 인민군 주력부대들에 호응하는 적후부대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되며 정세에 비춰본 당면과제로 된다고 기로는 생각했다.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시고 지휘하시는 재진격작전의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주력집단들에서는 비록 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작전에 참가한다는것만으로도 더없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였다.

기로는 이 영예로운 첫전투를 폭넓게 조직했다.

눈보라가 광란하듯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불어치는 밤에 기로는 전투원들을 데리고 병실뒤 절벽을 타고 넘었다.

낮에 달서와 훈규는 《낚시목》이라고 불리우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찰했다.

낚시목은 적들의 전선수송부대들의 왕래가 심한 신작로를 굽어보며 낚시처럼 휘여든 산이였다. 여기에서는 얼마전부터 패주하여 남으로 빵소니를 치기 시작한 적들을 내려다보면서 마음껏 사격할수 있었고 수류탄을 던질수 있었다.

하늘엔 휘영청 달이 높이 떠있고 눈보라는 벌거벗은 나무들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낚시목에 이르자 기로는 눈아래 신작로를 완전히 제압할 세개의 화력구역을 설정했다. 첫구역은 산이 길쭉하게 삐여져나온 돌출부였는데 여기에 순필이와 훈규를 데리고 기로가 남기로 했다. 그 다음구역은 달서의 구역이였는데

거기는 비교적 낮은 지대로서 신작로와 거의 린접되여있었다. 준보가 맡은 세번째 구역은 신작로를 제압할 화력의 꼬리부분으로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신작로와 련결되여있었다.

전투원들은 자기 구역으로 가서 눈을 헤치고 몸을 묻은 다음 신작로에 적군자동차대렬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반시간쯤 지났을 때 북으로부터 나타나서 남으로 가는 적들의 길다란 자동차행렬이 보였다.

적재함마다엔 미제침략군놈들이 가득가득 타고있었다. 급하게 남으로 패주하여 달아나는놈들이 틀림없었다. 전조등을 환하게 밝히고 나타난 아홉대의 적군자동차는 조심스럽게 산굽이를 지나더니 장기로소대전투원들의 사격권내로 미끄러지듯 굴러왔다.

패주하는놈들의 몰골은 비참하기가 견줄바 없을 정도였다. 자동차우에 올라앉아있는놈들치고 어깨죽지 하나 제대로 펴고있는놈이 없었다. 《저승》으로 가는 문턱에 한쪽켠 발을 들여놓았다가 간신히 살아나온놈들인듯 제정신을 잃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는가 하면 흘러내리는 코물을 훔치는데만 정신이 쏠려있는놈들이였다.

놈들이 타고 가는 자동차 역시 겨우 건져낸것이 틀림없었다. 앞대가리가 우글쭈글하니 밟아놓은 양철통처럼 된 자동차가 있는가 하면 적재함의 널쪼박들이 떨어져서 건들먹거리는 자동차가 있었고 탄환구멍투성이의 자동차들이 있었다.

기로는 선두차의 적재함에 수류탄을 던졌다. 그러자 그 선두차가 폭발되면서 놈들의 자동차행렬은 멎었다. 그 순간 전투원들은 련속적으로 자기 구역내의 적들에게 수류탄을 던졌고 기관단총으로 사격을 했다.

달서의 사격권내에서는 세대의 자동차가 부스러지면서 주저앉았다. 그 세대에 타고있던놈들은 대부분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은채 급해맞은 음성으로 고아대다가

수류탄파편을 얼굴에 뒤집어썼다. 날쌘 한놈이 적재함에서 뛰여 내리려다가 가슴에 탄환을 맞고 앞으로 고꾸라졌는데 몸뚱이가 적재함모서리에 걸려 상체만 밖으로 매달렸다. 그자는 땅을 향하여 두팔을 늘이웠는데 철갑모가 길우에 떨어져서 저만치 굴러가다가 멎었다.

준보의 구역에서는 정황이 좀 다르게 되였다.

그는 두대의 적군 자동차를 자기 화력권내에 《모시게》 되였는데 다른 구역에서보다 좀 늦게 수류탄을 던졌다.

그가 던진 수류탄은 굼뜨게나마 한대는 명중했으나 한대는 명중하지 못했다. 명중되지 않은 자동차에 탔던 놈들은 아우성을 지르며 결사적으로 적재함에서 뛰여 내렸다. 자기의 능하지 못한 수류탄던지기에 화가 난 준보는 땅바닥으로 내리뛴놈들을 향하여 기관단총사격을 시작했다.

땅에 발은 붙였으나 의지할곳을 찾아다니던놈들은 저희들끼리 엉뎅이를 맞대고 뭉개치다가 푹푹 쓰러졌다. 그런데 그중 몇놈이 허둥지둥 살아보겠다고 빙빙 돌더니 비상한 결심을 한듯 산으로 바라올랐다. 산으로 붙은놈들은 준보쪽으로도 향하고 달서쪽으로도 향했다. 거의 정신을 잃다싶이 된 놈들이라 총을 내던진놈들이 대부분이였다. 준보쪽으로 올라온 두놈은 준보가 자기들을 발견하기전에 덮쳐들었다. 그래서 준보와 두 미제침략군놈들과는 격투가 벌어졌다. 준보는 놀란김에 황소처럼 앞으로 몸을 내밀며 첫번째놈을 머리로 받아넘겼다. 했으나 뒤놈의 커다란 주먹이 가슴으로 들어오는걸 막지 못했다. 센 타격을 받은 준보는 뒤로 미끄러지며 손에 잡았던 총신으로 그놈의 귀바퀴를 때렸다. 그놈은 머리를 뒤로 젖혔다가 준보를 그러안고 넘어졌다. 준보는 그놈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있었다. 원래 체통이 준보보다 큰 이 미제침략군놈은 준보를 물어뜯으려고 아가리를 쩍

벌리고 덤벼들며 기회만 노렸다. 이러한 사이 먼저 받기워 넘어졌던 미국놈이 일어나서 저희 동료를 도우려고 왔다. 이리하여 준보는 불리하게 되였다.

준보의 린접인 달서는 자기에게로 바라오든놈들을 접근조차 못하게 기관단총으로 죽여버리고 준보쪽으로 왔다. 와서 본즉 준보는 두놈을 상대로 피투성이가 되여 싸우다가 놈들에게 숨통을 눌리울 위기를 겪고있었다.

달서는 준보의 숨통을 누르려고 손을 내미는놈의 골통을 발로 힘껏 찼다. 언 군화끝으로 채운놈은 골통이 빠개져 저만치 나가 자빠지였다. 나머지 한놈도 내려뛰다가 달서에게 뒤덜미를 잡힌후 총탁을 골통에 받고 나무등걸우에 쓰러졌다.

《흥, 이따위들 두놈을 당해내지 못해.》

하고 달서는 코웃음을 치며 준보에게 인공호흡을 해주기 시작했다. 겨우 정신이 든 준보는 달서를 보자

《내가 살아있나?》

하고 물었다.

《말하는걸 보니 죽지는 않았어.》

달서는 준보의 얼굴에서 피를 씻어주었다.

《그 개자식들이 한놈씩 덤빌줄 알았는데 함께 덤비더란 말이야.》

《달구지처럼 굼뜨니깐 두놈을 접근시켰지.》

《그게 내 결함일세.》

준보는 일어나 앉으며 달서를 보고 《헤헤…》하고 부끄럽다는듯 웃었다.

이럴즈음 기로는 자기 구역에서 순필이와 훈규를 지휘하면서 아직도 살아남아 부서진 차체뒤에 숨은채 대응사격을 하고있는 적들을 성과적으로 소탕하고있었다. 가망없는 불질인줄 알면서도 잔당들은 결사적으로 항거하다가 한놈씩 한놈씩 저희놈들의 시체우에 넘어졌다. 달서와 준보가 그 잔당들을 소멸하는 기로네를 익측으로

부터 도와서 사격하기 시작했다.

적들을 완전히 섬멸해버렸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자 기로는 병사들을 데리고 신작로로 내려가서 총들을 한짐씩 걸머메게 한 다음 돌아가는 길에 들어섰다.

눈보라는 적들의 시체우에 눈을 날라다 뿌리고 하늘에선 차거운 달이 굽어보고있었다.

병사들은 이제 병실에 들어서면 전우들이 자기들을 개선장군처럼 환영할것을 그려보며 전투후의 피로도 추위도 잊은채 힘차게 걷고있었다.

부상병집단의 오늘은 어제처럼 정상이였다. 그들을 적들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산이며 골짜기 역시 두꺼운 눈에 덮여 어제처럼 오늘도 변함이 없었다.

부상병들이 들을수 있는것 또한 고향의 겨울밤을 그려보게 하는 바람소리뿐이였다.

하지만 그들이 듣고싶어하는것은 빈 산을 가고 오는 바람소리가 아니였다.

그들이 듣고싶어 애태우는것—그것은 아군들이 반격의 진로를 여는 포성이였다.

바람소리 대신 포성을! 포성을 듣고싶어하는 그들이였다. 그것은 이들이 바라는 최대의 념원이였다.

그랬던 아군들의 포성을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한 부상병이 들었다.

《기상！ 기상！ 포성이다！》

밤중이언만 그 부상병은 바람벽을 차고 물통으로 침상모서리를 두들겨대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쳤다.

《쿵— 쿠쿵…》

《쿵—쿵—쿵…》

틀림없는 아군들의 포성이였다. 적의 포소리와 아군의 포소리를 분간 못할 부상병이 아니였다.

잠에서 깨여난 병사들은 귀를 기울였다. 그 다음 병실은

만세소리와 환호성으로 떠갈듯이 뒤집혔다.

진격로를 여는 아군들의 그 포성은 아직 먼곳에서 들려왔건만 부상병들은 문을 차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제는 심장파렬로 죽은 미제침략군 대좌놈이 정신이상으로부터 온 헛소리를 하지 않았다는것이 명백해졌다.

포성은 계속 들려왔다. 전선은 틀림없이 남쪽으로 옮겨오고있었다.

군의 윤례영은 부상병들이 노래불러도 좋다는것을 승인했다. 부상병들은 손에 잡히는것이라면 무엇이나 들고 장단을 치면서 노래불렀다. 취사장직일을 선 준보는 특식을 공급하겠다는것을 선포했다.

오늘은 그들에게 명절이였다.

기쁨과 감격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부상병들은 이제 사단을 만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를 뵙게 될수 있다는것으로 하여 낮이나 밤이나 눕지조차 못했다.

흥분, 흥분 그리고 또 감격의 파도가 끝없이 설레이는 그들의 심장이였다…

사단담가대가 도착한것은 함박눈이 내리는 밤이였다.

담가대를 지휘하고 온 사단병원의 나이 많은 군의는 안경을 벗어 닦으면서 사단이 지금 얼마 멀지 않은 지점에서 패주하는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섬멸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담가대와 동행하여온 분대장이 부상병들앞에 나섰다.

《동무들, 우리가 이제야 온것을 용서해주시오.》

그 분대장은 부상병집단과 함께 이곳에 남았던 분대의 지휘관이였다. 그는 자기 대원들을 데리고 부상병들의 월동용 솜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곳을 다니다가 재진격하는 사단을 만나 담가대와 함께 온것이다.

그 분대장이 말을 마치기를 기다려 나이 많은 군의는

옷깃을 단정히 여미더니 넓은 병실의 구석구석을 죄다 굽어볼수 있도록 복도끝에 놓인 빈상자우에 올라섰다.

《그대신 동무들, 우리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적후에 남아있는 동무들에게 보내시는 솜동복과 의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땅 깊이까지 기여든 미제침략군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섬멸해버릴 또 하나의 천재적인 작전방침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제2전선을 펼치신것입니다. 강력한 타격집단인 제2전선관하 련합부대들은 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두들겨대고있습니다. 원쑤들은 패주하면서 우리의 제2전선에 걸려들어 무리죽음을 당하고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력사적인 제2전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단의 전투대오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나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 두번째 남진의 길에 오르고있습니다.》

그러자 조용하던 병실은 갑자기 만세소리로 가득차면서 떠나갈듯하였다. 했으나 그 만세소리는 분대장이 자기 대원들과 담가병들이 메고 온 두툼한 솜동복과 의약품상자들을 들어올리자 울음소리로 변하였다.

샘솟아오르는 감격을 더는 누를길 없었던 부상병들은 울음을 터뜨린것이다.

군의 윤례영도 울었고 준의 박경숙도 울었으며 소대장 장기로도 울었다. 그리고 준보도 달서도…

저만큼 홀로 떨어져 서있는 리두찬마저 손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문지르고있었다. …

밤이 깊어가는줄도 모르고 오랜만에 만난 전우들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준보는 약속대로 밤참을 특식으로 공급했다.

《동무들, 이런 밤에 잠잔다는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요. 이처럼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저 우리의

포성을 들읍시다. 그러다가 날이 새면 여기를 떠납시다.》
식탁의 중심위치에 앉았던 달서가 일어서서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키더니 한손을 높이 들고 시랑송이나 하듯 이런 말을 했다.

동틀무렵에 대부분이 회복된 부상병들은 떠날 준비를 했다.
기로와 례영은 출발에 앞서 리두찬과 만났다.
《나는 이제 당신과의 약속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느쪽으로 가시렵니까?》
기로는 두찬에게 진심이 느껴지도록 부드럽게 말했다.
두찬은 구두끈을 졸라맨후 침착한 동작으로 허리를 펴고 일어서기는 했으나 대답은 하지 못했다.
《…》
《나는 당신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 수고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기로는 두찬이와 헤여지게 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인민군대 지휘관으로서의 례의를 잃지 않았다.
두찬은 언제인가 자기에게 했던 약속을 시행하려는 젊은 군관의 거짓 모르는 《관대성》에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나는 부상병들이 전투대오에 들어서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함박눈이 내리는 골짜기를 굽어보면서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힌채 이처럼 대답할뿐 움직이지 못했다.
갑자기 외토리로 남게 되여 끝조차 모를 골짜기와 허허벌판에서 방황하게 될것만 같은 두찬의 심정이였다.
믿어 의심이 없고 일생을 의탁한들 우려되는바 있을 상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과 사귀게 되였다가 헤여지는 것이 그에겐 슬펐다.
그 슬픔은 눈물로 되여 두뺨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이제

이런 사람들과 헤여져 골짜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큰 결단성이 요구되는 두찬이였다.

그것은 골짜기가 깊고 눈에 쌓여있었기때문도 아니요, 길을 헛들가 두렵기때문도 아니였다.

보다 큰 리유는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기때문이였다.

최근의 여러날 어간에 그는 많은것을 보면서 자기의 오랜 생활신조인 《약자와 강자》의 철학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 두찬이로 하여금 끝내 걸음을 옮겨 골짜기밖으로 나갈 결단성이 생기지 못하게 했다.

례영은 이 늙은이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고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와 함께 가요.》

그리고는 정다웁게 끌었다. 두찬은 옛동료의 딸이 끄는대로 걸음을 떼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길러내신 이들, 인민의 병사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내 비록 늦게나마라도 이들을 따라 장군님께 일생을 바치리라.)

그리하여 그도 인민군병사들이 가는길을 택하게 되였다.

앞에서는 부상병들을 태운 담가대의 행렬이 움직여가고 멀리에서는 진격로를 여는 아군의 포성이 들려왔다. 그 포성은 이 땅에 기여든 원쑤들을 몰아내는 뢰성과도 같이 온 천지를 뒤흔들고있었다.

기로와 그의 전우들도 담가대행렬의 뒤에서 일동을 호위하며 힘차게 걷고있었다.

-1966년 3월-

중편소설 포 섬

제 3 판

저자 정창윤 편집 림병순
표지,삽화 김성엽 교정 안순영
콤퓨터편성 고려전자출판물사 리순정,최현애
낸 곳 문학예술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55(1966)년 10월 5일
2판발행 주체60(1971)년 6월 30일
3판인쇄 주체94(2005)년 8월 1일
3판발행 주체94(2005)년 8월 5일
ㄱ—15117